

3장 | 수원군읍지

수원군의 둘레는 580리(里)이다. 동서로는 120리, 남북으로는 125리이다. 동쪽으로 용인(龍仁)까지의 경계가 20리, 서쪽으로 남양(南陽)까지의 경계가 40리, 남쪽으로 진위(振威)까지의 경계가 40리, 북쪽으로 광주(廣州)까지의 경계가 15리가 된다. 또, 남쪽으로 충청도 직산(稷山)과 평택(平澤)까지의 경계가 각기 70리, 남쪽으로 큰나루를 건너 본부(本府)의 삼도(三島)까지의 거리가 130리이다. 삼도는 남으로 충청도 아산 경계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충청도 당진(唐津) 면천(沔川) 지경과 접하고 있다.

건치연혁 建置沿革

군 郡의 설치 고구려 당시 매홀군 買忽郡을 설치하였다.

호 號의 개정 신라 경덕왕 景德王 때 개정하여 수성군 水城郡으로 하였다.

주 州로 승격 昇格 고려 태조가 남쪽을 칠 때에 고을 사람 김칠 金七과 최승규 崔承珪 등이 귀순 歸順하여 힘을 쓴 공 功으로 승격하여 수주 水州가 되었다. 성종 成宗 때 고을 단련사 團練使를 두었다가 목종 穆宗 때 파 罷하였다. 현종 91018년에 다시 수주사 水州使로 하고 쌍부 雙阜(옛말에는 부 府)의 남쪽으로 80리에 있는 고 온포 古溫浦라고 한다. 살피 증험 證驗하건대 고온포는 지금의 압정면 鴨汀面에 있고, 쌍부 雙阜는 지금의 우정면 雨井面에 있다고 하니 혹 고온포가 옛날에는 우정면에 속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후일의 참고로 대비한다, 용성 龍城(부의 남쪽으로 80리 청룡면 靑龍面)에 있다. 본래는 고구려 상홀현(上忽懸)이니 한편에서는 차홀(車忽)이라고 하였다. 신라 때 차성(車城)이라고 했다가 당은군(唐恩郡)으로 했으며, 고려 초기에는 용성(龍城)으로 고쳤다) 두 현을 속하게 하였다.

도호부 都護府로 승격했다가 거듭 목 牧으로 승격함 원종 121271년에 천량 穿梁을 방위하던 몽고군 蒙古軍이 대부도 大阜島로 들어와서 주민을 침범하고 노략질하는지라 섬 사람들이 몽고 군사를 죽이고 반기 反旗를 들었다. 부사 副使 안열 安悅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토평 討平하였다. 그 공으로 도호부 로 승격되고, 또 승격하여 수주목 水州牧이 되었다.

부 府로 강등하고 호 號를 고침 고려 충선왕 21310년 여러 곳의 목 牧을 도대시 都臺시킬 때 강등하여 수원부 水原 府로 하였다.

군 郡으로 강등했다가 다시 부 府가 됨 공민왕 111362년¹⁾에 홍건적 紅巾賊이 양광도 楊廣道로 들어오며 주 州와 군 郡에 항복하라고 하였다. 이때 수원부의 사람이 먼저 항복하여 적의 세력을 더욱 확장시켰으므로 드디어 강등하여 군으로 하니 군 사람들이 재신 宰臣 김용 金肅에게 큰 뇌물을 주고 다시 부 府로 되었다.

도호부 都護府로 고침 본조 本朝 태종조 太宗朝에 도호부로 고치고 인천 仁川의 양간 楊干과 양성 陽城의 종덕 宗德을 귀속시켰다. 세조 世祖朝 때는 진 鎭을 설치하고 또 판관 判官을 두었다(어느 때 판관을 혁파했는지는 문헌이 없다). 선조 宣祖朝 때 방어사 防禦使를 겸하였다. 현종조 顯宗朝 때 토포사 討捕使를 겸하였다.

유수영 留守營으로 승격함 정종 기유정조 14, 1789년 현릉원 顯陵園을 천봉 遷奉한 후에 광주부 廣州府의 일용 日用과 송동 松洞 두 면을 귀속시켰다. 계축정조 17, 1793년에 유수영 留守營: 留守府으로 승격하고, 장용 외영 壯勇外營을 겸했으며 또 판관 判官을 설치하였다. 병진정조 20, 1796년에는 경기감영 京畿監營에 속한 광주의 양재역 良才驛을 옮겨 설치한 뒤 영화도 迎華道라 고치고 인하여 귀속시켰다. 신유순조 1, 1801년 장용내영 壯勇內營을 혁파하고 뒤에 외영 外營도 또한 파하고 고치어 총리영 總理營을 설치

1) 본문에는 31년이라 오기(誤記)하였다.

하여 겸하였다. 옛날에 진관鎭管 12읍이 있었으니, 부평富平·인천仁川·남양南陽·통진通津·김포金浦·안산安山·양천陽川·진위振威·용인龍仁·안성安城·양성陽城·금천衿川²⁾ 등이 그것이다. 우수영으로 승격한 다음 진鎭에서 관할하던 읍을 남양南陽에 이속移屬하였고, 진위·용인·안산·과천·시흥 및 충청도 평신진平薪鎭을 군무軍務 때문에 속읍鎭屬邑鎭으로 하였다. 을미고종 32, 1895년에 우수영을 폐지한 후에 진읍鎭邑鎭을 속하게 하는 것을 실시하지 않고 병신³⁾ 1, 1896년에 경기도 관찰부觀察府를 설치하였다.

읍명 邑名

- 매홀 買忽 건치연혁을 볼 것. 군郡을 설치함.
- 수성 水城 건치연혁을 볼 것. 이름을 고침.
- 수주 水州 건치연혁을 볼 것. 주州로 승격함.
- 수원 水原 건치연혁을 볼 것. 부府로 강등하여 이름을 고침.
- 한남 漢南
- 수성 隋城
- 화성 華城 정종 갑인³⁾ 정조 18, 1794년에 명명命名되었다.

읍치 邑治

- 옛 읍치 舊邑治 화산花山 아래 있었으니 지금의 용복면龍伏面이다. 정종 기유²⁾ 정조 13, 1789년에 현릉원을 옮겨 모시고 읍을 옮기었다.
- 새 읍치 新邑治 팔달산 아래 신기리新機里에 있다. 유좌酉坐의 땅이다. 주위 둘레가 4,600보이다. 정종 갑인³⁾ 정조 18, 1794년에 주위 둘레에 성을 쌓았다.

2) 금천(衿川) : 1914년 시흥시 지역을 의미하지만 원래는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이 중심지였다.

3) 화성의 명호는 1793년의 일이고, 1794년은 '화성성역'을 시작하며 유수부를 설치한 해로 착오가 있다.

방리坊里

40개 면面, 449동洞으로 각 면에는 풍헌風憲·약정約正·기찰譏察·이정里正·권농勸農 등 각기 1인씩 배치하였으나 지금은 폐지하였고, 다만 면장面長과 이장里長, 권농 각 1인 씩 두었다.

남부南部 부내府內이다. 모두 20개 동으로 옛 고등촌면古等村面도 이제 여기에 합쳤다. 남창동南倉洞·남수동南水洞·매향동梅香洞·구천동龜川洞·산루동山樓洞·교동校洞·하류천下柳川·장지촌長芝村·향목정香木亭·독산리秃山里·상류천上柳川·하지장포下芝長浦·상지포上芝浦·벌리汶里·세동리細洞里·권동權洞·천동川洞·내동內洞·우만리牛滿里·신폭新幅 등이다. 부내府內: 유수부의 중심지를 남북으로 나누어 전에는 남리南里와 북리北里로 일컬었다. 정종 병진1796정조 20년 성역城役을 끝내고 남부南部와 북부北部로 고쳤다. 신평교新豐橋에서 남쪽으로 팔달문八達門 안에 이르기까지의 서쪽변과 팔달문 밖으로 향교동鄕校洞까지는 남성자내南城字內가 된다. 신평교新豐橋의 북쪽에서 장안문長安門 안 서쪽변과 화서문華西門 밖은 서성자내西城字內가 된다. 십자十字거리 동북東北 모퉁이에서 장안문 안 동쪽변과 보십곳市十串의 북쪽에서 장안문 밖에 이르기까지는 북성자내北城字內가 된다. 십자十字거리 동남 모퉁이에서 팔달문 안 동쪽변과 개울 동쪽의 아래 위는 동성자내東城字內가 된다. 이와 같이 경계를 정하여 남부와 북부 양부南部에 나누어 소속시켰다.

북부北部 부내이다. 14개 동으로 옛 광교면光教面이 이제는 여기에 합쳐졌다. 보시동普施洞·북수동北水洞·장안동長安洞·군기동軍器洞·신평동新豐洞·관길동觀吉洞·역촌驛村·용연龍淵·지소동紙所洞·서둔동촌西屯東村·고양동高陽洞·화산동花山洞·서둔촌西屯村 등이다.

일용면日用面 북쪽으로 5리 거리이다(처음 경계를 들어서 말하였다. 아래도 같다). 모두 7개 동으로 본래 광주부廣州部에 속하였다가 정종 기유정조 13, 1789년에 내속內屬되었다. 미륵당彌勒堂·파동琶洞·일림리逸林里·대송죽리大松竹里·조원藥園·정자리亭子里·진목정眞木亭 등이다.

장주면章洲面 동쪽으로 5리 거리이다. 모두 9개 동이니, 옛날에는 장족면長足面이라고 일컬었다. 권선리勸善里(적사리赤寺里)라고도 한다. 산남리山南里·궁촌宮村·구역촌值驛村·원천遠川·매곡梅谷·영통靈通·신목동申木洞·평촌坪村 등이다.

형석면荊石面 북쪽으로 10리 거리이다. 모두 6개 동이다. 신기촌新基村·울전粟田·천천리泉川里·탑현동塔峴洞·방축동防禦洞·이목동梨木洞 등이다.

안녕면安寧面 남쪽으로 15리 거리이다. 모두 9개 동이다. 야반정野礮亭·독지동秃至洞·배양동培養洞·작현동鵲峴洞·송산리松山里·장지촌長芝村·하류천下柳川·곡반정谷礮亭·궁촌宮村 등이다.

용복면龍伏面 남쪽으로 15리 거리이다. 모두 4개 동이다. 기전리旗田里·상송리上松里·신촌新村·고색리古索里 등이다.

매곡면 梅谷面 서쪽으로 20리 거리이다. 모두 15개 동이다. 화봉리 花峯里·신촌 新村·조산리 造山里·금곡 金谷·노리촌리 老里村里·자목리 自木里·대촌동 大村洞·가산리 加山里·천천리 泉川里·원평리 原坪里·송촌리 松村里·교기리 橋機里·화촌리 花村里·송촌 松村·지곡 芝谷 등이다.

태촌면 台村面 동남쪽으로 20리 거리이다. 모두 17개 동이다. 진언리 眞言里·장승점 長牲店·구봉리 龜峯里·송고리 松古里·신대리 新岱里·개라동 箇羅洞·독재동 秃在洞·내동 內洞·능동 陵洞·운정리 雲井里·기산리 機山里·마성촌 馬城村·상소촌 上昭村·작교 鵲橋·하소촌 下昭村·망포동 望浦洞·당의암 塘儀巖 등이다.

송동면 松洞面 서쪽으로 30리 거리이다. 모두 7개 동이다. 본래 광주부에 속했다가 정종 기유 正宗13, 1789년에 내속 來屬되었다. 빈정포 濱汀浦·중촌 中村·야목리 野牧里·현천 玄川·병실 丙室·송라동 松蘿洞·만평리 晩坪里 등이다.

삼봉면 三峯面 서쪽으로 30리 거리이다. 모두 12개 동이다. 옛날 모지면 茅旨面이 이제 여기에 합해졌다. 수기촌 水機村·방축리 防築里·분천리 汾川里·신천 新川·상동 上洞·동화촌 同化村·신촌 新村·현천 玄川·신수리 新守里·내동 內洞·여래동 如來洞·수영리 水營里 등이다.

문시면 文市面 남쪽으로 30리 거리이다. 모두 8개 동이다. 옛 시봉 市峯·삼미 三美 두 면이 이제 여기에 합해졌다. 명학동 鳴鶴洞·죽담점 竹潭店·묵암동 墨岩洞·신촌 新村·웅동 瓮洞·평촌 坪村·세교 細橋·관음동 觀音洞 등이다.

남곡면 南谷面 남쪽으로 30리 거리이다. 모두 19개 동이다. 옛날 정송면 貞松面이 이제 여기에 합해졌다. 정송은 옛 송산부곡 松山部曲이다. 귀래동 歸來洞·단구 丹邱·사근촌 沙斤村·발산리 鉢山里·신촌 新村·한적동 閑寂洞·봉황동 鳳凰洞·와곡 瓦谷·당두 唐頭·문학동 文學洞·오곡 梧谷·신기촌 新基村·갈천 葛川·만은동 晩隱洞·괘랑리 掛浪里·모산리 牟山里·보통내 南通川·판전 板田·오일리 五逸里 등이다.

갈담면 葛潭面 서쪽으로 30리 거리이다. 모두 9개 동이다. 왕림촌 旺林村·세동 細洞·당하촌 棠下村·유대리 柳岱里·덕구리 德邱里·마하리 麻澁里·이덕리 麗德里·지도리 至道里·봉양촌 鳳陽村 등이다.

산성면 山城面 남쪽으로 30리 거리이다. 모두 5개 동이다. 서리 西里·남리 南里·지곶리 紙串里·신촌리 新村里·양산리 陽山里 등이다.

어탄면 漁灘面 남쪽으로 30리 거리이다. 모두 10개 동이다. 장지촌 長芝村·기곡 基谷·산척동 山尺洞·이곡 梨谷 배마루·송촌 松村 소라리·평촌 平村·신암리 新庵里, 새암리·방교 防橋·암산 巖山·금곡 金谷 등이다.

동북면 東北面 동쪽으로 40리 거리이다. 모두 22개 동이다. 오산리 烏山里·목족동 睦族洞·농촌리 農村里·만의동 萬儀洞·직동리 直洞里·초목동 草木洞·내곡리 內谷里·중촌리 中村里·괴목정 槐木亭·지사정 池沙亭·청계동 淸溪洞·영평야 永平野·선납현 先納峴 선납재·골마동 骨馬洞·골마골·화악리 火藥里·소량리 少郎里·반송리 盤松里·궁평 宮坪·내촌 內村·진구리 陳舊里·송내촌 松內村·묵실리 墨室里

등이다.

청호면淸湖面 남쪽으로 40리 거리이다. 모두 7개 동이다. 갈곶리葛串里·기문동奇門洞·당리棠里·원통리元通里·부산동釜山洞·수덕동修德洞·천변동川邊洞 등이다.

초평면楚坪面 남쪽으로 40리 거리이다. 모두 14개 동이다. 수철리水鐵里·누읍동樓邑洞·타종리他宗里·마유동馬遊洞·신촌新村·모전촌牟田村·용난리龍蘭里·서촌西村·여대리余垞里·내창동內昌洞·어은굴리漁隱窟里·대화촌大花村·궁기리宮基里·어인포漁仁浦 등이다.

정림면正林面 남쪽으로 50리 거리이다. 모두 11개 동이다. 덕촌德村·비정리備井里·물면리物面里·내촌內村·사근동沙斤洞·고지동高芝洞·용수동龍水洞·검복리劍伏里·망우리忘憂里·신기新基·제지촌題只村 등이다.

상홀면床笏面 남쪽으로 50리 거리이다. 모두 6개 동이다. 옛날에는 정홀면이라 일컬었다. 옛 부곡部曲이다. 동지동東枝洞·창동倉洞·질수동埵水洞·갈전葛田·서천리黽川里·송산리松山里 등이다.

남면南面 남쪽으로 50리 거리이다. 모두 12개 동이다. 요동리料洞里·백토동白土洞·두모동斗某洞·상두리上斗里·내동리內洞里·화리현禾里峴·하두리下斗里·서송리西松里·증거리曾巨里·갈천동葛川洞·오실리鳴室里·삼미성三美城 등이다.

양간면楊澗面 남쪽으로 60리 거리이다. 모두 11개 동이다. 옛날에는 양간楊干이라고 일컬었다. 본래 인천仁川에 속하였던 것⁴⁾을 태종 무술태종 18, 1418에 내속하였다. 사양리思養里·포곡浦谷·석천石川·만어언리晩於堰里·만촌晩村·요당리蓼塘里·용소리龍巢里·기동基洞·가오실리加五實里·신왕동新往洞·독조리獨調里 등이다.

종덕면宗德面 남쪽으로 60리 거리이다. 모두 9개 동이다. 본래는 양성陽城에 속하였다가 태종 정유태종 17, 1417년에 내속來屬되었다. 가내리加內里·동청리東淸里·개야산開野山·구력리九力里·도곡리島谷里·지곶리知串里·두응리頭應里·당본리堂本里·막금리莫今里 등이다.

토진면土津面 남쪽으로 70리 거리이다. 모두 10개 동이다. 천계리泉溪里·후평後坪·신당新塘·월곡月谷·판교장板橋場·건의촌乾儀村·상토진上土津·하토진下土津·고좌의高座宜·한현漢峴, 큰재 등이다.

수북면水北面 남쪽으로 70리 거리이다. 모두 10개 동이다. 도렴리道簾里·육백리六栢里·평촌리坪村里·상가내上加內·하가내下加內·벽동壁洞·암증리巖曾里·항동項洞·어연리漁澗里·한산리閑山里 등이다.

오타면五朶面 남쪽으로 70리 거리이다. 모두 9개 동이다. 옛 금물촌면今物村面은 지금 이곳에 합해졌다. 울성리鬱城里·신리新里·동고리東古里·방축리防築里·정자리亭子里·효학리孝學里·건곤리乾坤里·오영리五營里·흑동리黑洞里 등이다.

4) 인천의 월경지(越境地)를 뜻함.

청룡면 靑龍面 남쪽으로 70리 거리이다. 모두 12개 동이다. 창촌 倉村 · 덕우리 德佑里 · 수촌 水村 · 신릉리 新陵里 · 옥길리 玉吉里 · 개사리 開沙里 · 동산리 東山里 · 조동 柵洞 · 강길리 康吉里 · 죽동 竹洞 · 후사동 後寺洞 · 벌대리 液臺里 등이다.

숙성면 宿城面 남쪽으로 80리 거리이다. 모두 7개 동이다. 동언리 洞眼里 · 어호동 於湖洞 · 좌구리 座龜里 · 양교동 梁橋洞 · 구평 龜坪 · 죽동 竹洞 · 조두리 潮頭里 등이다.

오정면 梧井面 남쪽으로 80리 거리이다. 모두 14개 동이다. 길산동 吉山洞 · 양성촌 陽城村 · 상룡촌 上龍村 · 삼정리 三井里 · 황금리 黃金里 · 울리 栗里 · 학현리 鶴峴里 · 임촌 林村 · 울산동 栗山洞 · 소반동 小盤洞 · 탑리 塔里 · 미촌 美村 · 누촌 樓村 · 안중촌 安仲村 등이다.

포내면 浦內面 남쪽으로 80리 거리이다. 모두 7개 동이다. 옛날에는 포내미 浦內美라고 일컬었다. 옛 부곡 部曲이었다. 당두리 棠頭里 · 곡교리 曲橋里 · 거산리 巨山里 · 무수리 舞袖里 · 감탕리 甘湯里 · 운정동 雲井洞 · 둔내리 屯內里 등이다.

현암면 玄巖面 남쪽으로 80리 거리이다. 모두 5개 동이다. 문곡리 文谷里 · 화양동 華陽洞 · 도대리 道岱里 · 당상리 堂上里 · 천곡리 泉谷里 등이다.

광덕면 廣德面 남쪽으로 90리 거리이다. 모두 8개 동이다. 예전에 두 고을을 고려 현종 91018년에 내속 來屬 되었다(견치연혁을 살펴보면, 옛말에 쌍부(雙阜)와 용성(龍城) 두 고을이 고려 현종 9년에 본부(本部)에 붙여졌다고 한다. 이제 이 두 고을이 쌍부와 용성 같기도 하다. 살펴 증명해 보건대 쌍부는 우정면(兩井面)에 있고, 용성은 청룡면(靑龍面)에 있으니, 혹 광덕면이 옛 두 면의 경계에 위치했던 것이 아닌가 하면서 뒷날의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신암동 新巖洞 · 대외동 大外洞 · 구둔동 鳩屯洞 · 소외동 小外洞 · 덕목리 德木里 · 죽현리 竹峴里 · 냉정리 冷井里 · 신성리 新成里 등이다.

가사면 佳上面 남쪽으로 100리 거리이다. 모두 12개 동이다. 두마리 頭麻里 · 안중리 安中里 · 계두리 鷄頭里 · 권관리 權官里 · 맥산리 麥山里 · 기곡리 基谷里 · 수산동 水山洞 · 삼도 三島 · 신둔촌 新屯村 · 동성포 洞城浦 · 밀두리 密頭里 · 맥언리 麥眼里 등이다.

공향면 公嚮面 남쪽으로 60리 거리이다. 모두 16개 동이다. 옛날에는 공이향 公以嚮이라고 일컬어졌으며, 옛 서북면은 이제 여기에 합해졌다. 창촌 倉村 · 매산리 梅山里 · 화당촌 花堂村 · 공장촌 工場村 · 각곡리 角谷里 · 덕구리 德九里 · 고죽동 孤竹洞 · 갈곡리 葛谷里 · 고주동 古州洞 · 한절리 寒節里 · 방축리 防築里 · 중촌리 仲村里 · 도리동 桃李洞 · 한천동 寒泉洞 · 복촌리 福村里 · 정촌 亭村 등이다.

팔탄면 八灘面 남쪽으로 50리 거리이다. 모두 9개 동이다. 옛 모전면 茅田面은 지금 여기에 합해졌다. 언창리 彦倉里 · 전대리 箭帶里 · 사천리 沙川里 · 서촌 西村 · 동촌 東村 · 장지촌 長芝村 · 동막 東幕 · 노상리 路上里 · 진월리 眞月里 등이다.

장안면 長安面 남쪽으로 60리 거리이다. 모두 16개 동이다. 옛 마정면 馬井面은 이제 여기에 합해졌다. 장내리 長內里 · 독정리 獨亭里 · 신촌리 新村里 · 원당리 院塘里 · 감촌리 甘村里 · 거목동 巨墨洞 · 화전리 花田里 · 가장촌 可裝村 · 방축동 防築洞 · 이물촌 利物村 · 석포리 石浦里 · 양촌리 楊村里 · 대유정리 大有井里 ·

아강동(兒強洞)·장작원(長作院)·거산리(巨山里) 등이다.

우정면(雨井面) 서쪽으로 80리 거리이다. 모두 24개 동이다. 옛 화방(禾方)과 팔라곶(八羅串) 두 면은 이제 여기에 합해졌다. 거물리(巨物里)·원종리(元宗里)·원안리(元案里)·안두리(安斗里)·굴원리(屈原里)·호곡리(虎谷里)·봉화곡(烽火谷)·계양리(啓陽里)·만진리(晩津里)·소곶리(少串里)·파소리(播所里)·배행리(陪行里)·여소곡(如蘇谷)·한정리(寒井里)·달무리(達武里)·평전리(平田里)·운정리(雲井里)·고잔리(古殘里)·내운정리(內雲井里)·한각리(閑角里)·방축리(防築里)·반곡리(盤谷里)·떡동(覓洞)·창동(倉洞) 등이다.

초장면(草長面) 남쪽으로 70리 거리이다. 모두 9개 동이다. 노정리(魯亭里)·진목리(眞木里)·흥천리(興天里)·신언리(新堰里)·구천리(舊川里)·덕다곶리(德多串里)·독지동(獨芝洞)·어은동(魚隱洞)·사랑리(沙浪里) 등이다.

압정면(鴨井面) 남쪽으로 80리 거리이다. 모두 20개 동⁵⁾이다. 만곶리(晩串里)·중강리(中岡里)·당곡리(唐谷里)·맹곶리(孟串里)·주곡리(舟谷里)·덕목리(德睦里)·가내동(加乃洞)·고온포(古溫浦)·야미리(夜味里)·시여촌(柴如村)·장포리(壯浦里)·일원리(一院里)·고기리(古機里)·습촌(習村)·한촌(閑村)·조암리(朝巖里)·농촌(農村)·서재동(西齋洞)·마산동(馬山洞) 등이다.

호구(戶口)

원호(元戶) 대략 1만 2,579호이다. 성(城) 안이 대략 956호이고, 성 밖이 대략 1만 1,623호이니, 무술광무 2, 1898년 장적(帳籍)에 등재된 것이다.

인구(人口) 대략 4만 9,708명으로 남자가 2만 7,632명이고, 여자가 2만 2,076명이니 무술광무 2, 1898년의 총계이다.

호전(戶錢) 실총(實總) 1만 936호인데, 매호당 3냥씩 합전 3만 2,808냥이 된다.

결총(結總) : 결부의 총수

원장(元帳)부 전답 결수 1만 1,821결(結) 61부(部) 3속(束)이다. 여러 가지의 잡탈결(雜糧結)은 5,294결 63부 5속이다(억울하게 징수된 결수는 을미(1895)년에 다시 조사되었다).

실제로 올린 결수(實隄結)⁶⁾ 6,526결 97부 8속이다. 새로 올린 총결수는 284결 72부 7속이다. 이를 합한

5) 20개동이라 하였으나 19개동만 기록되어 있다.

6) 원장부 전답결에서 여러 가지 잡탈결을 제한 결수.

결수는 6,811결 70부 5속이다. 병신1896년에 추탈^{追贖}된 오타면^{五朶面}의 9결 9속과 청호역^{淸湖驛}의 결수 7결 75부 6속과 읍^邑의 결수 부족분 70결과 새로 올린 결수에서 형지^{形址} 없는 결수의 31결 28부 9속을 제외하면 실결^{實結}은 6,693결 65부 1속이고, 개간을 권한 결수가 21결 3부이니, 모두 합한 결수^{都合結}는 6,714결 68부 1속이다. 매결당 세금이 25냥이니, 세금 합계는 16만 7,867냥^兩 2푼^分 5리^里이다.

성곽城郭

네 성문의 수문장은 각기 1명이다(남·북문에는 별호사^{別驍士}가 번갈아 수직하고, 동·서문은 수첩군관^{守楫軍官}·기패관^{旗牌官}·별무사^{別武士}가 번갈아 수직한다). 군사는 13명이다(남문과 북문은 각기 4명, 동문과 서문은 각기 2명, 남암문^{南暗門}은 1명이다). 을미1895년에 폐지한 후에는 순검^{巡檢} 1인씩 번갈아 순시^{巡察}한다.

원성元城의 주위 둘레 4,600보^步이다. 주척^{周尺}을 쓸 때는 6척으로 1보^步를 삼고 영조척^{營造尺}으로는 3척 8촌이 1보이다. 이리로 따지면 12리 280보이며 문^門·초^礎·치^雉·포^舖·대^臺·돈^墩 등이 점유한 땅 634보 4척을 제하면 실지가 3,964보 2척이다. 동쪽과 서쪽의 산이 2,944보 4척이요, 남쪽과 북쪽의 평지가 1,019보 4척이다. 정종 갑인^{甲寅} 18, 1794년에 쌓기 시작하여 정종 병진^{丙辰} 20, 1796년에 성역을 끝마쳤다. 성의 높이는 두 길^丈을 표준으로 하되 산 위에는 5분의 1을 감하였으며, 모두 돌로 쌓았다.

여장女牆, 성가퀴 1,440첩^堞 1파^把이다. 영조척으로 5척을 1파라 하고 4파를 1첩이라 한다. 원성元城의 여장이 1,150첩, 용도여장^{甬道女牆}이 68첩, 각기 문과 벽성^{壁城}의 안팎여장이 122첩 2파, 포^舖·치^雉·대^臺·돈^墩의 여장이 99첩 3파이다. 높이는 5척, 넓이는 20척을 표준으로 하고 체성^{體城} 위에는 미석^{眉石}으로 받치되 미석을 성 밖으로 3촌을 돌출시켰다. 그 위로 포^舖·담^堦·대^臺 등을 놓는데 거둬 담들을 붙이되 높이는 표준으로 그쳤다. 타^堞 여장의 아구리는 높이를 가슴에 닿도록 하고, 넓이는 5촌으로 그 안과 밖, 양 옆을 깎았으며, 담장면 좌우에 원총안^{遠銃眼}⁷⁾ 하나를(사방 8촌) 뚫었다. 가운데는 근총안^{近銃眼}(사방 1척)⁸⁾ 하나를 뚫어 미석^{眉石}의 바깥 끝까지 통하고, 뒷개는 네모난 벽돌로 쌓고 진흙회를 발랐다.

북동치北東雉 장안문 동쪽 적대^{敵臺} 동편에 있는데 적대와 서로 연하였다.

서일치西一雉 화서문의 남쪽에 있다.

7) 멀리 쏘는 총구멍.
8) 가까이 쏘는 총구멍.

서이치 西二雉 서포루 西砲樓의 남쪽에 있다.

서삼치 西三雉 서포루 西舖樓의 남쪽에 있다.

남치 南雉 남포루 南舖樓의 동편에 있다.

동삼치 東三雉 동편 제이포루 第二舖樓의 남쪽에 있다.

동이치 東二雉 동포루 東砲樓의 남쪽에 있다.

동일치 東一雉 동편 제일포루 第一舖樓의 남쪽에 있다.

장안문 長安門 ○ 성의 북문으로 갑인정조 18, 1794년에 세웠다. 문은 안과 밖으로 홍예 虹蜺를 틀었고, 내면의 좌우에 무사 武砂(성돌의 몸이 크고 단단한 것으로 문의 결들을 일컫는다)석을 놓았다. 좌우에는 장대석 長臺石을 놓아 섬돌 각 23층을 쌓았으며, 외면 좌우에도 무사석을 썼다. 내외 홍예 사이에도 좌우 모두 무사를 썼다. 두 문짝은 첩판으로 싸고 빗장을 갖추었다. 홍예를 덮은 널판쪽 밑에는 운기 雲氣⁹⁾를 그리고, 널판 위에는 고루 삼물 三物을 쌓았다. 안과 밖의 홍예 위에는 장구형의 무사를 씌웠으며, 2층 장대에는 누조 漏槽 4개를 마련하였다. 내면은 평여장 平女牆, 외면은 여장을 마련했고, 넓이가 동서 여장의 밖까지 나가게 하고 점점 높이 하여 볼게 하였다. 웅성 甕城 위의 작은 홍예에는 타구 壕口를 벌려 배치하되 10첩 곧 11곳을 하고 방안 方眼의 총구멍 12곳을 열었다(매 첩마다 1혈(穴)로 하고 가운데 1첩은 2혈로 했다). 동서 여장의 가운데는 각기 자그마한 널문을 마련하고 담 안으로 누樓 2층을 세우니 상하가 각각 10칸이다. 하층은(안으로 7포, 밖으로 5포이다) 정간 正間에 널판을 깔아 바닥을 삼았다. 좌우 협문 夾門이 각기 둘이다. 서협문의 제1칸과 동협문의 제2칸에는 각기 곡란 曲欄 사다리를 설치하여 상층과 통하도록 했으니, 서편은 북으로부터 올라가고, 동편은 남으로부터 올라간다.(서쪽 사다리 아래 전문 箭門)을 마련하여 잠귀 두었다가 일이 있을 때에 열었다. 상층은(안과 밖이 모두 7포로 함) 널판을 깔았으며, 4면으로 널문 板門을 마련하고 3면은 모두 짐승의 얼굴을 그려 새겼다. 호로 葫蘆 전안 箭眼¹⁰⁾을 각기 한 곳씩을 뚫었으며, 안쪽에는 태극을 그리고 아울러 단청을 칠하였다. 수문청 守門廳은 문 안으로 서편에 있다.

○ 정조께서 정종 정사정조 21, 1797년 거둥하실 적에 총리대신(蔡濟恭을 말함)의 '장안문루 長安門樓'의 시운 詩韻에 화답하는 시詩를 지으셨다. 그 글에,

고향에 서리 이슬은 몇 해나 내리었던고
한 치 마음이 높은 은혜 보답할 곳이 없네.
경영한 건 우뚝해라 성 담장이 장엄하고
겹겹으로 웅위해라 천연의 절벽 높았네.

9) 공중으로 떠오르는 기운.

10) 조롱박 같이 생긴 활쏘는 구멍.

일만의 민호는 호우의 길을 가로로 임했고
삼군의 기운은 진남문鎭南門에 용솟음치누나.
이 땅의 인화를 어찌 내 힘으로 이뤘으랴
온천 행행 그때의 성덕이 아직도 전해진다오.

고 하였다.

북용성北獮城 장안문의 외성外城으로, 모양이 독을 반으로 갈라놓은 것 같다. 둘레가 55보이며 갑인정조 18, 1794년에 쌓았다.

북성적대北城敵臺 2개가 있는데 장안문 양편에 있다. 을묘정조 19, 1795년에 쌓았다. ○ 대臺의 높이가 원성元城의 여첩과 가지런하여 반은 성 밖으로 나가고 반은 성 안으로 들어오며, 아래는 넓고 위는 오무러들었다. 외면으로 현안懸眼: 둘러 구멍이 3개가 있으며, 외면과 좌우는 '철쇠' 자 형으로 뾰족하게 두르고 여장 11첩은 각기 총구멍을 뚫었다. 내면 좌우의 평평한 여장에는 첩마다 그 속을 비워 돌층계를 마련하여 대상臺上으로 통하도록 하였다.

팔달문八達門 성의 남문으로 갑인정조 18, 1794년에 쌓았다. 성문의 제도는 장안문과 같으며 수문청守門廳 또한 문 안으로 서쪽 변에 있다. 정조께서 정사정조 21, 1797년에 거둥하실 때 좌구左揆: 좌의정의 별칭의 '팔달문루八達門樓'의 시운을 따라 시詩를 지으시니,

화성은 삼도 중 제일로 치거니와
팔달문엔 힘써 만방을 불러들이네.
잠시 경륜의 솜씨를 시험했다가
이내 변방의 장재를 구해 쓰노라.
누각은 하늘을 의지하여 멀고
성벽은 해문海門을 안고 돌아드네.
직무 처리엔 절로 천심이 있기에
관청 동이에 술 꾀는 소릴 듣는다오.
또,
개임을 탄 피리와 북소리 구름사다리 오르니
남과 북의 모든 산이 난간 아래 나직하구나.
높은 곳에서 비로소 천리안千里眼: 멀리 바라보는 눈을 다하니
가을 연기 많이 오르는데 푸르게 가지런한 곳이 어디냐고 묻네.

라고 하였다.

남양성 南襄城 팔달문의 외성 外城으로 둘레가 55보이며 을묘정조 19, 1795년에 쌓았다.

남성적대 南城敵臺 2개 있다. 팔달문 좌우에 있으니 을묘정조 19, 1795년에 쌓았다. 제도는 북적대와 같으나 다만 밖으로 달린 현안 懸眼 두 곳을 마련하였다.

창룡문 蒼龍門 성의 동문으로 을묘정조 19, 1795년에 세웠다. 홍예 虹霓·무사 武砂·장대 長臺와 두 짝문을 첩판으로 쓴 것, 빗장과 개판 蓋板 위에 삼물 三物을 쌓은 것, 좌우로 작은 널판문을 마련한 것이 모두 장안문과 같으면서도 약간 낮으며 또한 좁다. 안과 밖의 홍예 위에 장구 모습의 무사 武砂가 없으며, 좌우의 돌층계가 각기 14층이고, 누조 漏槽가 각기 둘이다. 내면에는 평여장 平女牆, 외면 外面에는 여장 女牆을 마련하였다. 타구 壕口 6개에(첩은 곧 5개) 방안 方眼的 총구멍 6개(가운데 1첩만은 두 구멍)를 뚫었다. 담 안으로 누樓 6칸(안과 밖이 3포에 2리공 翼工)을 세웠으며, 정칸 正間에는 널판을 깔아 바닥을 삼았다. 아울러 단청을 칠하였다. 수문청은 문안으로 북쪽에 마련되었다.

동양성 東襄城 창룡문의 외성으로 둘레가 24보이며 병진정조 20, 1796년에 쌓았다.

화서문 華西門 성의 서문으로 을묘정조 19, 1795년에 세웠다. 성문의 제도는 창룡문과 같으나 다만 좌우의 돌층계를 굽게 구부려 층계를 만들었다. 수문청을 문안 남쪽에 마련하였다.

서양성 西襄城 화서문의 외성으로 둘레가 29보이며 병진정조 20, 1796년에 쌓았다.

남암문 南暗門 성의 사잇문으로 팔달문 동편에 있으며, 남쪽으로 향하였다. 을묘정조 19, 1795년에 세웠다.

동암문 東暗門 동장대 東將臺의 서편에 있으며, 동쪽에서 북쪽을 향하였다. 을묘정조 19, 1795년에 세웠다.

북암문 北暗門 동북각루 東北角樓의 동쪽 벽성 壁城 사이에 있다. 병진정조 20, 1796년에 세웠다.

서암문 西暗門 서장대 西將臺의 남쪽에 있으며 북쪽을 향하였다. 병진정조 20, 1796년에 세웠다.

서남암문 西南暗門 서암문 西暗門의 남쪽에 있다. 실지로 용도 甬道의 기점이다. 병진정조 20, 1796년에 세웠다.

화홍문 華虹門 동북각루의 서편에 있으니 바로 북쪽의 수문이다. 갑인정조 18, 1794년에 세웠다. ○ 7칸의 돌 홍예로 된 둘다리를 광고천이 흐르는 곳에 설치하였다. 7개 수문의 안팎 홍예 사이에는 각기 좌우로 돌기둥 4개를 세웠다. 그 홍예가 서로 접하는 곳은 잠자리 보사 步砂를 붙였으며, 가운데는 장구형의 무사 武砂를 더하고 인하여 다리돌을 깔았다. 다리 위의 내외면 內外面에는 장대를 마련하고 위에 누조 漏槽 7개를 설치하였으며, 그 위에 벽돌을 쌓아 첩堞을 만들고 타구 壕口는 설치하지 않았다. 아래로는 방안 方眼的 대포구멍 8곳을 뚫어 놓고 아래는 작은 포 砲구멍 14곳을 뚫었다. 안쪽에는 다만 장대를 남기고 물 빠지는 구멍 6곳을 뚫고 동서 양단에는 돌기둥을 세웠으며, 서편 기둥의 북쪽과 동편 기둥의 동쪽은 모두 짧은 담을 쌓고 전판문 箭板門을 내어 동성 東城의 길과 통하도록 하였다. 다리 위에는 북쪽으로 가깝게 누樓 6칸을 세우고 모두 널판을 깔되 높이가 첩의 위로 나오게 했다. 4면으로 분합을 달았으며 동서남쪽의 3면에는 연외 난간을 붙이고 난간 아래에 벽돌을 둘러 담을 쌓았다. 그 남쪽은 비웠다. 가운데 칸 북쪽 면의 분합문

바깥의 퇴에는 널빤지 위에 전봉戰柵을 설치하였고 판문 아래에는 벽돌로 된 첩과 이어지게 하였다. 바깥쪽에 짐승의 얼굴을 그리고 전총안箭銃眼을 뚫었다. 다리 아래 7개의 홍예에는 각기 쇠살문을 마련하여 줄로 양쪽 선문扉門을 걸어 당겨서 교면橋面의 석안石眼까지 꿰뚫고 지나가게 하였으며, 거기에서 고리를 달고 자물쇠를 달았다. 문 안팎의 안岸 기슭은 모두 돌로 쌓았는데 위는 성의 몸체와 이어졌다. 또 3타의 여장을 좌우의 벽돌로 쌓은 위에 설치하였다.

남수문南水門 남암문의 동쪽에 있으니 병진정조 20, 1796년에 쌓았다. ○ 9칸의 돌홍예에 쇠살창과 자물쇠를 마련한 것은 화홍문의 제도와 같다. 그러나 9개의 홍예 좌우에 각기 간주석間柱石 8개를 세우고 돌다리 내외면에 각기 장대를 부설하였다. 안으로 물구멍 5곳을 내고 밖으로는 벽돌을 붙였다. 인하여 긴 포사鋪舍를 만들되 나무와 돌을 쓰지 않고 다만 벽돌을 쌓아 그 정수리를 고르고 네 벽을 쌓았다. 그 속을 비우고 포鋪의 길이는 다리와 똑같이, 넓이는 다리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위에는 개판蓋板이 있고 외면에는 3층으로 총구멍 57곳을 뚫었고, 내면에는 홍예의 작은 문 3곳을 벌리며 포鋪의 위는 벽돌을 깔아 길을 만들었다. 그 외면에는 크고 둥근 벽돌로 여장女牆 9첩을 마련하여 9개 홍예의 머리에 앉히고 총구멍 3곳을 뚫었으며, 사이에는 네모난 여장女牆 8첩을 두었다. 또한 총구멍 하나씩을 뚫고 동서 양끝에는 또 평여장平女牆을 만들어 원성에 연접하며, 또 구부러져 안으로 향하게 하여 홍예의 작은 문을 만들었다.

서장대西將臺 성의 서쪽 팔달산八達山 정상에 있으며 갑인정조 18, 1794년에 세웠다. 임금정조의 친필로 ‘화성장대華城將臺’라고 편액하였다. 거동할 때에는 성조城操: 수성 훈련을 여기에 행하기도 하였다(동장대東將臺도 마찬가지이다). ○ 석대石臺를 전면에 쌓으니 대석臺石이 4층에 삼계사급三階四級¹¹⁾이다. 대 아래 좌우로 붉은 깃대큰 깃대 한 쌍을 세웠다. 대 위에 층각層閣을 세우니 하층각이 9칸으로 가운데 1칸에 널판을 깔아 마루로 하고 연잎 평난平欄을 둘렀다. 후면에는 분합分閣을 만들었으며 사면으로 각기 1개씩 인장引長하며 4각角에 1가架씩 붙였다. 아울러 방전方輦: 모난 벽돌을 깔았으며 바깥기둥으로 둥근 기둥 12개를 8면 돌기둥으로 받쳤다. 상층의 한 칸은 사면으로 교창窓窓: 여닫이 창문을 마련하였다. 또한 널판을 깔아 마루로 삼았는데 그대로 하층의 반자가 되었다. 그 서북西北 모서리에 사다리를 만들어 상층으로 통하도록 하였다. 옥상 중앙에 삼절병통三節瓶桶 세마디의 병통을 세우고 아울러 단청을 칠하였다. 뒤쪽에 8면의 노대弩臺를 쌓았다(바로 서노대西弩臺이다. 아래를 볼 것). 그 북쪽에 후당後堂 3칸을 세우니, 서쪽 2칸은 온돌이고 동쪽 1칸은 마루이다. 아울러 창문을 달고 단청을 칠했으며 앞 기둥은 평난平欄을 마련하고 뒷담 동쪽 끝에는 널판문을 달았다. 정종 을묘정조 19, 1795년에 거동할 때에 화성장대에서 친히 성조城操를 사열한 다음 시제詩題를 문도리 위에 걸어두게 하였다.

11) 계단들이 셋으로 4걸음에 오른다는 의미.

나라를 지켜 보호함이 중한 것이라
 경영에는 노력을 허비하지 않는다오.
 성은 평지로부터 아득히 멀고
 대는 먼 하늘 의지해 높기도 하여라.
 만개의 성첩 규모가 장대하고
 3군은 의기가 대단히 호쾌하도다.
 대풍가大風歌 한 곡조를 연주하고 나니
 붉은 아침 햇살이 인포鱗袍에 비추이누나.

동장대東將臺 성의 동북쪽에 있으며, 동남쪽을 향하고 있다. 을묘정조 19, 1795년에 세웠다. ○ 대臺 3층을 축조하니 하대下臺의 전면은 잡석으로 쌓고 인하여 낮은 담을 쌓아 중대中臺에 와서 약간 물러 나게 하고, 또 한층을 만들어 중심 좌우에 외장대臥長臺를 만들고 흙으로 메워 고르게 하여 하대下臺로부터 바로 올라가 말을 타고 달려도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중대 좌우에 크고 붉은 깃대한 쌓을 세우고 중대로부터 올라가면 3칸의 보석步石이 있는데, 각기 6급級이다. 정간 좌우에 외장대를 붙이고 협간 좌우에는 구름을 새긴 대우석大隅石을 붙였다. 상대上臺에는 20칸의 큰 집을 세우니(3포(包)와 팔작식(八雀式)이다) 기둥의 안팎과 4면의 처마, 계단 모두 네모난 벽돌을 깔고 좌우로 분합을 달아 뒷 기둥 한가운데 3층의 평난平欄을 설치하여 높다랗게 온돌 1칸을 마련하였다. 그 좌우편에 있는 1칸은 낮게 1층 마루를 깔았으며, 각기 2층의 평난을 마련하였다. 또 그 좌우에 있는 1칸은 한층 낮게 마루를 깔아 창과 분합으로 두르고 아울러 단청을 칠하였다. 북쪽 처마끝 위에는 한층의 벽돌로 대臺를 만드니 이것이 사대射臺¹²⁾이다. 후면의 성체城體가 활을 당긴 것과 같았으며, 그 내탁內托에 문석대紋石臺를 쌓고 대 위에는 또 영롱장玲瓏牆을 쌓았다. 중간에는 보석步石 4층과 담 안에는 자그마한 단臺이 있다. 좌우의 층장層牆이 문석대 위로부터 일어나 뒤로 여장女牆과 연결하여 영롱장을 지나 아래로 상대上臺의 오른쪽과 중대中臺의 왼편에 각기 하나의 작은 문을 세웠으며, 하대下臺의 좌우 행각行閣에서 그친다. 좌우의 행각이 4칸인데 모두 헛간이고, 오른쪽 1칸은 청廳: 마루이다. 그 아래 3칸은 높이 삼문三門을 설치하니 전면의 짧은 담은 좌우의 문과 연결하였다. 행랑과 담 밖에 넓은 조련장을 만들고 대臺의 오른쪽 작은 문 밖에 또 5칸의 행랑을 세워 장졸들로 하여금 숙직하도록 하였다.

정조 정사정조 21, 1797년 거동 때에 어제御製로 좌규左揆: 수행하는 신료들의 ‘동장대에서 중추中秋의 달구경하다’는 시운詩韻에,

12) 활쓰는 대(臺).

화려한 망루와 성벽이 의기를 과시하여라
 여기에 항상 오색 구름 펼쳐진 걸 보노라.
 높은 누각은 우뚝 솟아 가을빛과 겨루고
 오만 물상은 다 밝아서 달빛에 떠오르네.
 경치는 유독 오늘 밤을 인해서 좋거니와
 산천은 원래 4시의 아름다움이 있다오.
 프락의 소나무는 더디 크는 게 무방하여라
 상국相國의 집에 맑은 달 바퀴 길이 매어놓으리.

라고 화답하였다.

- 동북노대東北弩臺 창룡문 북쪽에 있다. 병진정조 20, 1796년에 쌓았다.
 서북공심돈西北空心墩 화서문의 북치北雉 위에 있다. 병진정조 20, 1796년에 세웠다.
 남공심돈南空心墩 남암문의 동쪽 치雉 위에 있다. 을묘정조 19, 1795년에 세웠다.
 동북공심돈東北空心墩 동북노대 서쪽 성탁城托 위, 여첩如堞 안에 있다. 병진정조 20, 1796년에 세웠다.
 봉돈烽墩 동편 제2포루舖樓와 동이치東二雉 사이에 있다. 병진정조 20, 1796년에 쌓았으나 이제는 폐지하였다.
 동북각루東北角樓 화홍문의 동쪽에 있으니, 언덕을 따라 성을 쌓고 바위를 근거삼아 다락집을 지은 것이다. 갑인정조 18, 1794년 세웠고,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이라고 편액扁額하였다.
 서북각루西北角樓 화서문의 남쪽에 있다. 병진정조 20, 1796년에 세웠다.
 서남각루西南角樓 용도의 남쪽 끝에 있다. 병진정조 20, 1796년에 세웠다.
 동남각루東南角樓 남수문의 동쪽에 있다. 병진정조 20, 1796년에 세웠다.
 북동포루北東砲樓 화홍문의 서편에 있다. 갑인정조 18, 1794년에 세웠다.
 북서포루北西砲樓 장안문 서적대西敵臺의 서쪽에 있다. 병진정조 20, 1796년에 세웠다.
 남포루南砲樓 서남암문의 동쪽에 있다. 병진정조 20, 1796년에 세웠다.
 동포루東砲樓 봉돈의 북쪽에 있다. 병진정조 20, 1796년에 세웠다.
 동북포루東北舖樓 동북각루의 동쪽에 있다. 병진정조 20, 1796년에 세웠다.
 서포루西砲樓 서암문의 남쪽에 있다. 병진정조 20, 1796년에 세웠다.
 북포루北舖樓 북서포루北西砲樓의 서쪽에 있다. 을묘정조 19, 1795년에 세웠다.
 동제1포루東第一砲樓¹³⁾ 창룡문의 남쪽에 있다. 병진정조 20, 1796년에 세웠다.

13) 포루(舖樓)의 오기(誤記)이다.

동제2포루東第二鋪樓 봉돈의 남쪽에 있다. 병진정조 20, 1796년에 세웠다.

중포사中鋪舍 동북포루東北鋪樓의 아래에 있다. 병진정조 20, 1796년에 세웠다.

내포사內鋪舍 행궁行宮 뒷담 안 왼쪽 산기슭의 미로한정未老閑亭 북쪽에 있다. 병진정조 20, 1796년에 세웠다.

산천山川

화산花山 수원부의 남쪽으로 20리 거리 용복면龍伏面에 있다. 바로 건릉健陵과 현릉원顯隆園의 주산主山이다.

팔달산八達山 부의 서쪽, 곧 읍치邑治의 주산이다. ○ 고적古蹟이 있다(고적 조를 볼 것).

체점산體岾山 부의 남쪽으로 2리 거리 남부南部에 있다.

광교산光敎山 북쪽으로 10리 거리 북부北部에 있다. ○ 기우제新雨祭를 지내는 곳이 있다. ○ 고적이 있다(고적 조를 볼 것).

치악산雉岳山 부의 서쪽으로 20리 거리 매곡면梅谷面에 있으니 바로 화산花山の 주맥主脈이다. 옛 이름은 치악鷄岳인데, 정종 기유정조 13, 1789년에 개명을 명하였다.

홍범산洪範山 부의 남쪽으로 30리 거리 갈담면葛潭面에 있으니, 바로 능원소陵園所 화소火巢 안에 있다.

독성산秃城山 부의 남쪽으로 30리 거리 산성면山城面에 있다. 산성山城이 있다.

응봉산鷹峯山 부의 서남쪽으로 30리 거리 삼봉면三峯面에 있다.

건달산乾達山 부의 서쪽으로 35리 거리 갈담면葛潭面에 있다. ○ 기우제 지내는 곳과 봉수烽臺가 있었으나 이제 폐하여졌다. ○ 고적古蹟이 있다(고적 조를 볼 것).

서봉산棲鳳山 부의 남쪽으로 35리 거리 남곡면南谷面에 있으니, 역시 능원소의 화소火巢 안에 있다.

무봉산舞鳳山 부의 동쪽으로 40리 거리 동북면東北面에 있으니, 일명一名 만의산萬儀山이다.

쌍부산雙阜山 부의 서쪽으로 80리 거리 우정면雨井面에 있다. ○ 서남쪽 바다가 바라다 보인다.

총수산總水山 부의 남쪽으로 80리 거리 옛 용성현龍城縣의 남쪽에 있으니, 지금의 청룡면靑龍面이다.

형제산兄弟山 부의 남쪽으로 80리 거리 숙성면宿城面에 있다.

망월산望月山 부의 남쪽으로 80리 거리 압정면鴨汀面에 있다.

광덕산廣德山 부의 남쪽으로 100리 거리 광덕면廣德面에 있다. 망운대望雲臺가 있다.

흥천산興天山 부의 남쪽으로 100리 거리 압정면鴨汀面에 있다. ○ 봉수가 있었으나 이제는 폐하여졌다.

계두산鷄頭山 부의 남쪽으로 100리 거리 가사면佳士面에 있다. 고적이 있다(고적 조를 볼 것).

앵봉鶯峯 부의 서쪽으로 5리 거리에 있으니, 능원陵園 역사 때 석물石物의 돌을 여기서 떠냈다. 나라의 명령으로 본부에서 이감관里監官을 정하여 수호하며 사사로이 채취함을 금하였다. 정종 신해정조 15, 1791년에 표석을 세워 봉표封標하였다.

노류령 老留嶺 부의 서쪽으로 50리 거리 팔탄면 八灘面에 있다.

매향교천 梅香橋川 부내에 있으니 물의 근원이 광교산에서 나와 화홍문 돌다리로 흘러 들어와서 성을 횡단하고 남수문 돌다리로 나아간다.

상류천 上柳川 부의 남쪽 5리 거리 남부 南部에 있으니, 바로 매향교천의 하류이다.

진목천 眞木川 부의 북쪽으로 10리 거리 일용면 日用面에 있다.

후평천 後坪川 부의 서남쪽으로 15리 거리 용복면 龍伏面에 있다.

사근천 沙斤川 부의 북쪽으로 15리 거리 일용면에 있으니, 바로 광교산의 하류이다.

대황교천 大皇橋川 부의 남쪽으로 15리 거리 안녕면 安寧面에 있다.

오목천 鰲木川 부의 남쪽으로 20리 거리 안녕면에 있으니, 옛 이름은 오목 梧木으로 기유정조 13, 1789년에 이름을 고치도록 명하였다.

오매천 烏梅川 부의 남쪽으로 40리 거리 청호면 淸湖面에 있다.

산성山城

독성 禿城 부의 남쪽으로 30리 거리에 있으며, 옛부터 산성山城이 있었다. 선조 임진선조 25, 1592년에 왜구 倭寇가 침범했을 때, 도원수 권율 權慄이 이 성에 웅거하였다. 성 안에는 샘물이 적어 오래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적이 알아차리고 급히 공격해 왔다. 권장군은 군사를 시켜 적을 향해 말馬을 세우고 쌀을 날려 씻는 척하였다. 이때 적은 성 안에 물이 많은 줄 알고 포위한 것을 풀고 다른 곳으로 물러가니, 후인이 그곳을 가리켜 세마대 洗馬臺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바로 지금의 장대 將臺이다. 다음해 적이 물러가고 조정에서 성을 보수할 것을 의논할 적에 서애 西崖 유성룡 柳成龍과 서경 西峯 유근 柳根이 찬성하였으나 미처 착공하지는 못하였다. 정유선조 30, 1597년 정유재란 丁酉再亂 때 적이 이곳 지경에 육박하니 부종의 백성이 성으로 들어가 보호하였다. 오음 梧陰 윤두수 尹斗壽가 죽기 직전에 표表를 올려 독성을 수리할 것을 청하여 임인선조 35, 1602년에 임금께서 본부에 명하여 부사 변응성 邊應星이 성을 쌓고 해우 解宇 : 관청건물을 지었다. 경진영조 36, 1760년에 장헌세자 莊獻世子가 온양으로 거동할 적에 세남교 細藍橋의 물이 불어 넘쳐 순력 巡歷차 임어 臨御하셨다. 남문 南門樓에서 하교하기를 “이 성이 들 가운데서 우뚝 솟음이 이와 같으니 실로 솟은 곳이 특별한 뜻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적이 만약에 멸시하고 가볍게 범하면 반드시 낭패할 것이니 권장군의 승리가 까닭이 있을 것이다.” 하고 창고의 쌀 20석을 풀어 호가군병 護駕軍兵에게 주어 성 안의 주민들을 먹이게 하였다. 정종 경술정조 14, 1790년 원행 園行 때 이곳에 들러 지방의 부로 父老를 불러 경진영조 36, 1760년 사적 事蹟을 하문하시며 가자 加資를 내리시고 성안 주민에게 집집마다 쌀을 배급해 주셨다. 독성 중군 中軍 유이주 柳爾胄에게 상당한 직職으로 승진시켜 주

시며 영접군교迎接軍校는 본도本道로 하여금 상을 주도록 하고, 활을 당길 줄 아는 무리들에게는 다음날 대령케 하였다(본부 별시에 대령케 하여 1중(中)과 2중한 사람 5인에게는 모두 등제케 하였다). 성첩城堞은 둘로 쌓은 것으로 309첩이고, 주위 둘레는 1,010보이며(이(里)로 계산할 때는 5리), 4문이 있으니 남쪽문은 진남문鎮南門이라 하였다. 경진영조 36, 1760년에 장헌세자께서 거둥하였다. 또 암문暗門이 있고 성 위에는 장대 3칸이 있으니 정종 정미정조 11, 1787년에 세운 것이다. 정종 경술정조 14, 1790년에 거둥했으며, 신해정조 15, 1791년¹⁴⁾에 성첩과 성문을 중수하였다.

운주당 運籌堂 산성 안의 남쪽에 있다. 정종 정미정조 11, 1787년에 개축하고 정종 경술정조 14, 1790년에 중수하였다. ○ 경진영조 36, 1760년에 장헌세자께서 이곳에 들러 묵고 가시고 정종 경술정조 14, 1790년에는 정조께서 거둥하셨다. ○ 건물은 9칸이다.

삼문 三門 운주당 앞에 있다. 정종 경술정조 14, 1790년에 중수重修했는데, 독성아문禿城衙門이라고 편액扁額하였다. ○ 3칸은 단청을 칠하였으며 행랑이 11칸이다. 흡창방吸唱房 5칸, 사령방使令房 4칸, 마굿간 1칸, 헛간 1칸으로 되어 있다.

진남루 鎮南樓 운주당 남쪽에 있다. 영종 계유영조 29, 1753년에 중수했고, 정종 경술정조 14, 1790년에 특교特敎로 개축하였다. 경진영조 36, 1760년에 장헌세자가 이곳에 들러 작은 과녁을 쏘아 4시四矢를 얻중하였다. ○ 6칸은 단청을 칠하였다. 누樓 아래에 고려 왕릉이 있다고 전해온다(고적 조를 볼 것). 기문記文에 쓰기를,

경기도 읍 37곳 중에서 가장 큰 고을이 수주水州라고 일컬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을 선발 임용하여 3도호부都護府와 2군郡 7현縣을 관장하며 한수 남쪽에 거진巨鎭을 이루었다. 그러나 평원平原과 광야曠野에 위치하여 산과 계곡으로 험악險阨하게 막힌 곳이 없다. 동쪽으로 10리 거리 길가에 솟은 산을 독성산禿城山이라 하는데, 산에는 수목이 없어 바라보면 씻은 듯하니 민동산이라는 뜻에서 독산禿山이라 이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듯 기특하게 보지 않지만 임진왜란 때 일본 군사의 유린으로 나라 안의 굳은 성城과 큰 진이 계속하여 함락되었다. 그러나 도원수 권율은 패잔병을 이끌고 이곳에 웅거하여 서울을 범하려는 적에게 항거하였다. 적이 여러 차례 침범하면서도 마침내 꺾박하지 못하였으니, 사람들이 비로소 이 성의 형편이 나라의 요충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이듬해 적이 물러가자 조정에서는 급히 산성을 쌓고 수선하여 지킬 것을 의논하였다. 임금께서 먼저 독성산에 대해 물으시며, 상국相國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과 관찰사 서경西峯 유관柳觀의 찬성과 건의를 받아들여 마침내 방어사 변응성邊應星을 보내어 둘러보고서

14) 본문에는 신묘(辛卯)년 즉 1771(영조 47)년이라 기록되어 있으나 오기(誤記)이므로 바로잡았다.

이것을 이루게 하였다. 또 면포 수백 필을 내리시며 편의대로 행사하라 하시니, 변응성이 활을 쏠 수 있는 자를 모집하여 장정 500인을 얻었다. 임금의 명을 받들어 상을 나눠 주며 진졸鎭卒로 삼고 그 일을 보고하기를 이 성은 지킬만 하다고 간절히 주장하였다. 임금께서도 그렇게 여기시고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경영하도록 하시니, 비록 크게 확장하지는 못하였어도 성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은 대개 여기서 시작된 것이다.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적이 이곳 지경에 육박하자 부종의 백성들이 들어가 지키면서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뒤에 지킨 자가 간혹 마땅한 사람이 못되어 군심과 기계가 날로 해이해지고 무너지므로 상국相國 해원부원군海原府院君 윤두수가 임종할 때 글을 올려 독산성을 수리하여 부사를 폐하고 무신을 보내어 방어사를 겸임하되 영변寧邊과 경성鏡城의 제도와 같이 하자고 청하였다.

그리하여 그 의견을 조정에 물으니 모두 마땅하다고 하는지라, 드디어 본 고을의 육군으로 올라가 도성都城을 호위하는 자로 제수하고, 전세田稅가 서울의 창고로 들어오는 것을 모두 여기에 속하게 하여 군량으로 삼도록 하였다. 명하여 문·무 관리 중에서 위풍이 있고 일에 단련된 자를 뽑아서 지키게 하니 변후邊侯: 변응성이 다시 뽑히어 가서 성을 더 높이 쌓고 고랑은 더 깊이 치고 우물을 파서 주민이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며 밭을 갈아 주리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널리 궁노弓弩·석차石車·포화·기계를 마련하며 틈틈이 그 군졸과 더불어 공격하고 방비하며 달리고 쏘고 치고 찌르는 재주를 연습하면서 항상 적을 상대한 것처럼 하니 마침내 모두가 쓸 만한 정도가 되었다. 1년이 지나자 성중城中의 주민이 200호가 넘고 사찰과 관사만도 1백여 구역區域이 되었다.

일이 알려지자 임금께서 가까운 신하를 보내어 그 군사를 먹이게 하고 그 재주도 사열하라고 명하셨다. 임금께서 기뻐하시며 사졸들에게 차등을 두어 상을 내리셨고, 변후에게는 특별히 말을 내리시며 따뜻하게 권장하셨다. 이에 군심軍心이 기뻐하고 대중들의 뜻이 굳고 진용陳容이 정돈되며 기치旗幟가 일신하여 엄연히 기보幾輔: 경기지역을 보위하는 웅관雄關이 되었다.

부지런하게도 변공은 성 남쪽 모퉁이의 절벽에다 초루譙樓를 세워 손님과 나그네의 오가는 장소로 마련하여 그 애명愛名을 진남루鎭南樓라 이름하였다. 그리고 나에게 기문記文을 부탁하기에 이 성의 전말을 적는다.

고 하였다. 만력 31 계묘선조 36, 1603년 늦가을에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는 기록하였다.

이 기록들은 모두 그때 변응성이 나의 고조高祖에게 청하여 글을 얻은 것이다. 그 기문記文 중에 산성의 형편·창시創始·전말 등을 자세히 밝혀 기록해 놓을 것을 현판에 새겨 벽에 걸어두게 한 것이니 지금에 이르렀다. 바로 중간에 병화兵火를 만나 빠진 사실들을 보충하기에 정성을 다

하였다. 나의 아들 정보鼎輔가 이 고을을 다스릴 때 내가 추가로 쓴 것을 새겨 넣어 벽 위에 걸어 두게 한 것이다.

이후 경신영조 16, 1740년 불초손不肖孫 우신雨臣이 삼가 쓰다.

아전청衙前廳 운주당의 동편에 있다. ○ 9칸이다.

장교청將校廳 아전청의 서편에 있다. ○ 9칸이다.

관청官廳 장교청 서편에 있다. ○ 4칸이다.

사창四倉 관청 서편에 있다. ○ 대청이 3칸, 창고가 60칸이다. ○ 색리色吏 1인, 고자庫子 1인은 모두 본성의 교리校吏와 노奴 가운데서 차출差出하였다. 이하 같다.

군기고軍器庫 서남쪽에 있다. ○ 28칸 반인데, 2칸은 바로 화약고火藥庫이다. 을축인조 3, 1625년에 개건하였다. ○ 감관監官은 1인이다.

보적사寶積寺 동문 안에 있으며 21칸 반이다.

진도津渡

흑포나루黑浦津 부에서 남쪽으로 70리 거리 오타면五朶面에 있다. ○ 충청도 평택 등의 읍과 서로 통한다.

당포나루唐浦津 부에서 남쪽으로 90리 거리 광덕면廣德面에 있다. ○ 충청도 아산 등지와 서로 통한다.

한진나루韓津 부의 남쪽 90리 거리 포내면浦內面에 있으며, 옛 이름은 대포진大浦津이다. ○ 충청도 당진 등의 읍과 서로 통한다.

도서島嶼

풍도楓島 부의 서쪽 80리 거리 우정면雨井面에 있으며, 그 면에서 수로水路로 200리이다. 토지세는 남양南陽에서 받아가고 민호民戶는 본부에 입적入籍되었다.

구화도九花島 또한 우정면에 있으며 그 면에서 수로로 100리 거리이다. ○ 토지세는 없다.

거매도巨梅島 부의 남쪽으로 100리 거리 가사면佳士面에 있으며, 그 면에서 수로로 10리 거리이다. 옛 날에는 거매·아주鰲洲·오동梧桐의 3도가 있었는데, 해일에 아주도와 오동도가 침몰하였다. 지금은 거매도만이 남았는데 오히려 3도라고 일컫는다. 3도의 둔세屯稅가 있었다(지금은 궁내부宮內府에 속해 있다).

필로驛路

영종 경오영조 26, 1750년 온천으로 거동할 때와 장헌세자莊獻世子께서 경진영조36, 1760년 온천으로 거동할 때 필로驛路가 있었다. 그러나 그 뒤 백성들이 많이 침범하여 경작하였다.

정조께서 정종 기유정조 13, 1789년 장헌세자의 능원陵園을 천봉遷奉한 후 나라에서 값을 주고 길가의 전답을 매입하여 넓혀 개척하였다. 제설除雪 작업을 하는 등 수리소修理所를 두고 장정을 고용하여 치도治道하다가 부족한 것은 공전公錢으로 지출하도록 하고 길 좌우에 소나무와 버드나무 등을 잇대어 심도록 하였다.

지지현運運峴 부의 북쪽으로 15리 거리 일용면日用面에 있다. 이곳에서부터 본부의 경계가 시작된다.

북쪽은 바로 광주廣州와의 경계로서 고갯마루에는 지경이 시작된다는 장승을 세우고, 또 표석을 세워 지지현運運峴이라고 새겼다(거동 때 연로(驛路)에는 지나가는 경계선에 각석(刻石)을 세워 표시하라고 정종 병진(정조 20, 1796)년에 하교하였다). 처음 이름은 사근현沙斤峴인데, 정종 을묘정조 19, 1795년에 미륵현彌勒峴으로 고치고, 정종 병진정조 20, 1796년에 다시 지지대運運臺라고 고칠 것을 명하였다(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에 의하면 본부 경내의 지명을 새로 개폐하여 부지(府誌)에 등재하도록 했다. 그러나 필로의 지명을 명명한 문헌이 없어서 감히 기록하지 못한다).

지지대運運臺 지지고개 아래로 10여 보 길 서쪽에 있다. 정조께서 원행園幸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는 매양 여기에서 휴식하였는데, 대를 쌓고 대면臺面에 지지대運運臺라 새겼다. ○ 정종 을묘정조 19, 1795년 거동하실 때 전교하시기를 “매양 현릉원을 찾는 길에 미륵고개에 와서는 어가를 멈추고 멀리 바라보기를 오래하며 떠나지 못하고 스스로 말에서 내려 방황함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번 길에 고개 위 앉았던 자리에 대를 쌓고 지지대라로 명명命名하였으니 이 다음 노정기路程記에는 미륵현 아래에도 지지대 3자를 첨입添入하라”고 하였다. ○ 정종 병진정조 20, 1796년 원행 때는 “21일이 어느 날이던가, 와서 초상肖像을 참배하고 젖은 이 이슬을 밟아보니 아버지 사모하는 정이 더욱 간절하였다. 화성에 돌아와서는 비 때문에 어가御駕를 멈추었다. 가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새벽에 다시 길을 떠나 지지대에 도착하였다. 구불구불 길을 가는 도중에 능소의 생각이 계속 마음에 맺히어 오랫동안 그곳을 바라보다가 일률一律의 시로 느낌을 기록하노라.”

晨昏不盡慕 혼정신성昏定晨省의 사모함 다하지 못하여
此日又華城 이 날에 또 화성을 찾아와 보니
霖霖寢園雨 침원엔 가랑비 부슬부슬 내리고

徘徊齋殿情 재전에선 방황하는 마음이로다.
 若爲三夜宿 사흘 밤을 견디기는 어려웠으나
 猶有七分成 그래도 초상 한 폭은 이루었다오.
 矯首遲遲路 지지대 길에서 머리 들고 바라보니
 梧雲望裏生 바라보는 속에 오운梧雲: 능침을 말함이 일어나누나.

주註 : 정조는 지난날 장헌세자의 온양溫陽 거동 때 본부를 지나면서 입었던 복색을 전례대로 군복을 착용하였다. 그때 영정의 초본이 있었으나 빛이 바래있어도 감히 옮기어 모방하지 못하였더니, 근래 원행 때에도 복색은 군복을 입으시고 어진御眞을 그려 능소현릉원 재전에 보관하여 첨의瞻依하는 생각을 붙이었다. 세 번째 덧구에서 그것을 언급하였다(현판은 달지 않았다).

라고 하였다.

○ 정조께서 승하하신 뒤 경신정조 24, 1800년 겨울 본부의 암행어사 신순申綸이 지지대에 비를 세워 그 사실을 기록할 것을 상달하여 윤허를 받았다. 순조 정묘순조 7, 1807년 대륙 서쪽에 비석을 세우고 비각을 건립하였다. 비수碑首에는 '지지대비명遲遲臺碑銘'이라 전액篆額하였다. 비문은 다음과 같다.

화성華城과 광주廣州의 경계에 우뚝 솟아 산마루를 이루고 있는 것이 지지현遲遲峴이다. 이 산마루 위에 누대가 있는데, 이것이 지지대遲遲臺이다. 서남쪽을 바라보면 봉우리가 숨은 듯 보일 듯하며 그 위에 항상 아름다운 기상이 울울총총鬱鬱蔥蔥한 것이 화산花山의 여러 산기슭이다. 옛날 우리 정조 임금께서 정조 13:1789년에 현릉원顯陵園을 화산으로 옮기시고 해마다 정월에는 원園을 배알하여 제사지내고 환가還闕하실 때 바라보시면서 차마 가지지 못하고, 이 고개에 이르러 수레를 멈춰 바라보고 오랫동안 머뭇거리셨다. 대저 연로驛路가 점점 멀어짐에 따라 화산이 점점 숨겨지면서 화성華城의 경계가 또한 끝나게 된다. 이에 그곳에 돌을 쌓아 작은 대臺를 만들었으며, 대와 고개를 '지지遲遲'라고 이름하였다. 지금의 임금순조께서 즉위하시자 화성어사華城御史 신순申綸이 여기에 비석을 세워 그 사실을 기록하자고 청하였다. 임금께서 허락하시고 그 글을 짓도록 신臣 영보榮輔에게 명하였다. 신은 명을 받고 황공하여 대답하였다.

오호라! 무릇 되어진 줄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지성至誠에서 돌아나는 것이다. 신이 선왕의 조정朝廷에서 일을 받아, 앞드려 선왕先王께서 이미 능원陵園을 모시는 것을 살펴본 바 있었다. 땅은 길지吉地로 합당하고 예를 융숭히 하여 새로운 읍을 이

루게 하여 행궁(行宮)을 삼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곳은 내가 은혜를 크게 입은 탕목읍(湯沐邑)이다. 재전(齋殿)에 어진(御眞)을 봉안하여 내가 조석으로 문안을 드릴 수 있는 예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셨으니, 아름답도다! 임금님께서 사모하심이 잠시라도 이 화성에서 떠나지 않도다. 그러므로 장차 거동하시는 날 초하루의 조회(朝會)를 마치고 일찍 재계하시고 대기하시되, 황급히 미치지 못할까 하며 거동이 출발하자 급히 가시려고 하여 조심조심 무엇인가 찾는 것이 있는 듯하며, 제기가 다 갖추어지고 모든 진설(陳設)이 충분하며 제사하는 동안에도 슬퍼하시어 진행되는 동안 목이 메는 듯하였다. 마치고 돌아가 심에 있어서 슬퍼하심이 지극하여 아른아른 연연해 하셨다. 그리하여 능원에서 이 고개까지 수십 리의 길이 대체로 더디고 또 더디었다.

옛날 공자(孔子)께서 노(魯)나라를 떠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더디고 더디구나, 나의 발 길이여' 하셨는데, 이는 공자가 의식적으로 더디게 걸으려 한 것이 아니라, 더딘 걸음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이다. 우리 선왕께서 여기에서 더딘 걸음도 또한 마음속에 얽힌 애정 때문에 스스로 더디고 더디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효자의 뜻은 다시 들어오는 것과 같다' 고 하였으나, 오직 지성(至誠)이라야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화성에 이르는 길에 정자(亭子)·우역(驛驛)·제언(堤堰)이 많이 마련된 것이나 초목·식물의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왕의 성려(聖慮)에서 운영되지 않은 것이 있겠는가? 옛날 더디게 걸으시며 자주 뒤돌아보시던 것이 더디고 더디게 걷는 생각이 여기에 더욱 간절히 나타나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 이르러서 남북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짐을 지고 편히 지나칠 수 없는 것도 또한 여기에서 더욱 심하도다. 오직 우리 전하(臣下)께서 능원을 배알하시고 해마다 이 대(臺)를 지나면서 슬퍼하시고 마음에 느낌이 일어나 마치 선왕을 뵈는 듯 효심을 나타내셔서 여기에 새기게 하시니, 선왕(先王)께서 조상의 근본에 보답하고 너그러운 교훈을 내리시는 정성과 우리 전하께서 선대의 뜻과 일을 이어 받으시려는 아름다움을 여기에 그 만분의 하나라도 상고할 수 있겠도다.

무릇 신이 삼가 머리를 조아려 다음과 같이 명(銘)을 바친다.

임금이시여, 아버님을 위하여 화성에 대(臺)를 세우시도다.

오, 잊지 못하심이여, 효심이 높으시도다.

왕께서 지난날 능원을 참배하실 제, 이슬이 미처 마르지 않았도다.

이른 새벽 거동 조심조심 모시는 신하들이 말을 달리고 달리니

제사를 마치고 돌아가시매 왕의 마음이 허전하시도다.

높고 높은 저 산이 보는 듯 숨는 듯하니,

저 거동길 어디 더디지 않겠는가,
 길이 멀어지니 돌아본들 어찌하나,
 왕께서 이 대에 오르면 시위관이 나열하고
 구름은 아득히 이 화성의 산에서 일다.
 지성으로 드러난 애정, 바다인 듯 넓디넓도다
 저 뒷날 백성들이 누가 눈물을 떨구지 않겠는가,
 우리 임금님의 말씀, 이 대에 새겨진 효성,
 돌아보건대 생각하시는 의리 조서(詔書)로써 허락하셨네.
 높이 솟은 비석이며, 우리 임금님의 법도로다.
 사신(詞臣)은 머리 조아려 끝없는 뜻을 새기다.”

홍문관제학 서영보(徐榮輔)가 교지를 받들어 삼가 글을 지음.
 판돈녕부사 윤사국(尹師國)이 교지를 받들어 삼가 글씨를 씀.
 수원부유수 홍명호(洪明浩)가 교지를 받들어 전액(篆額)을 올림.

비각 앞길 서쪽으로 하마비(下馬碑)를 세웠다.

경오주필대 庚午駐蹕臺 지지대 아래로 몇 리쯤 되는 길 동쪽에 있다. 영조가 영종 경오(영조 26, 1750년) 운양으로 거동하실 적에 이곳에 머무르시며 대를 쌓고 경오주필대(庚午駐蹕臺)라고 새겼다. 대 북쪽으로 미륵당(彌勒堂)이라는 자그마한 정자가 있고, 그 당 서편으로 100보 남짓 바라보이는 곳에 또 경진(영조 36, 1760년) 장헌세자(莊獻世子)가 온양으로 거동하실 적의 주필대가 있으니, 대면(臺面)에 경진주필(庚辰駐蹕)이라고 새겨져 있다.

괴목정 槐木亭 경오주필대에서 1리쯤 되는 길 서편에 표석이 있으니, 괴목정교(槐木亭橋)라고 새겨져 있다.
일용리 日用里 괴목정교에서 몇 리 떨어져 있고, 지지대고개에서 5리쯤 거리에 장승이 세워져 있다.
여의교 如意橋 일용리(日用里)에서 3리쯤 길 서편에 표석이 있으니, 여의교(如意橋)라 새겨져 있다. 처음 이름은 진목정교(眞木亭橋)인데 병진(정조 20, 1796년)에 이름을 고칠 것을 명하였다.

만석거 萬石渠 여의교(如意橋)에서 100보쯤 떨어진 길 동쪽에 표석이 있는데, 만석거(萬石渠)라 새겨져 있다.
 그 동편은 영화정(迎華亭)이다.

기하동 芰荷洞 만석거에서 100여 보쯤으로 일용리에서 5리 거리에 장승이 세워져 있다.

대유평 大有坪 기하동(芰荷洞)에서 1리 쯤으로 길 동편에 표석이 있는데, 대유평(大有坪)이라고 새겨져 있다.
 병진(정조 20, 1796년)에 대유둔(大有屯)을 설치한 후 이름을 명명한 것이다.

영화역 迎華驛 대유평(大有坪)에서 100여 보 길 동편에 표석이 있는데, 영화역(迎華驛)이라고 새겨져 있는데,

병진정조 20, 1796년 양재역良才驛을 옮긴 후에 명명하였다.

관길야觀吉野 영화역에서 100여 보쯤 길 동편에 표석이 있는데, 관길야觀吉野라고 새겨져 있다.

장안문長安門 관길야에서 30보 남짓한 곳에 있다.

행궁行宮 장안문에서 1리쯤으로 기하동에서는 5리이다.

팔달문八達門 행궁에서 1리쯤거리에 있다.

매교梅橋 팔달문에서 3리쯤 되는 길 서편 표석에 매교梅橋라 새겨져 있다. 처음 이름은 매산교梅山橋인데 을묘정조 19, 1795년에 이름을 고쳤다. 옛 다리는 지금 다리의 남쪽으로 100보쯤 있었는데, 순조 을유순조 25, 1825년에 유수留守 김이양金履陽이 아랫길은 막히고 물에 젖어 있다고 보고하여 만화현萬和峴으로 길을 옮겼다가 다시 이곳으로 다리를 옮기고 표석을 옮겨 세웠다. ○ 옛 필로는 옛 매교에서 100보 떨어져 상류천上柳川에 이르면 상류천上柳川이라고 새긴 표석이 있다. 처음 이름은 삼거리三巨里라고 하였다가 을묘정조 19, 1795년에 이름을 고칠 것을 명하였다. 행궁行宮에서 5리에 장승을 세웠고, 상류천에서 재간현才幹峴에 이르는 5리 거리에도 장승을 세웠다. 재간현에서 웅봉巒峯까지의 거리는 5리이다.

만화현萬和峴 새로운 필로이다. 매교에서 100여 보이다. 행궁에서 5리이며 장승을 세웠다.

건장동建章洞 또한 새로운 필로이니 만화현에서 5리 거리이며 장승을 세웠다.

하류천下柳川 여기에서부터 옛 필로이니, 건장동으로부터 5리 거리이며 동편 표석에 하류천下柳川이라 새겼다. 장정長亭이 있다.

황교皇橋 하류천에서 100여 보 거리이며 길 동편 표석에 황교皇橋라고 새긴 표석이 있다. 처음 이름은 소황교小皇橋였던 것을 을묘정조 19, 1795년에 이름을 고치도록 명한 것이다.

웅봉巒峯 황교에서 100여 보 거리이며 길 서쪽 표석에 웅봉巒峯이라 새긴 표석이 있다. 처음 이름은 독봉獨峯인데, 을묘정조 19, 1795년에 이름을 고치도록 명하였다. 건장동에서 5리 거리이며 장승을 세웠다.

대황교大皇橋 웅봉에서 100여 보쯤 되는 길 서편에 대황교大皇橋라고 새긴 표석이 있다. 대황교의 처음 이름은 황교黃橋인데, 을묘정조 19, 1795년에 이름을 고치도록 명했으며 단정短亭이 있다.

능원소화소陵園所火巢 대황교 길 동편에 화소火巢라고 새긴 표석이 있다.

유첨현迪瞻峴 화소에서 1리쯤 되는 길 서편에 유첨현迪瞻峴이라고 새긴 표석이 있다. 처음 이름은 작현鵲峴 : 까치고개인데, 을묘정조 19, 1795년에 고칠 것을 명하였다. 고개에 이르지 않아 100보쯤 거리에 장승이 서있다. 웅봉까지의 거리는 5리이다.

안녕리安寧里 유첨현에서 3리쯤 되는 길 북쪽에 안녕리安寧里라고 새긴 표석이 있다. 안녕리는 유첨현 못미처 장승 세운 데서 5리 떨어진 곳에 장승을 세웠고, 큰 마을이 있다.

유근교迪觀橋 안녕리에서 1리쯤 되는 길 북쪽에 유근교迪觀橋라고 새긴 표석이 있다. 유근교의 처음 이름은 사성교士成橋인데, 을묘정조 19, 1795년에 고치도록 명하였다.

만년제萬年堤 유근교에서 몇 리쯤 떨어진 길 남쪽에 표석이 있는데, 만년제萬年堤라고 새겨져 있다. 처음 이름은 방축수防築數인데, 을묘정조 19, 1795년에 이름을 고치도록 명하였다. 정조께서 정종 정사정조 21, 1797년 거동 때 직접 좌의정이 지은 '만년제萬年堤에서 농사를 구경하다'는 시운詩韻에 화답和答한 시에,

萬年堤上路 만년제 위의 길목에
 遲日駐轡聲 기나긴 날 어가를 멈추었노니
 吉慶輸金粟 경사로와라 금속을 실어나르고
 豐穰對玉杭 풍년 들어라 옥 같은 벼 마주하네.
 翺風采午餼 빈풍飜風엔 낮밥을 내어다 먹고
 周旋聽新氓 주나라 군대엔 새 백성을 보노라
 朋酒如春解 두 동이 술에 얼음 녹듯 풀리어
 爭將舞袖呈 서로 다투어 덩실덩실 춤을 추네.

라고 하였다.

능원소동구陵園所洞口 안녕리에서 3리 거리이며 장승을 세웠다. 지지대고개에서 행궁까지 거리가 15리, 행궁에서 원소까지 거리가 28리, 능소까지의 거리는 29리가 된다.

교량橋梁

- 신평교**新豐橋 신평루 앞에 있다. 정종 기유정조 13, 1789년에 돌로 쌓았다.
매향교梅香橋 부내府內에 있으니 갑술순조 14, 1814년에 돌로 쌓았다. 일명 오교午橋라고도 한다.
매교梅橋 부의 남쪽으로 3리 거리에 있다(필로(蹕路)를 볼 것).
여의교如意橋 부의 북쪽으로 5리 거리 일용면日用面에 있다(필로(蹕路)를 볼 것).
목욕동교沐浴洞橋 부의 북쪽 7리 거리에 있다.
괴목정교槐木亭橋 부의 북쪽 10리 거리에 있다(필로(蹕路)를 볼 것).
후평촌대교後坪村大橋와 **후평촌소교**後坪村小橋 서남쪽으로 15리 거리 용복면龍伏面에 있다.
배양교培養橋 부의 남쪽으로 15리 거리 용복면에 있다.
황교皇橋 부의 남쪽으로 15리 거리의 안녕면에 있다(필로(蹕路)를 볼 것).
대황교大皇橋 부의 남쪽으로 20리 거리인 안녕면에 있다(필로(蹕路)를 볼 것).

오목천교鰲木川橋 부의 남쪽으로 20리 거리인 안령면에 있으며, 순조 을축순조 29, 1829년에 돌로 쌓았다.

유근교迪觀橋 남쪽으로 25리 거리 안령면에 있다(필로驛路를 볼 것).

대왕교大王橋 원소廟所에서 남쪽으로 1리 거리에 있다. 정종 신해정조 15, 1791년에 돌로 쌓았다.

세남교細藍橋 부의 남쪽 20리 거리인 문시면文市面에 있다.

봉수烽燧

흥천봉수興天烽燧 부의 남쪽으로 100리 거리 압정면鴨汀面에 있다(연대는 미상이다). 남쪽으로는 충청·전라 양도兩道의 봉화烽火에 준準하고, 동쪽으로는 양성陽城·괴태곶槐台串 봉화에 응하며, 북쪽으로는 남양 염불산봉수念佛山烽燧에 응하고, 서쪽으로는 본부의 건달산봉수乾達山烽燧에 응한다. 별장別將 1원員은 한산閑散으로 차출한다. 여러 봉수대 감관監官, 또한 같다. 감관 5원員과 군졸軍卒 25명이 번갈아 지킨다(지금은 폐해졌다).

건달산봉수乾達山烽燧 부의 남쪽으로 35리 거리 갈담면葛潭面에 있다. 정종 병진정조 20, 1796년에 간봉間烽을 서봉산棲鳳山에 두었던 것을 순조 신사순조 21, 1821년에 천릉遷陵을 한 후에 옮기어 이곳에 두었다. 서쪽으로 흥천산봉수興天山烽燧에 응하고 동쪽으로 안산봉수案山烽燧에 응한다. 감관 5원員과 군졸 15명이 번갈아 지킨다(지금은 폐해졌다).

안산봉수案山烽燧 부의 동쪽 성에 있다. 정종 병진정조 20, 1796년에 설치하였다(성곽 봉돈조를 볼 것). 서쪽으로는 건달산봉수에 응하고, 동쪽으로는 용인龍仁의 석성산石城山 육지 봉수에 응한다. 감관 5원員과 군졸 15명이 번갈아 지킨다(지금은 폐해졌다).

제언堤堰

만석거萬石渠 부의 북쪽으로 5리 거리의 일용면日用面에 있다. 정종 을묘정조 19, 1795년에 쌓았다. 길이 875척尺, 넓이가 850척, 높이가 12척 5촌寸, 두께가 10척 5촌, 깊이가 8척 7촌, 수문 2곳, 몽리답蒙利畓은 66섬지기石落이다.

축만제祝萬堤 부의 서쪽으로 5리 거리의 북부北部에 있다. 정종 기미정조 23, 1799년에 쌓았다. 길이 1,246척, 넓이 720척, 높이 8척, 두께 7척 5촌, 깊이가 7척, 수문 2곳, 몽리답은 232섬지기이다.

남제南堤 부의 남쪽으로 5리 거리의 남부南部에 있다. 순조 을유순조 25, 1825년에 쌓았다. 길이 800척, 넓이 800척, 높이 10척, 두께 11척, 깊이가 8척, 수문 2곳, 몽리답은 90섬지기이다.

만년제萬年堤 원소廟所 남쪽으로 3리 거리에 있으며(필로 조를 볼 것), 정종 정사정조 21, 1797년에 쌓았다. 길

이 460척, 넓이 370척, 높이 7척, 두께 34척, 깊이 5척, 수문 1곳, 몽리답은 62섬지기이다.

둔전 屯田

축만제둔 祝萬堤屯 부의 서쪽으로 5리에 있으니, 정종 기미정조 23, 1799년에 설치하였다. 논 83섬 石 15두 4승 升지기이다.

대유둔 大有屯 부의 북쪽으로 5리 일용면 日用面에 있으니, 정종 을묘정조 19, 1795년에 설치하였다. 논 12섬 12두 4승지기이다.

유천둔 柳川屯 부의 남쪽으로 5리 남부 상류천 上柳川에 있으니, 본시는 장용영 壯勇營에 속하였다. 그러나 정종 병진정조 20, 1796년에 이속 移屬하였다. ○ 논·밭이 12결 結 58부 負 4속 束이다.

오타면둔 五朶面屯 부의 남쪽으로 70리 오타면 五朶面에 있다. ○ 논·밭이 10결 64부 7속이다.

양향둔 穰餉屯 부의 남쪽으로 청호면 淸湖面에 있다. ○ 논·밭이 36결 45부 5속이다.

숙성면둔 宿城面屯 부의 남쪽으로 80리 숙성면 宿城面에 있다. ○ 언답 堰畓으로 5결 33부 가량이다.

안산둔 安山屯 안산군 성두리 城頭里에 있으니 부에서 70리 거리이다. ○ 논·밭이 4결 6부 9속이다.

석장둔 石場屯 안산 安山과 인천 仁川 두 읍에 있으니, 부에서 70리 거리이며 논이 31결 7부이다.

○ 이상의 8곳 둔전은 이제 선희궁 宣禧宮에 속하였다.

삼도둔 三島屯 부의 남쪽으로 100리 가사면 佳士面에 있으며, 병진정조 20, 1796년에 설치하였다. ○ 언답이 24결 47부 7속이다.

포내둔 浦內屯 부의 남쪽으로 80리 포내면 浦內面에 있다. ○ 논 2결 35부 6속이다.

시흥둔 始興屯 시흥현 始興縣 설월리 雪月里 등지에 있으니, 부에서 50리 거리이다. ○ 논이 18섬 11두 5승지기이다.

진위둔 振威屯 진위현 振威縣 병파면 丙坡面 등지에 있으니, 부에서 50리 거리이다. ○ 논·밭이 113섬 18두지기이다.

송동둔 松洞屯 부에서 서쪽으로 30리 송동면 松洞面에 있으니, 신유순조 1, 1801년에 설치하였다. ○ 논·밭이 32섬 12두 1승지기이다.

안성둔 安城屯 안성군 죽촌면 竹村面 등지에 있으니, 부에서 50리 거리이다. ○ 논·밭이 113섬 18두지기이다.

양성둔 陽城屯 양성현 陽城縣 반곡면 盤谷面 등지에 있으니, 부에서 70리 거리이다. ○ 논·밭이 18섬 16두지기이다.

용인모현둔 龍仁慕賢屯 용인현 모현면 慕賢面에 있으니, 부에서 60리 거리이다. 논·밭이 20결이다.

○ 이상의 8곳 둔전은 궁내부 宮內府에 속한다.

평산둔 平山屯 황해도 평산부 平山府 방동면 方洞面에 있으니, 부에서 330리 거리이다. 정종 기미정조 23, 1799년에 설치하였다. ○ 논·밭이 12결 36부이다.

연산둔 連山屯 충청도 연산현 連山縣 수촌리 蘇村里에 있으니, 본부에서 330리 거리이다. 병진정조 20, 1796년에 설치하였다. ○ 논 25결 21부 8속이다.

용인도촌둔 龍仁導村屯 인현 도촌면에 있으니, 부에서 50리 거리이다. ○ 논 14결 62부 7속이다.

용인협천둔 龍仁險川屯 용인현 협천면 險川面에 있으니, 부에서 30리 거리이다. ○ 논·밭이 17결 13부 3속이다.

신천마정둔 信川馬井屯 황해도 신천군 信川郡 마정방 馬井坊에 있으니, 부에서 550리 거리이다. ○ 논 4결 3부 7속이다.

신천가곶방둔 信川加串坊屯 황해도 신천군 가곶방 加串坊에 있으니, 부에서 550리 거리이다. ○ 논 7결 11부 8속이다.

결성둔 結城屯 충청도 결성현 結城縣 은하면 銀河面에 있으니, 부에서 260리 거리이다. ○ 논 4결 38부 5속이다.

과천안양둔 果川安養屯 과천현 안양면 安養面에 있으니, 부에서 40리 거리이다. ○ 논·밭이 4결 42부 7속이다.

은율광암둔 殷栗廣岩屯 황해도 은율현 殷栗縣 광암방 廣巖坊에 있으니, 부에서 620리 거리이다. 1796년에 설치하였다. ○ 논이 34결 12부 7속이다.

평신진둔 平薪鎭屯 충청도 평신진 平薪鎭에 있으니, 부에서 280리 거리이다. ○ 논·밭 388결 70부 9속이다.

백령대소청둔 白翎大小靑屯 황해도 백령진 白翎鎭에 있으니, 부에서 770리 거리이다. 정종 계축정조 17, 1793년에 설치하였다. ○ 둔감 屯監 1원 員이다. ○ 정철대전 正鐵代錢이 30냥이다.

용인둔 龍仁屯 용인현 지내면 枝內面 등지에 있으니, 부에서 20리 거리이다. ○ 논·밭이 5결 38부 9속이다. ○ 이상의 11곳 둔전은 이제 경부 京府에 속하고 있으나 자세히는 알 수 없다.

용인부곡둔 龍仁釜谷屯 용인현 부곡면 釜谷面에 있으니, 부에서 40리 거리이다. ○ 논·밭 61결 11부이다. ○ 이제는 화령전 華寧殿에 속한다.

우역 郵驛

영화역 迎華驛 부에서 북쪽으로 3리쯤 거리에 있다. 본래 양재역 良才驛으로 광주땅에 있어 경기감영에 속하였던 것을 정종 병진정조 20, 1796년 특교 特敎에 의하여 여기에 옮겨 설치하고 본부에 속하게 하였다. 곧이어 이름도 고치도록 명하였다. ○ 찰방 察訪 1원 員(관직조를 붙것), 역리 驛吏 12명, 통인

통리 6명, 사령使令 9명, 관노官奴 5명, 인부人夫 18명, 역노驛奴 133명, 역비驛婢 2명, 봉족奉足 216명, 말 108필, 마위전馬位田 167섬지기, 위답位畓 149섬지기, 입거전入居錢 1,456냥 7전 9분이었다. 지금은 폐하였다.

내삼문內三門 영화관迎華館 앞에 있다. ○ 3칸은 단청을 칠하였다. 익랑翼廊은 4칸이다.

내아內衙 영화관 북쪽에 있다. ○ 10칸 반이다. 행랑이 10칸인데 문이 2칸이다.

별당別堂 영화관의 북서쪽 가까이에 있다. ○ 4칸이다.

아전청衙前廳 내삼문 밖 서쪽 가까이에 있다. ○ 6칸이다.

외삼문外三門 내삼문 앞에 있으며 영화독우아문迎華督郵衙門이란 편액扁額을 달았다. ○ 3칸은 단청을 칠하였다.

능원陵園

건릉健陵 현릉원顯陵園 오른쪽 기슭에 있다. 경신정조 24, 1800년에 정조대왕의 능을 현릉원 동쪽 두 번째 산등성이에 봉하였다가, 신사순조 21, 1821년에 효의왕후孝懿王后께서 승하하자 대왕의 능을 이곳으로 옮겨 모시고 왕후를 부장하였다. 능은 자좌오향子坐午向이다. 영솔1원, 참봉1원, 서원書員 1인, 수복守僕 4인, 고지기庫直 1인, 장번長番 2명, 수호군 63명, (아울러 원역(員役) 6인과 종서원(宗書員) 1인을 합하여 70명이다), 안산案山지기 40명, 목산木山지기 17명, 봉족 140명이다. 향탄전香炭錢이 1,500냥각 돈을 볼 것, 또 세전稅錢이 200냥(전라도 영암군(靈巖郡) 도감사(道岬寺)에서 바침), 위전位田이 110섬 5마지기, 논이 74섬 5마지기, 복호復戶가 105결이다.

정자각丁子閣 능소앞에 있으니 10칸이며 단청을 칠하였다.

비각碑閣 능소 앞가까이 동편에 있으니 1칸이며 단청을 칠하였다. 비碑의 전면前面은 전서篆書로 “정종대왕건릉 효의왕후부좌 正宗大王健陵 孝懿王后祔左”라고 새겼다(비각 앞에는 홍살문(紅箭門)이 있다).

향대청香大廳 능소 동남편에 있으며, 6칸이다.

전사청典祀廳 재실의 서편에 있으며, 10칸이다.

수라간水刺間 정자각의 서편에 있으며, 3칸이다.

재실齋室 향대청의 서편에 있으며, 정간正間이 12칸에 행각行閣과 행랑行廊이 모두 35칸이다.

제기고祭器庫 재실齋室 동편에 있으며, 3칸이다.

수복방守僕房 수라간의 남쪽에 있으며, 3칸이다.

현릉원顯陵園 부의 남쪽으로 28리 화산花山에 있다. 임오영조 38, 1762년에 장헌세자莊獻世子の 묘를 양주楊州 배봉산拜峯山에 봉하였다. 정종 초원정조 즉위, 1776년에 원호園號를 영우永祐로 봉하였고, 기유정조 13, 1789년에 이곳으로 천봉하여 원호를 현릉顯陵이라고 고쳐 정하였다. 순조 병자순조 16, 1816

년에 헌경혜빈(獻敬惠嬪)을 부장(附葬)하였다. 원(園)은 계좌정향(癸坐丁向)이다. 영수(永守) 1원, 참봉(參奉) 1원, 순산(巡山) 1원, 서원(書員) 1인, 고지기(高止基) 1인, 장번(長番) 2명, 수호군(守護軍) 50명, 안산지기(案山直) 30명, 목산지기(木山直) 13명, 봉족(奉足) 118명이다. 향탄전(香炭錢) 800냥, 또한 세전이 271냥(경상도 의성현(宣城縣)에 서바침)이다. 밭 97섬 1마지기, 논이 61섬 16마지기, 복호(復戶)가 88결 50부이다.

정자각(丁子閣) 원소 앞 가까이 서편에 있으니, 10칸이며 단청을 칠하였다.

비각(碑閣) 원소 앞 가까이 동쪽에 있으며, 2칸으로 단청을 칠하였다. 비 전면은 전자(篆字)로 “조선국 사도장헌세자 현릉원(朝鮮國思悼莊獻世子墓陵園)”이라 했고, 또 비 전면에는 전자로 “조선 헌경혜빈 부좌(朝鮮獻敬惠嬪附左)”라고 새겨져 있다.

어재실(御齋室) 원소 남쪽에 있으니, 정간(正間)이 15칸에 단청을 하였으며, 행각은 모두 19칸이다.

전사청(典祀廳) 재실의 서편에 있으며, 14칸이다.

수라간(水刺間) 정자각의 서편에 있으며, 3칸이다.

재실(齋室) 어재실(御齋室)의 서편에 있으며, 9칸이다.

제기고(祭器庫) 재실의 남쪽에 있으며, 2칸이다.

수복방(守僕房) 수라간의 남쪽에 있으며, 3칸이다.

전우(殿宇)

화령전(華寧殿) 행궁의 북쪽에 있다. 정종(正宗) 기유(己酉) 정조 13, 1789년에 현릉원을 본부에 천봉하고 임자(壬子) 정조 16, 1791년에 어진(御眞)을 원소(園所)의 어재실에 모시어 봉안하고 그것에 의해 머물러 우러러보는 성모(聖慕)의 마음을 부치셨다. 경신(庚申) 정조 24, 1800년에 정조가 승하하신 다음 주합루(宙合樓)에 모셨던 대본(大本) 일체(一體)를 행궁의 유여택(維與宅)에 모셨다가, 순조(純祖) 신유(辛酉) 순조 1, 1801년에 영전(影殿)을 영건(營建)하고 어진(御眞) 2본(本)을 여기에 옮겨 모셨다(대본(大本)은 펼쳐 모셨고, 소본(小本)은 궤짝에 맡아서 봉안하였다. 그리고 음력 정월·4월·7월·10월에 봉심(奉審)하였다). 전호(殿號)를 화령(華寧)이라 정하였다. 제조(提調) 1원(본부 유수가 예겸), 위장(衛將) 1원(본부 중군(中軍)이 예겸), 영수(永守) 1원(본부 판관(判官)이 예겸), 수문장(守門將) 2원(본부 5사(司)관(五司)哨官)으로 오래 근무한 자로서 단망(單望)으로 계하(啓下)한다. 관직(官職)을 볼 것, 전지기(殿直) 1인, 수복(守僕) 4인, 조라치(照羅赤) 4명, 수문졸(守門卒) 4명이다. 전내(殿內)의 개수하는 물력(物力)은 분봉상시(分奉常寺)에서 조달한다. 매삭(每朔) 5일 간격으로 제조·위장(衛將)·영수(永守)가 봉심하며, 4맹삭(四孟朔) 초하루에는 크게 봉심한다. 탄신(誕辰)과 납일(臘日)에는 제향을 올리되 제조가 헌관(獻官)이 되고, 영수(永守)가 대축관(大祝官)이 되며, 그 아래는 유수(留守)가 차정(差定)한다.

정전(正殿) 동향이다. 7량(樑)으로 20칸인데 전내(殿內)가 12칸이다. 4면에 퇴(退)가 있다. 서북 모퉁이에서부터 각도(閣道) 5칸을 마련하여 이안청(移安廳)으로 이어 옮겨진다(아울러 단청을 칠하였다).

행궁行宮

봉수당奉壽堂 행궁의 정당正堂으로 동향이다. 정종 기유정조 13, 1789년에 세우고, 갑인정조 18, 1794년에 증축했으며, 어서御書로 편액한 장남헌壯南軒과 화성행궁華城行宮이 있다. 을묘정조 19, 1795년 거동 때 혜경궁惠慶宮 진찬례進饌禮를 이곳에서 행하고 또 봉수당奉壽堂이라 편액하였다. 거동하실 때 대차大次로 삼았고, 평상시에는 유수의 좌아坐衙로 하였다. 정당이 7랑에 21칸이니 남쪽으로는 온돌이 4칸 반이다. 서쪽으로는 장락당長樂堂으로 통하고 온돌의 남쪽은 퇴와 분합이고, 분합 밖으로는 하엽荷葉난간이다. 청廳이 8칸에 3면은 분합과 퇴를 마련하고 북으로는 하엽난간이고, 서퇴西退는 굽게 장락당 북미현北眉軒으로 통하고, 남퇴南退는 바로 경룡관 북각北閣으로 통한다. 경룡관에서 남쪽으로 동편에 남행각南行閣 5칸(처음 2칸은 온돌, 다음 1칸은 부엌, 다음 2칸은 온돌이다. 정당에서 이곳에 이르는 건물은 기유(정조 13, 1789)년에 세웠다)을 세워 곧게 유여택維興宅 북행각으로 통하며 정당의 동북퇴東北退 기둥을 경유하여 곧게는 북각도北閣道 7칸(처음 1칸은 마루, 다음 2칸은 온돌, 다음 1칸은 마루, 다음 1칸은 천문(千門), 다음 2칸은 마루이다. 갑인(정조 18, 1794)년에 세웠다)과 이어져 굽게는 득중정得中亭의 남퇴와 통한다. 인하여 동쪽으로 꺾이어 동북행각東北行閣 12칸(처음 1칸은 온돌, 다음 1칸은 건장문健章門, 다음 9칸은 누상고樓上庫, 다음 1칸은 공랑空廊이다. 서편 2칸은 갑인년에 세웠고, 동편 10칸은 기유년에 세웠다)을 지어 동북으로 낙남헌落南軒과 연하며, 동행각東行閣 남단에서 동남쪽으로 중앙문中陽門의 북익랑北翼廊 북단北端과 연하여 각도閣道の 제3칸에서 기와를 연하여, 서편으로 가면 서북행각西北行閣 9칸(처음 2칸은 마루, 다음 2칸은 온돌, 다음 1칸은 삼수문三壽門), 다음 3칸은 고평판庫鋪板, 다음 1칸은 부엌이다. 갑인(정조 18, 1794)년에 세웠다)이 있어 서북편으로 득중정의 서행각西行閣 남단으로 연한다. 인하여 꺾이어 남쪽으로 서행각8칸(처음 2칸은 온돌, 다음 1칸은 마루, 다음 3칸은 고평판庫鋪板), 다음 1칸 반은 온돌, 다음 반칸은 부엌이다. 1794년에 세웠다)을 세워 곧장 장락당 뒤의 행각 8칸과 연한다. 을묘정조 19, 1795년 거동 때 직접 '화성에서 진찬하는 날을 읊조려 잔치에 참여한 여러 신하에게 보이며' 란 시를 지어 만년萬年의 수壽를 축수하시는 정성을 부치셨다.

크나큰 복록으로 새로운 명命을 맞이하여라
 생황 통소 불어 대어 청춘을 머물게 하네.
 땅은 관화觀華에 부합해 3축 소리 비등하고
 해는 유흥절에 이르러 6순을 올랐도다.
 내빈 외빈은 그대로 꽃 핀 숲의 모임이요
 동반 서반은 바로 꽃보다 고운 사람들일세.
 해마다 오늘같이 즐겁기만을 원하노니

장락당長樂堂 안에는 술이 몇 순배나 돌았는고.

병신정조 20, 1796년 거동 때 정조께서 홍범洪範·봉조鳳鳥 등 여러 산을 순행하시고 밤에 화성행궁으로 돌아오셔서 '정리대신整理大臣 채제공蔡濟恭의 시詩에 차운次韻하며' 시를 지으셨다.

놀라 허둥지둥하고 또 다시 사모하여라
보인 듯 들린 듯하여 차마 못 돌아가겠네.
우뚱하여라 높은 산은 하늘이 내린 집이요
어슴프레 원묘에선 달마다 의관을 내온 듯
화려한 경치 1천 산은 포홀이 늘었는 듯
금성 탕지 요새는 경기 좌우의 으뜸이로다.
패릉駭陵을 달려갔다 와서 또 뜻한 것이 있어
육마의 어가를 성황당에 잠시 멈추었노라.

장락당長樂堂 봉수당의 남쪽에 있다. 서쪽으로 당기어 서로 연하였으며, 동향이다. 갑인정조 18, 1794년에 세웠으며 어서御書 편액扁額이 있다. 을묘정조 19, 1795년 거동 때 혜경궁의 대차大次로 삼았다. 정당正堂이 7랑에 13칸이니, 온돌이 8칸, 북쪽으로 2칸은 봉수당으로 통하고, 동향과 남쪽 3면으로 퇴가 있으며, 서면은 평난간平欄干이 있고, 위에는 분합을 달았다. 온돌의 북으로는 미현眉軒이 있어 굽어서 봉수당 서쪽퇴와 통한다. 서남면의 퇴기둥을 따라 연하여 각도閣道 3칸을 세워 굽어서 복내당福內堂 북쪽 온돌의 북쪽으로 통한다. 미현 후면 행각은 봉수당의 서편 행각으로부터 연하여 9칸을 세우니, 남쪽으로는 복내당의 서편 별당別堂의 서북 모퉁이와 연하였다.

경룡관景龍館 장락당 앞에 있으니, 널판을 깔아 다락당 만들고 아래는 3칸의 널문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지락문至樂門이다. 갑인정조 18, 1794년에 세웠다.

복내당福內堂 행궁의 내당으로 동향이다. 기유정조 13, 1789년에 세우고 갑인정조 18, 1794년에 증축하였으며, 어서御書 편액이 있다. 정당이 오랑五椽에 18칸이다(기유정조 13, 1789년에 세웠다). 북쪽으로 온돌이 6칸(갑인정조 18, 1794년에 세웠다), 북쪽으로 미현眉軒이 있으며, 굽은 길이 장락당 서남각도와 통한다. 부엌이 2칸, 남쪽으로 온돌이 2칸에 남쪽으로 퇴가 있다. 부엌 1칸 반, 대청 4칸 반에는 분합을 달았으며 앞퇴가 있다. 그 서편에 또한 미현을 부설하였다. 북쪽 온돌 서편에 연하여 8칸을 세우며 아울러 퇴가 있으니 이것이 서별당西別堂이다. 별당의 북쪽으로 미현이 있으며, 구부러 장락당의 남각도南閣道의 서편 미현과 통한다. 서북으로 장락당 뒤 행각의 남단과 연하며 인하여 남쪽으로 꺾어 6칸, 또 동쪽으로 꺾어 2칸이다. 제2칸의 남쪽에 붙이어 또 세로 2칸이 있으니 이것이 서행각西行閣이다. 여기에서 또 연하여 동쪽으로 남행각南行閣 6칸을 지었으며,

그 동편에 연하여 4칸을 세우고 또 북으로 꺾이어 3칸은 중행각中行閣이다. 그 북단을 연하여 또 5칸을 세우니 이것이 동행각東行閣이다. 북쪽 온돌의 부엌과 연하며 또 중행각의 동남 모퉁이에 붙이어 동쪽으로 5칸을 세워 그 동단東端을 연하여 가로로 4칸을 세우니 이것이 외행각外行閣이다.

유여택 維與宅 북내당 동행각 □□□에 있다. 경술정조 14, 1790년에 세우고 갑인정조 18, 1794년과 병진정조 20, 1796년에 증축하였다. 처음 이름은 은약헌 隱若軒인데, 을묘정조 19, 1795년에 편액을 고치도록 명하였다. 경신정조 24, 1800년에 정조께서 승하하신 다음 원소園所 어저실에 모신 어진御眞과 주합루 宙合樓에 모신 대본大本 일체를 여기에 봉안하였다가, 순조 신유순조 1, 1801년에 화령전 華寧殿으로 옮겨 모셨다. 거동할 때면 소차小次로 삼았으며, 평상시는 유수留守가 또한 거처하였다. 정당이 5량에 9칸 반이고, 북온돌이 4칸 반이며 동쪽 면 제2칸에는 퇴에다가 분합分闈을 달았다. 마루가 3칸, 3면에 분합을 달았으며 앞퇴가 있다. 제1칸 앞퇴에는 인하여 공신루 拱宸樓 1칸을 세웠으며 온돌의 북쪽으로 붙여 지은 건물 2칸이 있다. 정당 후면에서 기와를 연하여 서편으로 서부사 西附舍 5칸을 지었으며, 청廳의 서남 모퉁이에서부터 서부사의 제4칸에다 구부러미헌을 만들되 북으로 서편 처마에 붙여 뒷마루를 붙이었다. 구부러져 돌아서 서쪽으로 연하여 각도關道 5칸(갑인(정조 18, 1794)년 세웠다)을 지어 구부러서 경룡관 景龍館의 남각도와 통하니 실은 서부사의 북쪽퇴이다. 또 북부사의 북쪽으로 곧게 봉수당의 남행각과 연하여 북행각 12칸을 세웠다. 동으로 그 제2칸은 북으로 중앙문 中陽門의 남쪽 익랑 翼廊 남단과 연하고, 그 동단東端은 곧장 정리소 整理所 서부사의 서편 정당의 남쪽 뜰 가장자리와 연결하며, 서쪽으로는 북내당 바깥 행각과 연해져 있다. 동남 모서리에는 5량에 22칸 반을 세우고, 인하여 북으로 꺾이어 동행각 東行閣 13칸을 세우니 북으로 북행각 北行閣의 동남 모퉁이와 연하였다.

공신루 拱宸樓 바로 유여택의 제1칸 앞퇴이다. 1칸이다(유여택에서 밝혔다).

낙남헌 洛南軒 옛 득중정 得中亭의 터이니 장남헌 壯南軒의 북쪽에 있다. 좌향은 북향이다. 갑인정조 18, 1794년에 세웠다. 정종 을묘정조 19, 1795년 거동 때 친림 親臨하여 양로연 養老宴을 이곳에서 행하였다. 정칸이 7량에 14칸 반이고, 기둥 안팎으로 널판을 깔았다. 동서남 3면으로 분합을 달고 분합 밖으로 남쪽 퇴에는 평난간을 설치하였다. 일전하여 꺾여서 남쪽으로 꼬부라져 노래당 老來堂 동쪽 퇴와 통하며, 또 정칸의 서남 모퉁이는 노래당의 마루 북쪽과 연한다. 단청을 칠하였으며, 동쪽 뜰의 경계 남쪽은 봉수당 북행각과 접한다. 북쪽 모서리에 행각 17칸을 세웠으니, 북향으로 동으로는 퇴였다. 서북 11칸은 모두 퇴가 있으며, 동북으로 우화관 于華觀의 남쪽 담과 연결하며 또 북쪽 담에 문을 설치하여 화령전 華寧殿과 통한다.

정조께서 시를 직접 지으셨다. 낙남헌 洛南軒에서 양로연을 베푸시니 70세에서 61세까지의 노인이 참여하였다. 배拜는 일좌재지 一坐再至¹⁵⁾의 예禮를 사용하였다. 여러 노인들이 장차 자리에 나아갈 적에 임금은 여러 노인을 위하여 일어났다. 이미 당에 올라가서 술이 세 순배 들자 임금

께서 지은 시를 여러 노인들이 화답하기를 구하셨다.

鶴髮鳩筇簇浚前 지팡이에 학발 노인들 앞뒤로 모였어라
海東和氣洛南筵 바다 동쪽 낙남 연회에 화기가 넘치누나.
願將群老期頤壽 바라보니 노인들 백 세의 장수를 가지고
拜獻慈言萬萬年 우리 자궁께 만만년을 절하고 바쳐 주오.”

노래당老來堂 낙남헌 서쪽 1칸과 연하니 남으로 꺾여 동향하였다. 갑인정조 18, 1794년에 세웠다. 5량에 7칸 반이다. 온돌이 3칸, 온돌의 북쪽으로 마루 1칸이 있다. 북으로 낙남헌의 북쪽과 연하며 또 동으로 향한 툃마루에는 하엽의 평간간을 들렀다. 북쪽은 굽게 낙남헌 남쪽 퇴와 통하고, 남쪽은 곧장 득중정得中亭과 통하며 동쪽으로 붙인 마루에는 단청을 칠하였다. 정종 을묘정조 19, 1795년 거동 때에 정조께서 ‘노래당 구점¹⁵⁾’ 시를 직접 지으셨다.

老來堂裡好開顏 노래당 안에는 부모의 웃음짓기가 좋구나
苑樹重扁未老閑 꽃과 나무의 편액은 미로한未老閑이로다.
恒居不敢言稱老 항상 살며 감히 늙음을 일컫지 못함은
竅比葉翁尚衣班 간절히 노래자가 색옷 입기를 숭상함에 비길세라”

득중정得中亭 노래당 남쪽과 연하여 서쪽으로 꺾여 북향하였다. 갑인정조 18, 1794년에 세웠다. 전에는 지금의 낙남헌洛南軒 터에 있었다. 정종 경술정조 14, 1790년에 임금이 활을 쏘아 연달아 사중四中을 하시고 득중정得中亭으로 편액할 것을 명하였다. 옮겨 세운 뒤에도 그 옛 이름을 그대로 두었으며, 어서御書 편액이 있다. 을묘정조 19, 1795년과 정사정조 21, 1797년 거동하셨을 때 이곳에서 활쏘기를 하였다. 정당이 5량에 6칸이다. 서쪽으로 온돌이 2칸, 마루가 2칸, 동남으로 분합을 달았고, 남으로는 툃마루가 있다. 마루 제2칸은 북으로 노래당의 부엌 남쪽과 연하고, 그 제1칸은 온돌이다. 북면北面한 처마 안에는 작은 퇴가 있고, 난간을 세우고 널문을 받치었다. 동각의 동편 2척 아래에 마루 2칸을 만들고 남쪽으로 분합을 붙였다. 또 동쪽 온돌이 3칸이니, 이제는 수리소修理所가 되었다. 그 남쪽 퇴와 굽은 퇴는 봉수당 북각도北閣道이다. 또 온돌의 서편에 3칸을 붙이어 그 제1칸을 연하여 남으로 꺾여 서행각 4칸을 지으니, 남으로 봉수당奉壽堂의 북서행각北西行閣 서북 모퉁이로 연하였다. 들 북편에 어사대御史臺가 있다.

미로한정未老閑亭 후원 서편 담장 안에 있다. 경술정조 14, 1790에 세웠다. 6면 1칸으로 그 동면만을 비위

15) 무릎을 한 번 꿇고 머리만 두 번 조아리는 간단 한 배례.

놓고 5면은 하엽 난간을 마련해서 단청을 칠했으며, 서편 담장에 작은 문을 설치하였다.

정리소 整理所 유여택 維與宅의 동편에 있다. 남향이다. 병진정조 20, 1796년에 세웠다.

비장청 裨將廳 정리소 整理所의 동편에 있다. 남향이다. 기유정조 13, 1789년에 세웠다.

집사청 執事廳 좌익문 左翼門 밖 동북 담장 안에 있다. 남향이다. 기유정조 13, 1789년에 세웠다.

서리청 書吏廳 비장청의 동편에 있다. 남향이다. 병진정조 20, 1796년에 세웠다.

중앙문 中陽門 봉수당의 앞에 있다. 이것이 내삼문 內三門이다.

좌익문 左翼門 중앙문의 앞에 있다. 이것이 중삼문 中三門이다.

신풍루 新豐樓 좌익문의 앞에 있다. 널판을 깔아 다락을 만들고 아래에 3문은 널문으로 설치하였다. 이것이 외삼문 外三門이다. 경술정조 14, 1790년에 세우고 갑인정조 18, 1794년에 증건 增建하였다. 처음 이름은 진남루 鎭南樓인데 을묘정조 19, 1795년에 고쳐 편액할 것을 명하였다. 임금께서 하교하셔서 진남루를 신풍 新豐으로 고치도록 한 것은 대개 한 漢나라의 풍패 豐沛와 같은 생각에서 붙인 것이라고 하였다. 같은 해 거동 때 친람하시어 본부 사민 四民에게 쌀과 소금을 여기에서 하사하였다. 누樓 앞으로 돌다리를 새로 설치하였다.

임진고종 29, 1892년 거동 때 돌아가시는 길에 말을 신풍루 아래 멈추시니 대신들이 문안을 드렸다. 임금께서 유희인 俞好仁의 조령시 鳥嶺詩로 응하시니 대신들이 그 뜻을 따라 한 수의 시를 이루었다. 들으시고 화답하시니

“新豐樓下路透迤 신풍루 아래 길은 구불구불한데
 爲誦南來北望詩 남녘에서 와 북녘 바라보는 시를 외우려 했던가.
 長樂鐘聲知不遠 장락당 長樂堂의 종소리 멀지 아니함을 알겠으나
 口堪回首寢園辭 어찌 견디어 머리를 돌이켜 침원 寢園을 하직하리.”

관해 官廨

객사 客舍 행궁의 북쪽에 있다. 정종 기유정조 13, 1789년에 건립하였다.

우화관 于華觀 남향이다. 처음 이름은 팔달관 八達館인데, 후에 왕명으로 개명하였다. 정간 正間은 7량에 24칸이며, 벽돌 대청이 6칸에 분합과 퇴를 달고 벽돌을 깔았다. 동으로 온돌이 2칸에 마루가 7칸이고, 서쪽으로 온돌 2칸에 마루가 5칸 반이며, 단청을 칠하였다.¹⁶⁾

내삼문 內三門 우화관의 앞에 있다. 3칸으로 단청을 칠했으며, 동익랑 東翼廊이 3칸, 서익랑 西翼廊이 2칸,

16) 건물 규모는 24칸이라 하였는데, 칸 수를 더해보면 22칸 반이다.

문안으로 서변西邊 행각行閣이 4칸이다.

중삼문中三門 내삼문의 앞에 있으며, 삼문三門은 단청을 칠하였다.

중약문重鑰門 우화관의 남쪽 가까이 있으며 동향이다. 편액은 예전에 중삼문中三門에 있던 것을 이제는 이곳에 옮겨 달았다. 정종 갑인정조 18, 1794년에 세웠다. 삼문은 단청을 칠하였다.

강무당講武堂 낙남헌洛南軒의 북쪽에 있으니, 서쪽으로 팔달산 왼쪽 기슭에 가까우며 동향이다. 기유정조 13, 1789년에 세우고 갑인정조 18, 1794년에 증축하였다. 대청이 7량에 14칸이다. 서남북 3면은 분합을 달았고 서남모서리에 부사附舍 3칸이 있으며, 마루 서북 모서리에 작은 문이 있고, 뒤로 서·남·북의 행각 26칸이 있다.

남군영南軍營 신평루新豐樓 밖 남쪽 가에 있다. 기유정조 13, 1789년에 세웠다.

북군영北軍營 신평루 밖 북쪽 가에 있다. 기유정조 13, 1789년에 세웠다.

이아貳衙 행궁의 북쪽에서 동편으로 가까이 있으니, 계축정조 17, 1793년에 판관判官을 설치한 뒤에 세웠다.

화청관華淸館 남향으로 어서御書 편액이 있으니 이곳이 동헌東軒이다. 정당正堂이 10칸이다. 서편 온돌이 3칸이며, 온돌 서편에는 다락 1칸이 있고 다락 남쪽으로 반칸은 서남으로 분합과 층마루를 설치하고 동·남·북 3면은 하엽 난간을 마련하였다. 북부사北附舍가 6칸 반, 서부사西附舍가 5칸이다. 남쪽으로 꺾어 서랑西廊이 9칸이고, 또 동랑東廊이 4칸(루상고樓上廡이다)이며, 내삼문內三門은 화청관 앞에 있으니 3칸은 단청을 칠하였다. 동익랑東翼廊이 5칸, 서익랑西翼廊이 6칸이다.

축이당祝釐堂¹⁷⁾ 화청관의 북편에 있으며 어서御書 편액이 있다. 이것이 내아內衙가 된다. 정당正堂은 5량에 15칸이다. 서쪽 온돌이 3칸, 부엌이 3칸, 동쪽 온돌이 2칸, 부엌이 1칸, 마루가 4칸에 분합과 앞퇴가 있다. 동쪽 행각 1칸, 마루 남쪽으로 행각이 6칸, 서쪽 행각이 2칸, 바깥행랑이 8칸이다. 서리청書吏廳 내삼문內三門 밖 서쪽으로 가까이 있으니, 5량에 14칸이다.

외삼문外三門 내삼문 앞에 있으며, 현판에 화성통판아문華城通判衙門이라고 썼다. 3칸은 단청을 칠했으며 서익랑西翼廊이 1칸이니 참고이다.

수첩청守堞廳 외삼문의 동편에 있다.

중영中營 십자거리 동북쪽에 있다. 무오정조 22, 1798년에 세웠다. 지금은 지방영地方營이 되었다.

분봉상시分奉常寺 행궁의 남쪽에 있다. 정종 계축정조 17, 1793년에 세웠다.¹⁸⁾ 능·원·전陵·園·殿의 제물을 봉진封進하는 곳이다.

17) 본문에는 중간 글씨로 기록되어 있으나 문맥상 큰 글씨로 쓰여 져야 할 곳이므로 서리청, 외삼문, 수첩청과 함께 바로 잡는다.

18) 1793년에 설치한 외별고를 말한다. 외별고는 1801년 분봉상시로 격상되었다.

단묘壇廟

사직단社稷壇 정종 기유정조 13, 1789년 읍을 옮길 때 처음으로 팔달산 서쪽 기슭에 설치하였다. 성역城役 때 돌을 뜨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을묘정조 19, 1795년에 유수留守 조심태趙心泰가 장청狀請하여 부府 북쪽 2리쯤에 있는 광고산 서편 기슭으로 옮겨 세웠다.

향교鄉校 을유정조 13, 1789년에 부의 남쪽 3리쯤에 있는 팔달산의 남쪽으로 옮겨 세웠다.

대성전大成殿 남향이다. 7량에 20칸인데, 전殿 안이 17칸 반이다. 단청을 칠하였다.

동·서무東西廡 대성전 앞 좌우에 있으며 각기 4칸 반이다. 단청을 칠하였다.

내신문內神門 대성전 앞에 3칸이 있으며 단청을 칠하였다. 또 문의 동편에 작은 문 한 곳이 있다.

전사청典祀廳 동재東齋의 동편에 있다. 18칸이다.

명륜당明倫堂 내신문 앞에 있으니, 북향이다. 7량에 10칸이다.

동·서재東西齋 명륜당 좌우로 있으니, 각기 9칸이다.

외신문外神門 명륜당 남쪽에 있으니, 3칸이다. 단청을 칠하였다. 문 밖에 홍살문紅箭門이 있으며, 하마 比下馬碑가 세워져 있다.

여단厲壇 을유정조 13, 1789년에 터를 정하고 신해정조 15, 1791년에 역사를 마쳤다.

단壇 부의 북쪽으로 5리 거리에 있다.

신실神室 우화관于華觀의 동편에 있다. 신묘순조 31, 1831년에 중수하였다. 3칸이며 네모난 담을 두르고 앞에 작은 문이 설치되었다.

사원祠院

괘리사關里祠 살펴보면 공자孔子의 영정影幀이 광덕면廣德面에 있었는데, 정종 계축정조 17, 1793년에 임금의 특명으로 남쪽 40리 거리 초평면楚坪面으로 옮겨 세웠다. 어서御書로 편액扁額을 내린 것이 있다. 신미고종 8, 1871년에 훼손되었고, 영정은 향교 대성전大成殿에 봉안되었다.

성신사城神祠 팔달산 오른편 기슭에 있다. 정종 병진정조 20, 1796년 성역城役을 마치고 특교特敎로 세웠으며, 화성 성신城神의 신주를 모시게 하고 매년 향과 축을 내리셨다.

성황사城隍祠 부의 북쪽으로 3리 지점에 있으니, 동향이다. 신해정조 15, 1791년에 세웠다. 3칸이다.

명고서원明阜書院 부의 서쪽으로 20리 송동면松洞面에 있었다. 포저浦渚 조익趙翼이 주향이며 포저의 아들 송곡松谷 조복양趙復陽과 송곡의 아들 오재汪齋 조지겸趙持謙을 배향하였다. 현종 경자현종 1, 1660년에 세우고 기유경종 5, 1729년에 사액하였다. 신미고종 8, 1871년에 훼손되었다.

매곡서원梅谷書院 부의 서쪽으로 20리 매곡면梅谷面에 있었다.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을 독향한다. 숙종 을해숙종 21, 1695년에 세우고 사액賜額하였으며 신미고종 8, 1871년에 훼손되었다.

청해백사靑海伯祠 부의 남쪽으로 40리 초평면楚坪面에 있으니 바로 청해백靑海伯 이지란李之蘭의 사당이다. 전에는 도상圖像이 있었으나 영조 병인영조 22, 1746년에 내입內入 : 궁궐로 들여감하였다. 정종 병진정조 20, 1796년에 재물을 내려서 고쳐 세우고 세거世居하는 자손으로 하여금 수호를 맡도록 하였다.

형승形勝

병풍바위屏巖 부내 팔달산 아래에 있으니 망운암望雲岩이라 새겼다. 바위는 3층이고, 좌우로 병풍같이 둘러싸여 아래는 약물샘이 있다.

관어동觀魚洞 부에서 북쪽으로 10리 북부北部 광교산光教山에 있는데, 동洞 가운데 폭포가 볼 만하다. 부 중사람의 목욕장소이자 기도하는 곳이기도 하다.

금당바위金堂巖 부의 서쪽으로 30리 거리 삼봉면三峯面에 있다. 바위가 용의 모습과 쇠보습 모양이 있으며, 위에는 수십 사람이 앉을 만하다.

망운대望雲臺 부의 남쪽으로 90리 광덕면廣德面에 있다. 앞으로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다.

누대樓臺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 성곽 조를 볼 것. 동북각루東北角樓이다.

각건대角巾臺 성곽 조를 볼 것. 동북포루東北鋪樓이다.

화양루華陽樓 성곽 조를 볼 것. 서남각루西南角樓이다.

미로한정未老閣亭 행궁 조를 볼 것.

영화정迎華亭 장안문 밖으로 3리쯤 만석거萬石渠 남쪽 언덕에 있다. 정종 을묘정조 19, 1795년에 세우고 병진정조 20, 1796년 주필駐蹕 때 편액扁額을 명하였다.

항미정抗眉亭 화서문 밖으로 5리쯤 축만제祝萬堤 서쪽 언덕 위에 있다. 순조 신묘순조 31, 1831년에 세웠다.

지당池塘

남지南池 팔달문 안 서쪽 가장자리 성벽 아래에 있다. 정종 갑인정조 18, 1794년에 뚫다.

북지北池 화서문 안 북쪽 가장자리 성벽 아래에 있다. 정종 갑인정조 18, 1794년에 뚫다.

용연龍淵 북성北城 밖 북부北部에 있다. 옛날에 판 연조年條는 미상이다. 못 위의 성 부리에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이 있는데, 정자아래 바위를 용두龍頭라고 일컫는다. 낚시터가 될 만하며 못머리에 돌로 용의 머리를 조각하여 물이 많으면 여기에서 화홍문華虹門 밖으로 토해낸다.

만석거萬石渠 제언堤堰 조를 볼 것. 만석거제이다.

축만제祝萬堤 제언 조를 볼 것. 축만제이다.

곤신제坤申堤 원소 홍살문 밖 곤신방坤申方에 있으니 원소의 생방生方이라고 한다. 정종 신해정조 15, 1791년에 못을 파도록 명하고 돌로 쌓았다. 원둘레가 400척이고 깊이는 3척이다.

제일지第一池 원소 어재실御齋室의 서편에 있다. 옛날에 뚫던 연못을 정종 신해정조 15, 1791년 돌로 쌓았다.

제이지第二池 위와 같다.

제삼지第三池 위와 같다.

오지柞池 부에서 남쪽으로 30리 남곡면南谷面에 있으니, 세상에서는 방하지方下池라고 일컫는다. 옛날에 뚫다.

각창各倉

기사영조 25, 1749년에 사창社會을 처음 설치한 후 각 창倉을 폐지하였으나 환곡還穀은 각기 해당 면에 따라 사수社首: 사창의 책임자가 오로지 환곡의 출입을 관리하였다.

곡총穀總 곡식의 총계가 도합 4,151석石 11두斗 1승升이다. 쌀이 444석石 8두斗 7승升이고, 콩이 756석石 4두斗 7승升이며, 보리가 1,643석 4두 5승이다.

시장市場

남문의장南門外場 남문 밖에 있으니, 4일과 9일에 장이 선다.

오산장 烏山場 남쪽으로 40리 청호면 淸湖面에 있으니, 3일과 8일에 장이 선다.

발안장 發安場 남쪽으로 50리 공향면 貢鄕面에 있으니, 5일과 10일에 장이 선다.

안중장 安仲場 남쪽으로 80리 오정면 梧井面에 있으니, 1일과 6일에 장이 선다.

사찰寺刹

용주사 龍珠寺 부에서 남쪽으로 30리 용복면 龍伏面 화산 花山에 있으니, 정종 을유정조 13, 1789년 현릉원 顯陵園 천봉 遷奉 후에 선침 仙巖을 보호하고 재수 齋需에 이바지하기 위해 경술정조 14, 1790년에 창건하였다. 호성전 護聖殿(제각 祭閣이다) 6칸, 대웅보전 大雄寶殿(법당 法堂이다) 9칸, 극락대원전 極樂大願殿(로전 爐殿이다) 12칸, 시방칠등각 十方七燈閣(칠성각이다) 6칸, 만수리실 曼殊利室(선당 禪堂이다) 39칸, 나유타 羅由他窠(승당 僧堂이다) 39칸, 천보루 天保樓 15칸, 좌·우종루 左右鐘樓 4칸, 또 문 9칸, 외문 3칸, 좌·우익랑 左右翼廊 3칸, 창고 8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총섭승 總攝僧 1인, 소임승 所任僧 30인, 위전 位田 53섬지기, 답전 畓田 19섬 17마지기, 또 불량전 佛糧田이 47섬 6마지기, 논 135섬 5말 3되지기이다.

봉녕사 奉寧寺 남부 동문 밖 5리에 있다.

청련암 靑蓮庵 광교산 아래 3리에 있다.

홍범사 洪範寺 삼봉면 三奉面에 있으니 20리이다.

보적사 寶積寺 산성 山城에 있으니 30리이다.

만의사 萬儀寺 동북면 東北面에 있으니 40리이다.

신복사 新福寺 광덕면 廣德面에 있으니 90리이다.

수도사 修道寺 청룡면 靑龍面에 있으니 80리이다.

봉래사 蓬萊寺 청룡면에 있으니 70리이다.

성씨姓氏

이씨 李氏 여주 驪州·경주 慶州·연안 延安·홍양 興陽이 있다.

김씨 金氏 광산 光山·김해 金海·해풍 海豊이 있다.

최씨 崔氏 수성 隨城·전주 全州가 있다.

박씨 朴氏 반남 津南·밀양 密陽이 있다.

조씨 趙氏 풍양 豊壤·한양 漢陽이 있다.

정씨鄭氏 연일延日이 있다.
 윤씨尹氏 파평波平·해남海南이 있다.
 홍씨洪氏 남양南陽·풍산豊山이 있다.
 서씨徐氏 대구大邱가 있다.
 조씨曹氏 창녕昌寧이 있다.
 류씨柳氏 문화文化가 있다.
 임씨林氏 나주羅州가 있다.
 채씨蔡氏 평강平康이 있다.
 임씨任氏 풍천豊川이 있다.
 엄씨嚴氏 영월寧越이 있다.
 공씨孔氏 곡부曲阜가 있다.
 안씨安氏 순흥順興이 있다.
 차씨車氏 수원·연안延安이 있다.
 나씨羅氏 나주羅州가 있다.
 차씨車氏 고령高靈이 있다.

인물人物

최자성崔滋盛 고려 때 사람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중서시랑中書侍郞·평장사平章事를 지냈다. 여러 번 상서上書를 올려 관직에서 물러났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최영규崔永奎 신라 경순왕의 후손으로 고려 현종의 외손이 된다. 수성백隋城伯에 봉해지고 최씨崔氏성을 하사받아 수원최씨水原崔氏의 비조鼻祖가 되었다.

공서린孔瑞麟 본조本朝 조선 사람이다(이하 모두 본조인이다). 호는 휴암鶴巖이다. 공자의 후손이며 기묘명현己卯名賢이다. 관직은 대사헌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최 희崔 禧 개국공신 평도공平度公 유경有慶의 6세손으로 명종조明宗朝에 진사로 급제하였다. 선조 계사선조 26, 1593년 성영격成泳檄이 광주부를 임시로 맡고 있을 때 선정릉宣靖陵이 도적을 맞는 변을 당하였다. 공씨가 지일砥諷하여 통곡하고, 봉안 수직하며 곧 달려가 보고하니 임금께서 칭찬하였으며, 뒤에 영의정을 추증하였다.

최천건崔天健 증贈 영의정 최희(위를 볼 것)의 아들이다. 호는 분음汾陰이며 21세 때 진사 급제하였다. 선조 임진왜란 때는 전기랑前騎郞으로서 임시 본부윤本府尹으로 차출되니 공무가 산더미처럼 쌓인 것을 하루아침에 처리하는 데 막힘이 없었다. 사람들이 최희는 아들을 잘 두었다고 모두 부러

워하였다. 진주변무사陳泰辨誣使로 두 차례 명나라에 왕래하였다. 인조 임금께서 칭찬하며 조신朝臣 중에서 그를 따를 자가 없다고 하였다. 관직은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유 계俞 榮 호는 시남市南이다. 사마시司馬試 양장兩場: 진사과와 생원과에 합격하고 문과에 등과하였다. 인조 병자인조 14, 1636년에 병자호란 때 척화斥和하였으며, 효종조에서는 인조의 묘호廟號를 둘러싸고 다투었다. 파직한 지 10년에 다시 일어섰다가 폐하였다. 관직은 이조참판에 이르렀다.

임지제任之梯 효우孝友의 성품을 타고 났으며 학문이 정밀하고 깊으며 지조가 굳고 조출하여 문지聞知들어서 알. 남들이 알아줌을 바래지 아니했다. 만년에 추천되었으나 깎이어 왕자 사부師傅에 보해지니 나아가지 아니하고 졸卒하였다.

일찍이 시를 지어 읊기를,

腔裡有心家有主 창자 속에 마음이 있으나 집에는 주인이 있고
念中生慾鏡生塵 생각 가운데 욕심이 생기니 거울에 먼지가 생긴다.

고 하였다.

장세걸張世傑 하루에 한 말 쌀밥을 먹으면서도 문과 무武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인근 마을에서 이르기 '쌀주머니'라고 비웃었다. 늦게 깨달아 활쏘기와 말타기를 익혔다. 반년이 못가서 무과에 발탁되어 관직이 병사兵使에 이르렀다.

유몽룡劉夢龍 옥천부원군玉川府院君 창敵의 후손이고,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홍서弘緒의 아들이다. 임진왜란 때 진도군수로 힘껏 싸우다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면서도 적의 세력을 크게 꺾었으므로 선무 1등 공훈에 참여하였다.

유찬광劉讚光 선무공신 몽룡(위를 볼 것)의 아들이다. 영국훈率國勳에 참여하였으며, 수사水使를 지내고 병조참판에 증직贈職되었다.

이지언李祗言 성종 임금의 5세손으로 무과에 올랐다. 관직이 호조좌랑으로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전몰하여 훈련원도정訓練院都正의 증직을 받았다.

최덕인崔德仁 평도공平度公 유경有慶의 7세손으로 무과에 올랐다. 인조 무인인조 16, 1638년 훈련원참정으로 군량을 싣고 북으로 가다가 영유永柔에 이르러 배가 파손되어 사망하였다. 임금께서 예관禮官을 파견하여 제사를 지내주었다.

이대근李大根 청해백靑海伯 지란芝蘭의 7세손이다. 관직은 부사府使를 지내고 참판을 증직받았으며, 일곱 아들이 모두 무과에 올랐다.

원승선元承善 세 차례나 임금을 호종扈從하였으며, 병자호란丙子胡亂 때는 자원하여 출전하여 적을 벤 것이 자못 많았다. 인조께서 크게 기특히 여겨 술을 하사하시고 동지중추부사로 승배陞拜하였다. 뒤에 한성판윤漢城判尹을 증직하였다.

권정길 權正吉 병자호란 때 춘천영장 春川營將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험한 곳을 거점으로 적병을 대파하였다. 공조판서에 증직되었다.

최응일 崔應一 무과에 오른 뒤 강동현감 江東縣監으로 진무 振武 공신에 참여하였다.

정 탁 鄭 倬 포은 圃隱 문충공 文忠公 몽주 夢周의 8세손으로 무과에 올라 관직이 경력에 이르렀다.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임금을 호종하였다가 전몰하였다.

유세웅 柳世壻 중종조 때 수사 水使 벼슬에 있던 중 당시 해적이 황해도를 침략해 오자 임금께서 특별히 파견하여 토벌케 하였다.

최정현 崔廷顯 무과에 올라 경력 經歷을 지내던 중 소현세자 昭顯世子가 심양 瀋陽에 인질로 갈 때 무재 武才로 선발되어 세자익위 世子翊衛가 되었다.

정한기 鄭漢驥 인조 정축인조 15, 1637년에 용력 勇力으로 선발되어 박형 朴澗 등과 더불어 8장사에 침입되어 소현세자를 배종 陪從하여 심양으로 들어갔다 돌아왔다. 관직이 충청수사 忠淸水使에 이르렀다. 소년시절에 일용면 一用面(지금의 일용면 日用面이다) 송죽리 松竹里에서 활쏘기를 하였다. 이곳 사정 射亭 앞에 남떠리지가 있으니 높이가 3,4장이 되었다. 정 鄭이 언덕머리에서 몸을 날려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하니, 주민들이 그 언덕을 '정수사 鄭水使 등신안 騰身岸: 몸을 날리던 언덕'이라고 불렀다. 일찍이 박형 朴澗·최정현 崔廷顯과 함께 유희 遊戱를 할 때 손을 돌절구 속에 넣어 주먹으로 들어올리자 최 崔는 따라 했어도 박 朴은 이를 하지 못하여 부끄럽다면서 주먹으로 돌절구 바닥을 깨어 손으로 꿰어 들어 올렸다고 한다. 세 사람이 일찍이 힘을 겨룰 때에 사방으로 한 길 되는 돌을 모두 손바닥 위에서 능란하게 움직였다. 그 둘이 아직도 서울에 있다고 한다.

이계관 李繼寬 관직은 주부 主簿에 이르렀고, 참판에 증직되었다. 아들 5형제가 모두 무과에 올랐다.

이득남 李得男 용력 勇力이 많고 활쏘기와 말 달리기를 잘해 일찍이 무과에 올라 조라포만호 照羅浦萬戶가 되었다. 죄를 범하여 목을 베이게 되자 통제사가 그 재주를 애석하게 여겨 천자궁 天字弓을 주며 쏘아보라고 하였다. 화살이 수백보 百步를 넘어 가는지라 장하게 여기고 풀어주었다. 인조 갑자 인조 2, 1624년 안현 鞍峴 싸움에서 힘을 다해 싸워 공훈 功勳에 참여하였다.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임금을 호종하였다가 출전을 자원하여 많은 오랑캐를 포획하였다. 정축인조 15, 1637년 발탁되어 흥원현감이 제배되었다가 통정대부 通政大夫에 올랐다.

김체건 金體乾 무예에 능하여 무과에 올랐다. 관직은 병사를 지냈다.

김계남 金葵男·김축남 金丑男 계남이 형이고, 축남은 그 동생으로 형제이다. 병자호란 때 모두 군사를 거느리고 남한산성으로 임금을 호종하였다. 이때 반졸 叛卒 안준길 安俊吉이 성중의 군민들을 불러내어 적에게 투항하려고 하였다. 인조 仁祖임금께서는 계남 형제에게 붙잡아 올 것을 명령하 자 즉시 나아가 잡아 목베었다.

김천용 金天龍 무과에 장원하였다. 병자호란 丙子胡亂 때 광교산 화암동 華巖洞에서 힘써 싸웠다. 이 공으로 김해부사 金海府使를 제수받았다.

김우상(金禹祥) 숨어 살면서 독실하게 공부하고 몸가짐이 고결하였으므로 후인들이 청절(淸節)의 선비라고 일컬었다.

충신(忠臣)

한명윤(韓明胤) 좌리공신(佐理功臣) 청양군(淸陽君) 치의(致義)의 5세손이다. 선조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영동현감(永東縣監)으로서 상주목사(尙州牧使)에 특배(特拜)되었다. 의병을 거느리고 적을 토벌하라는 명을 받았으나 숫적으로 열세여서 마침내 싸우다가 죽었다. 이조판서로 증직되었다(정려가 내려졌는지 여부는 자세하지 않다).

윤정준(尹廷俊) 무과에 올라 관직이 웅진현령(兪津縣令)이 되었다. 인조 갑자(인조 2, 1624년) 이괄(李适)의 난 때 적이 굴복시키고자 혀를 끊고 이를 분질러도 끝내 굴하지 않았다. 뒤에 판서를 증직하고 정문(旌門)을 내렸다.

이만만(李晩萬) 충장공(忠壯公) 남연년(南延年)의 종이다. 영종 무신(영조 4, 1728년) 청주(淸州)의 난 때 충장공이 적을 꾸짖으며 순절하니, 만만이 주검을 안고 통곡하며 적장에게 애걸하여 시체를 엄(嚴)해 북쪽 성과 밖에 거두었다. 난이 평정된 후 음성(陰城)에 장사지내고 3년 동안 곡읍(哭泣)하며 상을 마친 뒤에 돌아갔다. 정종 갑진(정조 8, 1784년)에 정문(旌門)을 내렸다.

효자(孝子)

최루백(崔樓伯) 고려 때 사람으로 본부의 향리(鄕吏)이다. 후에 과거에 올라 여러 번 벼슬을 옮겼다가 기거사인(起居舍人)과 한림학사(翰林學士)가 되었다. 그의 아버지 상저(尙義)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되었는데 이때 루백의 나이 15세였다. 그가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자 그의 어머니가 이를 말했다. 루백의 하는 말이 “아버지의 원수를 아니 갚을 수가 없다”고 하며 도끼를 메고 호랑이를 쫓아 갔다. 이때 호랑이는 이미 아버지를 다 먹어 버린 뒤 누워 있었다. 루백이 앞으로 나아가며 꾸짖는 말이 “내가 나의 아버지를 먹었으니 나는 마땅히 너를 먹으리라”고 하자, 호랑이가 꼬리를 흔들며 엎드렸다. 급히 도끼로 찍어 그 배를 가르고 아버지의 뼈를 찾아 흥범산에 장사하고 3년을 시모 살이를 하였다. 이 일이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에 실려 있고, 정려(旌門)가 내려졌다.

최세호(崔世湖) 그의 어머니가 오래도록 병을 앓자 자신의 넙적다리 살을 베어 잡숫게 하자 병이 바로 쾌차하였다. 정려가 내려졌다.

한몽송(韓夢松) 일찍이 아버지를 따라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으니 몽송이 물에 들

어가 시체를 안고 나왔다. 정려가 내려졌다.

이봉현 李奉賢 둔촌 遁村 집集의 9세손이다. 인조 병자호란 때 그 어머니가 적에게 잡히자 욕을 당하지 않는 것이 의義라면서 몸을 물에 던져 죽었다. 이때 봉현이 10세의 소년으로 대설 大雪 속에서 밤낮으로 시체를 지키느라 손과 발가락이 모두 얼어 빠졌다. 조정에서 그의 어머니에게 복호 復戶를 내리고 정려를 내렸다. 그 아들 봉현은 상소하여 정려를 어머니에게 옮겨 어머니의 절개를 드러내줄 것을 원하였다. 인조는 그 뜻을 어여삐 여겨 그 어미에게도 정려를 내렸다.

홍여석 洪汝奭 참판 인서 仁恕의 손자이다. 부모의 병이 위중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려 회생케 하였다. 뒤에 친상을 당하여서는 죽을 마시며 시묘살이를 했고, 기일 忌日을 당하면 3삭 朔 동안 소식 素食하였다. 정려가 내려졌고, 벼슬을 증직하였다.

이명귀 李明龜 종실 宗室 의원수 義源守 유함 惟咸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병들자 단지 斷指하여 피를 입으로 넘기게 하여 회생시켰다. 정려가 내려졌다.

배홍중 裴弘重 어머니의 병환에 단지 斷指 수혈하여 수壽를 50세로 연장시켰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시묘 3년을 살았으며, 병자호란 때 호병 胡兵이 그의 아버지를 찌려고 하자 홍중이 몸으로 가로막다가 죽었다. 정려가 내려졌다.

윤필명 尹必鳴 직제학 석보 碩輔의 현손이며 감사 월암 月菴 송풍형 宋豐亨의 증손이다. 그의 아버지가 죽을 때 임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약에 타서 드리자 곧 깨어났다. 상을 당하여서는 시묘 3년을 살았는데, 나라에서 그 집에 복호 復戶를 내렸다.

박재만 朴再蔓 감사 처윤 處倫의 5세손이다. 부모의 병이 위독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흘려 넣어 효험을 보았다. 백현 白軒 이경석 李景奭과 동춘 同春 송준길 宋浚吉이 효자로 조정에 천거하였다. 죽은 다음 정려가 내려졌다.

고경천 高擎天 문벌이 한미하고 또한 학문에 어두웠다. 그러나 정성과 효성을 타고 나서 겨우 6세 때 집에서 불이 나자 경천이 신주 神主를 안고 나와 불태워짐을 면하니 사람들이 모두 기특하다고 하였다(정려 旌閭와 급복 給復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아래의 한슬매도 이와 같다).

한슬매 韓瑟每 지벌이 한미했지만 효심이 독실하였다. 아버지가 두통을 앓았는데, 마침 우는 비둘기가 집안으로 들어오자 이를 잡아드리니 아버지의 병이 바로 나왔다. 또 일찍이 병이 들자 꿍과 기러기가 뜰에 내려온 것을 잡아 드리기도 하였다. 아버지가 장차 죽으려고 하자 단지 수혈하여 3일 동안 명命을 연장하기도 하였다.

윤형로 尹衡老 참봉을 지냈다. 부친 병환에 단지하여 하루나마 연명하게 하였다. 순조 갑자 順朝 甲子 4, 1804년에 지평 持平을 증직하였다.

최도문 崔道文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 正言이 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3년의 상을 마치지 못하고 죽었다. 순조 계유 順朝 癸酉 13, 1813년에 증직과 정려가 내려졌다.

최수복 崔受復 진사이니 바로 도문의 아들이다. 어머니 상을 당해 피눈물을 흘리다 마침내는 죽었다.

1813년에 증직과 정려가 내려졌다.

김성열 金性烈 어머니가 병이 들자 똥을 맛보고 단지 斷指하여 부호 扶護하였다. 할머니의 병을 간호하되 30년을 하루와 같이 하였다. 계유순조 13, 1813년에 동몽교관 童蒙敎官을 증직하였다.

송인상 宋麟祥 어머니 병에 똥을 맛보고 단지 수혈하여 몇 일동안 연명케 하였다. 순조 기묘순조 19, 1819년에 그 집에 복호 復戶를 내렸다.

최종술 崔宗述 아버지의 똥을 맛보고 상을 당해서는 슬퍼하던 끝에 병을 얻었다. 순조 기묘순조 19, 1819년에 그 집에 복호를 내렸다.

신사하 申師夏 어머니의 병에 똥을 맛보며 단지 수혈하였다. 순조 신묘순조 31, 1831년에 동몽교관을 증직하였다.

최정린 崔廷麟 아버지가 종기를 앓자 자신의 다리를 찢어 피를 내어 붙이자 바로 나았다. 순조 신묘순조 31, 1831년에 동몽교관을 증직하였다.

장용현 張龍見 아버지가 병이든지 여러 달이 되자 똥을 맛보았다. 더욱 병세가 위중해지자 세 손가락을 잘라 피를 바치어 10여 년의 수명을 연장시켰다. 순조 신묘순조 31, 1831년에 동몽교관을 증직하였다.

효부 孝婦

수성차씨 隋城車氏 정로위 定廟尉 김복량 金福良의 처이다. 선조 임진왜란 壬辰倭亂 때 그녀의 남편이 의병으로 출전하려하자 차씨는 그 남편에게 청하여 등을 물들여 검게 만들었다. 남편이 전사하자 물들인 흔적으로 많은 시신 가운데서 남편의 시신을 찾아내 장사하고 죽으로 3년을 지냈다. 시부모를 모시고 섬 속으로 피난 가서 효성을 다하여 봉양했다. 정려가 내려졌다(안동김씨는 정려와 급복의 연조가 자세하지 않다).

함양박씨 咸陽朴氏 출신 이규영 李奎英의 처이다. 인조 병자호란 때 그 남편은 전몰 당하고 박씨는 시부모를 모시고 황해도로 피난하던 중 적의 기병을 만나자 남편의 집 신주를 등에 지고 바다에 몸을 던져 죽었다. 정려가 내려졌다.

안동김씨 安東金氏 영장 營將 최종두 崔宗斗의 처이다. 시부모를 지극한 효성을 섬겨냈다. 그 집에 복호가 내려졌다.

윤씨 尹氏 출신 노재중 盧載重의 처이다. 시아버지가 병들자 똥을 맛보며 단지 수혈을 하였다. 계유순조 13, 1813년에 그 집에 복호를 내렸다(본관과 본적은 고증할 수 없다).

열녀烈女

밀양박씨密陽朴氏 목사 한명윤韓明胤의 처이다(충신 조를 볼 것). 선조 임진왜란 때 부처가 모두 절의節義에 죽었다. 그 사실이 『삼강행실도』에 실려 있다. 정려가 내려졌다.

함안이씨咸安李氏 첨정僉正 이자수李自晷의 처이다. 병자호란 때 며느리 박씨와 이씨, 손녀 이씨를 데리고 섬으로 피난했다가 적병의 욕을 피하여 고부姑婦·조손祖孫 네 여인이 모두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모두에게 정려가 내려졌다.

나주박씨羅州朴氏 이정견李廷堅의 처이니, 바로 함안이씨의 며느리이다(위를 볼 것).

용인이씨龍仁李氏 이후인李後民의 처이니, 또한 함안이씨의 며느리이다(위를 볼 것).

처자이씨處子李氏 바로 함안이씨의 손녀이다(위를 볼 것).

안산이씨案山李氏 이형부李亨敷의 처이다. 병자호란 때 열 살 난 어린이를 데리고 산중에 피신했다가 어머니와 아들이 붙잡히게 되자 물에 빠져 죽었다. 정려가 내려졌다.

충주김씨忠州金氏 박제동朴濟東의 처이다. 제동은 감사 노櫓의 증손인데, 모친이 상을 당하여 슬퍼함이 지나쳐 1년이 못되어서 마침내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의 처 김씨 또한 물 한 모금 먹지 않다가 남편이 숨지던 날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조용히 자진自盡하였다. 정려가 내려졌다.

순흥안씨順興安氏 학생 최노진崔魯鎭의 처이다. 병자호란 때 황해도로 피난했다가 적병이 가까이 오자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정려가 내려졌다.

연안이씨延安李氏 최거원崔巨源의 처이다. 그 남편이 일찍이 죽자 음식을 끊으며 4년동안 읍혈泣血하다가 마침내 목숨을 버렸다. 정려가 내려졌다.

수원최씨水原崔氏 대사간 이정립李挺立의 처이다. 그 남편이 일찍이 죽은 지 3년동안 곡기를 끊고 있다가 죽었다. 정려가 내려졌다.

홍씨洪氏 한우상韓雨商의 처이다. 남편이 죽어 장사지내는 날 약을 먹고 죽었다. 정려가 내려졌다.

밀양박씨密陽朴氏 본부本府 아전 나계술羅繼述의 처이다. 그 남편이 죽으니 유복아기가 있으므로 억지로 죽과 같은 음식을 먹더니, 아기를 실수하자 8일동안 먹지 않다가 죽었다. 정려가 내려졌다.

기계유씨杞溪俞氏 부사 박규연朴奎淵의 처이다. 그 남편이 죽자 졸곡卒哭 삼우제가 지난 뒤에 지내는 제사하는 날 약을 먹고 죽었다. 정려가 내려졌다.

고적古蹟

팔달산八達山 부부의 서쪽에 있다. 학사 이고李皐는 본관이 여주驪州인 사람으로 관직이 집현전 제학에

이르렀다. 고려 말의 정치가 어지러움을 보고 물러나 광고산光教山 남쪽 기슭 탑산塔山에서 살았다. 공양왕이 사람을 보내

“즐거운 일이 무엇이나”

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집 뒤로 조그마한 산이 들 가운데 있어 사똥팔달하는지라 올라가 사면으로 바라보아도 가리움이 없으니 이것이 가장 즐겁습니다.”

하였으니, 풍자의 뜻이 담겨 있었다. 조선왕조가 들어서면서 태조대왕 2태조 2, 1393년에 경기우도 안렴사安廉使로 여러 차례 불려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태조께서는 사는 곳을 그려 보내라고 명하여 이를 보시고 크게 칭찬하시며, 팔달산八達山이라고 명명했다고 한다.

광고산光教山 부에서 북쪽으로 10리 거리에 있으니 일명 광악光嶽이라고도 한다. 야사野史에 고려 때 산에서 기운이 하늘에 뽀침이 있었으므로 이를 부처의 혼령이라고 해서 불교를 취하여 광고光教라고 산이름을 짓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여조궁터麗朝宮墟 광고산에 있다. 『고려사촬요高麗史撮要』에 의하면 태조가 유금필兪金弼을 파견하여 견훤을 치라고 했으나, 병력이 적어 전진하지 못하였다. 왕이 친정親征하여 여산麗山에 진을 치자 유금필의 첩서捷書가 도착하여 회군할 적에 행궁을 이 산 아래 일으키고 군사들을 먹었다고 한다.

여조하창麗朝下倉 광고산에 있다. 고려 때 이곳에 창고를 설치하여 승려들의 식량을 대주었다고 한다. 그 서쪽으로 차유현車踰峴이 있다.

종루鐘樓 광고산에 있다. 옛부터 전하는 말에는 산중에 89암자를 이룩하고 이 봉우리에 다락을 이룩하여 종을 달았다고 해서 종루봉鐘樓峯이라고 일컬어졌다고 한다. 오늘에는 태봉台峯이라 일컫는다. 풍수지리 비록秘錄에 고운孤雲 최치원이 태봉에 올랐다고 한 것을 보면, 태봉이 본명이 아닌가 한다.

문암門巖 광고산에 있다. 풍수지리 비록秘錄에 ‘우리나라에 문암이 3곳 있다’고 하였다. 최고운이 3곳을 두루 편력하였으나 가장 이 바위를 사랑하여 암자를 지어 기거하였으며, 우물 밑에 구리주머니를 묻었다고 한다.

우평禹坪 광고산에 있다. 옛말에 우성위禹城尉라는 사람이 ‘뒷내後川’ 하류로부터 산을 돌아 도랑을 뚫은 것이 지금에 이르렀으니, 보漲을 ‘우성위보’라고 일컫고, 들은 ‘우성위들禹城尉井’이라고 일컫게 되었다고 한다. 갓모봉帽峯 아래 우성위의 유허지가 있으니, 우성위는 바로 백제 온조왕의 사위라고 한다.

정자산 옛 우물亭子山古井 광고산에 있다. 옛말에 백제 온조왕이 한강 남쪽에 도읍을 정하고, 또 이곳에 행전行殿: 행궁을 이룩하였다. 지금 정자산 우물을 어정御井이라고 일컫는다. 또 창고의 옛터가 있으며, 또 앞 기슭을 환자宦者 모퉁이라고 한다.

광고암 光教巖 광고산에 있다. 인조 병조호란 때 전라병사 김준용 金俊龍이 근왕 勤王의 군사를 거느리고 광고산에 도착하여 험지에 의거하여 힘써 싸웠다. 군사들이 모두 죽기를 각오한지라 청나라 군사를 공격하여 세 번 싸워 세 번 모두 격파하였다. 피가 흘러 골짜기를 넘쳤으며, 청나라 장수 1인이 홀로 높은 바위에 서서 지형을 살피자 김준용이 총수 銃手를 지휘하여 사격하니 한 방에 거꾸러뜨렸다. 청군이 크게 통곡하며 시체를 메고 돌아갔으니, 광고산의 승첩은 오늘날에도 일컬어저온다. 난리 후에 의주 통역관 한보룡 韓雨龍이 말하기를, “청나라 왕의 매부로 직질 職秩이 우리나라 방어사와 같은 것인데, 광고산 싸움에서 죽었다.”고 하였다.

망천 忘川 부에서 동북쪽으로 20리 북부 옛 광고면에 있다. ‘큰 내 大川’가 광고산으로부터 굽이쳐 흘러 내려오니 앞에는 용연 龍淵이 있고, 뒤에는 문암 門巖이 있다. 왼쪽은 선암 仙巖이고 오른쪽은 약암 藥巖이다. 학사 이고 李阜가 8학사와 함께 향상 시내 위에서 노닐며 머리도 감고 발도 씻으며 늙음을 마치도록 세상과는 서로 잊어버렸다. 그러므로 잊을 망 忘자로 이름 지은 것이다. 뒷날 중국인으로 우리나라에 온 자가 그 이름을 사모하고 살았다. 오늘날에도 망천이라고 일컬어 온다. 8학사는 바로 송산 松山 조견 趙狹과 둔촌 遁村 이집 李集이다. 그 밖의 학사들은 비록 옛 노인의 전하는 말이 있으나 문헌의 증거가 없다.

학사정 學士井 부에서 남쪽으로 탐산 아래에 있다고 했다(그 소재가 상세하지 아니하다. 조대 釣臺도 어느 곳인지 모른다). 학사 이고의 옛 집터에도 우물이 있는데, 이를 학사정이라고 한다.

조대 釣臺 부에서 남쪽으로 5리쯤 대천 가에 있다. 학사 이고가 물고기를 잡던 곳이다.

권선리 勸善里 부에서 동쪽으로 5리쯤 장주면 章洲面에 있다. 학사 이고가 매양 사람들에게 선을 권하여 이웃이 선하게 되었으므로 그 마을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건달산 큰바위 乾達山大巖 부에서 남쪽으로 30리 갈담면 葛潭面에 있다. 옛부터 기우제 祈雨祭를 지내면 영험이 있다고 한다. 강희 康熙 49 歲 49, 1710년 여름에 벼락이 쳐서 바위가 떨어지면서부터는 영험이 없어졌다고 한다.

계두산기국암 鷄頭山林局巖 부에서 남쪽으로 100리 가사면 佳士面에 있다. 봉우리에 바둑판같은 바위가 있으니, 세상에서 신선이 놀던 곳이라고 일컫는다.

독성산 고려왕릉 禿城山麗王陵 부에서 남쪽으로 30리 독성산성 禿城山城에 있다. 경진 景祜 36, 1760년에 장헌 세자가 온양 溫陽 온천에 거동할 때 산성을 역림 歷臨하여 진남루 鎭南樓에 임어하였다. 이때 본부 중군 中軍 이두환 李斗煥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무슨 고적이 있는가”

라고 물으셨다. 두환이 대답하기를,

“누 아래 긴 기슭에 하나의 큰 무덤이 있으니 옛부터 고려왕릉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였다. 세자께서 옮겨가서 살펴보고 하령 下令하여 이르기를,

“천백년 세상이 바뀐 다음에는 왕릉의 묘가 이와 같이 되기 쉬운 것이다. 산 아래의 많은 무

덤들을 파헤치지 못하도록 엄하게 신칙하여 소와 말을 방목하지 못하도록 하라.”
고 하시었다.

세마대洗馬臺 독성에 있으니 바로 임진왜란 때 도원수 권율이 말을 씻은 곳이다(산성 조를 볼 것).

등신안騰身岸 부에서 북쪽으로 7리쯤 일용면日用面 송죽리宋竹里에 있다. 인조 때 수사水使 정한기鄭漢驍가
아래로 몸을 날리던 곳이다(인물 정한기 조를 볼 것).

삼천병마골三千兵馬洞 부에서 서쪽으로 30리 삼봉면三峯面에 있다. 속칭으로 임진왜란 때 3천 병마가
매복했었다고 한다.

풍속風俗

무술武術을 좋아하고 농사짓는 데 힘쓴다. 인물들은 질박하고 꾸밈이 적다.

물산物産

소금, 소어蘇魚, 병어兵魚, 홍어紅魚, 황석수어黃石秀魚, 농어鱸魚, 진어眞魚, 민어民魚, 석어石魚, 수어秀魚,
오징어烏賊魚, 백어白魚, 황합黃蛤, 호독어好獨魚, 토화土花, 굴石花, 낙지[蛸], 해양海畔, 대하大蝦, 중하中蝦,
자하紫蝦, 청해靑蟹, 부레[魚鱗], 붕어鰻魚, 오린어烏鱗魚이다.

부세賦稅

전답田畝 **매결**每結 대동미大同米 12두, 세미稅米 5두 1승升 6홉合, 초미草米 2두 9승, 작미作米 3두 5승, 지
가미紙價米 1승 3홉, 선마가미船馬價米 1두 9승, 세태稅太 4두 6승 6홉, 결전結錢 5전이다. 을미고종
32, 1895년 승총陞總한 뒤로는 쌀과 콩을 바치지 아니하고 매결당 돈으로 25냥씩 바치기로 하였
다. 위의 결총 세전 조를 볼 것.

관직官職

유수留守 1원 문반 정2품 이상의 대신이어야 하며, 무장武將일 때는 반드시 특지에 의한다. 본래 도호

부사는 문관일 경우는 정3품, 무관武官일 경우에 종2품이다. 정종 계축정조 17, 1793년에 승격하여 유수로 삼고, 비변사제조備邊司提調·장용외사壯勇外使·행궁정리사行宮整理使를 겸하였다. 순조 신유순조 1, 1801년 화령전을 세운 후에는 또한 화령전제조를 겸임하였다. 임술순조 2, 1802년 장용내영壯勇內營을 혁파한 다음부터는 장용외사와 행궁정리사를 감하減下하고 고치어 총리사總理使를 겸하였다. 을미고종 32, 1895년에는 유수를 폐지하고 관찰사를 설치하였다.

판관判官 1원 음서蔭叙로 종5품이며 계축정조 17, 1793년에 설치하였다. 처음에는 장용외영의 종사관從事官을 겸하였다가 정사정조 21, 1797년에는 관성장管城將을 겸하였다. 신유순조 1, 1801년에는 화령전령을 겸하고 임술순조 2, 1802년에는 장용외영의 종사관을 감하하고 고치어 총리영 종사관을 겸하였다. 을미고종 32, 1895년에 폐지하고 군수를 설치하였다.

중군中軍 1원 무반의 정3품이며 처음에는 독성禿城의 수성장守城將을 겸임하였다. 정종 무오정조 22, 1798년에 고치어 외군총제外軍總制와 토포사討捕使·친군위별장親軍衛別將을 겸하고, 본부의 중군과 독성 수성장 등을 아울러 감하하였다. 독성에는 별도로 별장을 배치하였다. 순조 신유순조 1, 1801년에는 화령전 위장을 겸하였다. 임술순조 2, 1802년에는 외군총제·친군위별장을 감하하여 내리고 도로 중군을 만들었으며, 인하여 토포사를 겸하도록 하였다. 병인순조 6, 1806년에는 독성 별장을 파하고 중군이 전과 같이 독성겸 파총把總을 겸직하여 관할하게 하였다. 을미고종 32, 1895년에 폐지하였다.

찰방察訪 1원 영화도迎華道에 속한다. 문음門蔭으로 종5품이다. 본래는 양재역의 찰방이었으나 정종 병진정조 20, 1796년에 역을 옮겨 본부에 붙이고 역이름을 고쳤다. 무오정조 22, 1798년에 척후장斥候將을 겸하였다. 을미고종 32, 1895년에 폐지하였다.

수문장守門將 2원 화령전에 속한다. 무반의 종9품이다. 순조 신유순조 1, 1801년에 오사초관五司哨官으로 오래 근무한 자를 단망單望으로 추천하되, 30삭 후에는 병조에 보고하여 6품으로 올렸다. 을미고종 32, 1895년에 고치어 수직관을 두었다.

검률檢律 1원 음서로 종9품이다. 1793년에 설치했다가 을미고종 32, 1895년에 폐지하였다.

유임儒任

도유사都宥司 1원 향교 자체에서 결정해 둔다.

유사宥司 4원 향교 1원은 본부에서 1명을 차정差定하고, 궐리사闕里祠 1원은 사우 중에서 선정하되 공씨孔氏로 정해 설치한다. 서원 2원은 그 서원에서 선정하는 것이 예였으나 신미고종 8, 1871년부터 감하하여 향교에서 1원을 천거해 두었다.

장의掌議 8원 향교의 2원은 본부에서 차정하고, 궐리사 2원은 사우 중에서 공씨로 정해두며, 서원의

4원은 서원 중에서 선정하였다. 그러나 신미고종 8, 1871년부터는 이를 감하하고, 향교에 2원의 장의만을 천거해 두었다.

색장色掌 4원 향교는 1원, 서원은 2원을 각자 향교와 서원에서 선정하여 둔다. 꺾리시는 1원을 사우 중의 공씨로 선정해 두었으나 신미고종 8, 1871년부터 감하하고, 향교에만 1원을 두었다.

훈장訓長 2원 전에는 1원을 두어 이서吏胥의 자질들을 교육시켰다. 정종 무오정조 22, 1798년 특교로 1원을 늘려 두고 나누어 남·북당을 마련하여 가르치도록 하였다. 청지기廳直는 영문營門에서 차출하였다. 을미고종 32, 1895년에 폐지하였다.

향관 鄉官

좌수座首 1원 영흥에서 차출한다.

각창감관各倉監官 6원 본부에서 차출한다.

이상은 을미고종 32, 1895년에 폐지하고, 다만 향장 鄉長 1원만을 두었다.

장관 將官

중군中軍 1원 관직의 중군中軍 조를 볼 것.

종사관從事官 1원 관직의 판관 조를 볼 것.

대솔군관帶率軍官 5원 일찍이 경력이 있는 자로 보고하여 재가를 맡는다.

별효사좌우열장別驍士左右列將 각 1원

독성파총禿城把總 1원 중군이 예겸한다.

협수겸파총協守兼把總 1원

오사파총五司把總 각 1원

둔아병파총屯牙兵把總 1원

척후장斥埃將 1원

5사초관五司哨官 25원

별군관別軍官 100원

난후아병장難後牙兵將 1원

주대책응장駐除策應將 1원

돈대장墩臺將 6원

당보장_{塘報將} 12원
 복병장_{伏兵將} 12원
 둔아병초관_{屯牙兵哨官} 3원
 난후아병초관_{柵後牙兵哨官} 3원
 주대책응초관_{駐隊策應哨官} 4원
 지각관_{知設官} 10원
 교련관_{教鍊官} 8원
 기패관_{旗牌官} 40원
 별무사_{別武士} 40원
 수첩군관_{守牒軍官} 42원
 토포군관_{討捕軍官} 27원
 봉수별장_{烽隧別將} 1원
 봉수감관_{烽隧監官} 13원
 마의_{馬醫} 1인

이상은 영_營 유수_{游守}영으로 승격한 후에 설치한 것인데, 을미고종 32, 1895년에 영문을 폐지한 후로는 시행되지 않는다.

원역_{員役}

서리_{書吏} 90인
 청지기_{廳直} 50인
 사령_{使令} 40명
 관노_{官奴} 46명
 관비_{官婢} 40명

이상은 을미고종 32, 1895년 영문을 폐지한 후로 시행되지 않는다.

군총_{軍摠}

교사_{教師} 6명
 별파진_{別破陣} 50명

뇌자_{腦子} 71명

순령수_{巡令手} 74명

취고수_{吹鼓手} 78명

대기수_{大旗手} 100명

등룡수_{燈籠手} 25명

세악수_{細樂手} 58명

장막수_{帳幕手} 25명

당보수_{唐報手} 20명

아병_{牙兵} 200명

별아병_{別牙兵} 22명

좌우열장표하군_{左右列將標下軍} 12명

5사파총표하군_{五司把總標下軍} 125명

마군별효사_{馬軍別驍士} 204인

보병정초군_{步兵精抄軍} 25초 3천 175명

이상은 을미고종 32, 1895년 영문을 폐지한 후 해산되었다.

관찰부_{觀察府}

을미고종 32, 1895년 설치

관찰사 1원

주사 6원

총순_{總巡} 2원

순검_{巡檢} 30원

서기 10인

통인_{通引} 4인

사령_{使令} 15명

사용_{使傭} 8명

사동_{使童} 8명

본군本郡

군수 1원
향장_{鄕長} 1원
순교_{巡校} 6원
수서기_{首書記} 1인
서기 7인
통인 3인
사령 8명
사용_{使傭} 4명
사동_{使傭} 3명
객사지기_{客舍直} 1명
향교지기_{鄕校直} 1명

우체사_{郵遞司}

을미고종 32, 1895년 설치

사장대판_{司長代辦} 1원
주사_{主事} 1원
체전부_{遞傳夫} 12명
대청지기_{大廳直} 1명

소학교_{小學校}

무술고종 35, 1898년 설치

교원_{校員} 1원
부교원_{副校員} 1원

지방영 地方營

정유고종 34, 1897년 설치

정위 正尉 1원

부위 副尉 1원

참위 參尉 1원

부교 副校 2인

참교 參校 3인

병졸 100명

부사선생 府使先生

부사 이제민 李濟閔

만력萬曆 병자선조 9, 1576 정월 일에 부임.
그해 3월 부府의 강등으로 체직遞職.

현감 우성전 禹性傳 문반

부사 최 염 崔 謙 문반

부사 홍가신 洪可臣 문반

임진선조 25, 1592 가을에 부임.

부사 이정란 李廷爛 문반

부사 김영남 金穎男 문반

갑오선조 27, 1594 정월 초10일 부임.
병신선조 29, 1596 4월 일 체직.

부사 최 전 崔 澍 문반

병신선조 29, 1596 5월 일 부임.

부사 유영건 柳永健

부사 정 엽 鄭 晔 문반

정유선조 30, 1597 5월 일 부임.
그해 8월 일 체직.

부사 조 발 趙 撥 무반

정유선조 30, 1597 9월 일 부임.
그해 12월 일 체직.

부사 최철견 崔鐵堅 문반

정유선조 30, 1597 12월 일 부임.
무술선조 31, 1598 7월 일 체직.

부사 조정견 趙廷堅 문반

무술선조 31, 1598 7월 일 부임.

			기해선조 32, 1599 5월 일 체직.
부사 최산립 崔山立	남반	기해선조 32, 1599 5월 일 부임.	
		경자선조 33, 1600 11월 일 체직.	
부사 권경우 權慶祐	문반	경자선조 33, 1600 11월 일 부임.	
		신축선조 34, 1601 정월 일 체직.	
부사 박이장 朴而章	문반	신축선조 34, 1601 2월 일 부임.	
		그해 9월 일 체직	
부사 성윤문 成允文	무반	신축선조 34, 1601 11월 일 부임.	
		그해 12월 일 체직.	
판관 심 집 沈 誦	문반	신축선조 34, 1601 12월 일 부임.	
		임인선조 35, 1602 윤2월 일 체직.	
부사 변응성 邊應星	무반	임인선조 35, 1602 2월 일 부임, 재임.	
		갑진선조 37, 1604 7월 일 체직.	
판관 한인록 韓仁祿	문반	임인선조 35, 1602 3월 일 부임.	
		그해 3월 일 체직.	
판관 윤민일 尹民逸	문반	임인선조 35, 1602 4월 일 부임.	
		그해 12월 일 체직.	
판관 윤 황 尹 煌	문반	계묘선조 36, 1603 정월 일 부임.	
		임인선조 35, 1602 5월 일 체직.	
판관 이순민 李舜民	문반	임인선조 35, 1602 6월 일 부임.	
		그해 10월 일 체직.	
판관 이환연 李煥淵	문반	임인선조 35, 1602 10월 일 부임.	
부사 이광악 李光岳	무반	갑진선조 37, 1604 9월 일 부임.	
		을사선조 38, 1605 11월 일 체직.	
부사 이경준 李慶濬	문반	을사선조 38, 1605 12월 일 부임.	
		병오선조 39, 1606 6월 일 평안병사 平安兵使로 옮김.	
부사 이순신 李純信	문반	병오선조 39, 1606 7월 일 부임.	
		그해 12월 일 포폄에서 하등 下等을 받음.	
부사 이기빈 李箕賓	문반	정미선조 40, 1607 정월 일 부임.	
		그해 4월 통제사로 승천 陞遷 ¹⁹⁾ .	

19) 승진하여 옮겨 감.

부사 성윤문 _{成允文}	문반	정미선조 40, 1607 4월 일 부임. 그 해 6월 파론체직.
부사 이수일 _{李守一}	문반	정미선조 40, 1607 윤 6월 일 부임. 무신선조 41, 1608 6월 일 북병사 _{北兵使} 로 승천.
부사 조 경 _{趙 敬}	문반	무신선조 41, 1608 7월 일 부임. 그 달 대간의 논계를 받아 체직.
부사 정 항 _{鄭 沆}	문반	무신선조 41, 1608 8월 일 부임. 기유광해군 1, 1609 12월 일 대간의 논계를 받아 체직.
부사 김거병 _{金去病}	문반	기유광해군 1, 1609 12월 일 부임. 경술광해군 2, 1610 10월 일 나체 _{拿遞} .
부사 문희성 _{文希聖}	문반	경술광해군 2, 1610 12월 일 부임. 신해광해군 3, 1611 5월 일 파론체직.
부사 구사직 _{具思稷}	문반	신해광해군 3, 1611 6월 일 부임. 신해광해군 3, 1611 10월 일 죽음.
부사 이 충 _{李 冲}	문과	갑인광해군 6, 1614 7월 일 부임. 갑인광해군 6, 1614 12월 일 병체 _{病遞} .
부사 윤중삼 _{尹重三}	문과	을묘광해군 7, 1615 2월 일 부임. 병진광해군 8, 1616 4월 일 사임.
부사 권 진 _{權 緝}	문과	병진광해군 8, 1616 5월 일 부임, 그해 9월 적도 _{賊盜} 들을 잡아 공을 세워 특명으로 가자 _{加資} . 정사광해군 9, 1617 6월 일 함경감사로 이배 _{移拜} .
부사 최응허 _{崔應虛}	문과	정사광해군 9, 1617 7월 일 부임. 무오광해군 10, 1618 5월 일 양사 _{兩司} 가 합계 _{合啓} 한 논계로 체직.
부사 이덕부 _{李德符}	무반	계해인조 1, 1623 4월 일 부임. 그 해 10월 일 대간의 논계를 받아 체직.
부사 이경립 _{李景立}	무반	계해인조 1, 1623 11월 일 부임. 갑자인조 2, 1624 2월 일 나가 _{拿去} .
부사 이경직 _{李景稷}	문반	갑자인조 2, 1624 2월 일 부임. 그 해 8월 일 사임.
부사 이시백 _{李時白}	남반	갑자인조 2, 1624 9월 일 부임. 기사인조 7, 1629 3월 일 체직.
부사 장 신 _{張 紳}	남반	기사인조 7, 1629 3월 일 부임.

			임신인조 10, 1632 12월 일 황해감사로 이배.
부사 신경인 申景禔	무반	계유인조 11, 1633	정월 일 부임. 그 해 3월 일 대간의 논계를 받아 체직.
부사 윤 지 尹 墀	무반	계유인조 11, 1633	5월 일 부임. 을해인조 13, 1635 3월 일 이조참판으로 승제(陞除) ²⁰⁾ .
부사 유백증 俞伯憎	무반	을해인조 13, 1635	3월 일 부임. 그 해 6월 일 경상감사로 승진하여 옮겨감.
부사 구인후 具仁后	무반	을해인조 13, 1635	6월 일 부임. 정축인조 15, 1637 9월 일 친병으로 사임.
부사 신 준 申 峻	남반	정축인조 15, 1637	9월 일 부임. 무인인조 16, 1638 4월 일 병체.
부사 이 해 李 澣	남반	무인인조 16, 1638	5월 일 부임. 기묘인조 17, 1639 5월 일 병체.
부사 심기주 沈器周	남반	기묘인조 17, 1639	6월 일 부임, 정월 일 임기 만료 후 총용사(總戎使) 및 순찰사(巡察使) 장계로 연임. 갑신인조 22, 1644 정월 일 체직.
부사 조계원 趙啓遠	문반	갑신인조 22, 1644	정월 일 부임. 을유인조 23, 1645 7월 일 사퇴.
부사 구인기 具仁璽	남반	을유인조 23, 1645	8월 일 부임. 무자인조 26, 1648 정월 일 과체(瓜遞) ²¹⁾ .
부사 구 무 具 慕	무반	무자인조 26, 1648	2월 일 부임. 그 해 6월 일 통어사(統禦使)로 이배.
부사 흥진문 洪振文	무반	무자인조 26, 1648	7월 일 부임. 경인효종 1, 1650 정월 일 병으로 파직.
부사 윤창구 尹昌耆	무반	신묘효종 2, 1651	정월 일 부임. 신묘효종 2, 1651 12월 일 포폄(褒貶)에서 중등을 받음.
부사 홍중진 洪重晉	문반	신묘효종 2, 1651	12월 일 부임. 임진효종 3, 1652 7월 일 사임.
부사 신 준 申 峻	남반	임진효종 3, 1652	8월 일 부임.

20) 승진하여 제수함.

21) 임기 만료로 체직.

			계사 ^{효종 4, 1653} 10월 일 형조참판 제수.
부사 정 익 ^{鄭 邑}	무과	계사 ^{효종 4, 1653} 10월 일 부임. 그해 12월 북병사로 승진 제수.	
부사 유혁연 ^{柳 赫然}	무과	갑오 ^{효종 5, 1654} 정월 일 부임. 그해 동부승지 ^{同副承旨} 로 특배 ^{特配} .	
부사 김수인 ^{金 壽仁}	남반	을미 ^{효종 6, 1655} 정월 일 부임. 병신 ^{효종 7, 1656} 12월 일 사임하여 파함.	
부사 이태연 ^{李 泰淵}	문과	병신 ^{효종 7, 1656} 12월 일 부임. 무술 ^{효종 9, 1658} 9월 일 충청감사로 이배.	
부사 한진기 ^{韓 震琦}	문과	무술 ^{효종 9, 1658} 9월 일 제배. 경자 ^{현종 1, 1660} 4월 일 총응사의 장계로 파출 ^{罷黜} .	
부사 임의백 ^{任 義伯}	문과	경자 ^{현종 1, 1660} 4월 일 제배. 경자 ^{현종 1, 1660} 11월 일 평안감사로 이배.	
부사 강 유 ^{姜 瑜}	문과	경자 ^{현종 1, 1660} 11월 일 제배. 임인 ^{현종 3, 1662} 정월 일 대간의 논계로 체직.	
부사 오정원 ^{吳 廷垣}	문과	임인 ^{현종 3, 1662} 정월 일 제배. 계묘 ^{현종 4, 1663} 6월 일 경기감사와 상피 ^{相避} 하여 체직.	
부사 홍처후 ^{洪 處厚}	문과	계묘 ^{현종 4, 1663} 6월 일 제배. 그해 9월 일 대론 ^{臺論} 으로 파직.	
부사 이정기 ^{李 廷夔}	문과	계묘 ^{현종 4, 1663} 9월 일 제배. 갑진 ^{현종 5, 1664} 6월 일 경기감사로 특배.	
부사 이수창 ^{李 壽昌}	무반	갑진 ^{현종 5, 1664} 10월 일 제배. 을사 ^{현종 6, 1665} 3월 일 병체.	
부사 박경지 ^{朴 敬祉}	무반	을사 ^{현종 6, 1665} 3월 일 제배. 그해 8월 일 대론으로 체직.	
부사 구문치 ^{具 文治}	무반	을사 ^{현종 6, 1665} 8월 일 제배. 그해 11월 일 본도의 장계로 인해 파직.	
부사 박 정 ^{朴 挺}	문반	을사 ^{현종 6, 1665} 11월 일 제배. 병오 ^{현종 7, 1666} 7월 일 병으로 파직.	
부사 유 창 ^{俞 瑒}	문반	병오 ^{현종 7, 1666} 8월 일 제배. 그해 11월 일 나파 ^{拿罷}	
부사 김시진 ^{金 始振}	문반	병오 ^{현종 7, 1666} 11월 일 제배.	

			정미 ^{현종 8, 1667} 2월 일 병으로 파직.
부사 이 한 ^{李 欄}	남반	정미 ^{현종 8, 1667} 2월 일 제배.	
		기유 ^{현종 10, 1669} 정월 일 총용사와 상피하여 체거 ^{遞去} .	
부사 민시중 ^{閔 蕃重}	문반	기유 ^{현종 10, 1669} 2월 일 제배.	
		그해 4월 일 경상감사로 이배.	
부사 원만리 ^{元 萬里}	문반	기유 ^{현종 10, 1669} 4월 일 제배.	
		경술 ^{현종 11, 1670} 12월 일 며느리 숙경공주 ^{淑敬公主} ²²⁾ 의 상사 ^{喪事} 로 특별 체직.	
부사 이상진 ^{李尙眞}	문반	신해 ^{현종 14, 1671} 정월 일 제배.	
		그해 10월 일 경상감사로 이배.	
부사 성후설 ^{成後設}	문반	신해 ^{현종 14, 1671} 10월 일 제배.	
		계축 ^{현종 14, 1672} 2월 일 재상차차사 ^{災傷差錯事} ²³⁾ 로 나가 ^{拿去} .	
부사 김익훈 ^{金益勳}	남반	계축 ^{현종 14, 1672} 2월 일 제배.	
		을묘 ^{숙종 1, 1675} 정월 일 총용사와 상피하여 체직.	
부사 조사석 ^{趙師錫}	문반	을묘 ^{숙종 1, 1675} 정월 일 제배.	
		그해 11월 황해감사로 이배.	
부사 이여발 ^{李汝發}	무반	을묘 ^{숙종 1, 1675} 12월 일 제배.	
		정사 ^{숙종 3, 1677} 2월 일 어영대장 ^{御營大將} 으로 이배.	
부사 유명견 ^{柳命堅}	문반	정사 ^{숙종 3, 1677} 2월 일 제배.	
		기미 ^{숙종 5, 1679} 5월 일 임기가 차서 체직.	
부사 목창명 ^{睦昌明}	문반	기미 ^{숙종 5, 1679} 5월 일 제배.	
		경신 ^{숙종 6, 1680} 2월 일 이조참의로 이배.	
부사 권 수 ^{權 綬}	문반	경신 ^{숙종 6, 1680} 2월 일 제배.	
		그해 4월 일 부 ^府 의 대간의 논계로 파함.	
부사 이규령 ^{李奎齡}	문반	경신 ^{숙종 6, 1680} 4월 일 제배.	
		그해 11월 이조참의로 이배.	
부사 권시경 ^{權是經}	문반	경신 ^{숙종 6, 1680} 10월 일 제배.	
		임술 ^{숙종 8, 1682} 7월 일 경상감사로 이배.	
부사 이사영 ^{李思永}	문반	임술 ^{숙종 8, 1682} 7월 일 제배.	

22) 본문에는 숙공주(淑公主)로 되어 있어 바로 잡음.

23) 재상(災傷)의 일처리에 있어 착오를 일으킨 일.

			그해 12월 일 부계(府啓)로 논파(論罷)됨.
부사 원만춘(元萬春)	남반	계해(歲) 9, 1683	1월 일 제배. 을축(歲) 11, 1685 5월 일 임기가 차서 체직.
부사 김진구(金鎭龜)	문과	을축(歲) 11, 1685	5월 일 제배. 병인(歲) 12, 1686 정월 일 대사간으로 이배.
부사 조형기(趙亨期)	문과	병인(歲) 12, 1686	정월 일 제배. 정묘(歲) 13, 1687 6월 일 경상감사로 이배.
부사 이홍적(李弘迪)	문과	정묘(歲) 13, 1687	7월 일 제배. 무진(歲) 14, 1688 11월 일 송사(訟事)로 특파(特罷).
부사 김석연(金錫衍)	남반	무진(歲) 14, 1688	11월 일 제배. 기사(歲) 15, 1689 윤3월 일 사직 장계로 파함.
부사 심 단(沈 檀)	문반	기사(歲) 15, 1689	4월 일 제배. 그해 10월 일 이조참의로 이배.
부사 황 징(黃 徵)	무반	경오(歲) 16, 1690	2월 일 제배. 그해 6월 일 부의 계론(啓論)으로 파함.
부사 엄 집(嚴 緝)	문반	경오(歲) 16, 1690	6월 일 제배. 신미(歲) 17, 1691 6월 일 병으로 사직.
부사 이만원(李萬元)	문과	신미(歲) 17, 1691	6월 일 제배. 임신(歲) 18, 1692 정월 일 비변사의 계사(啓辭)로 접반사(接伴使)에 차하(差下)되었다가 5월 대사성으로 이배.
부사 조위수(趙渭叟)	남반	임신(歲) 18, 1692	5월 일 제배. 그해 12월 일 관무재(觀武才)의 일로 계파(啓罷).
부사 조 식(趙 湜)	문반	임신(歲) 18, 1692	12월 일 제배, 계유(1693) 8월 황해감사로 이배되었으나 그 달로 임임(仍任)했다가 갑술(歲) 20, 1694 4월 논계를 받아 파직.
부사 이언기(李彦紀)	문반	갑술(歲) 20, 1694	4월 일 제배. 병자(歲) 22, 1696 2월 일 진흙(賑恤)한 일로 비변사의 논계에 의해 파함.
부사 허 지(許 埤)	문반	병자(歲) 22, 1696	2월 일 제배. 무인(歲) 24, 1698 7월 일 과체.
부사 이익수(李益壽)	문반	무인(歲) 24, 1698	7월 일 제배. 기묘(歲) 25, 1699 6월 일 강도(江都) 이전(移轉)의 일로 계파.
부사 정시선(鄭是先)	남반	기묘(歲) 25, 1699	6월 일 제배. 경진(歲) 26, 1700 5월 일 병으로 체직.

부사 신 입申 鉉	문반	신사속종 27, 1701 정월 일 제배. 그 해 2월 일 황해도감사로 이배.
부사 민진원閔鎭遠	문반	신사속종 27, 1701 12월 일 제배. 계미속종 29, 1703 정월 일 전라감사로 이배.
부사 김덕기金德基	문반	계미속종 29, 1703 2월 일 제배. 그 해 7월 일 황해감사로 이배.
부사 권상유權尙游	문반	계미속종 29, 1703 7월 일 제배. 갑신속종 30, 1704 8월 일 대사헌으로 이배.
부사 조태로趙泰老	문반	갑신속종 30, 1704 8월 일 제배. 병술속종 32, 1706 정월 일 강원감사로 감.
부사 맹만택孟萬澤	문반	병술속종 32, 1706 정월 일 제배. 그 해 8월 일 병체.
부사 윤성준尹星駿	문반	병술속종 32, 1706 8월 일 제배. 그 해 11월 일 충청감사로 이배.
부사 나홍좌羅弘佐	무반	무자속종 34, 1708 정월 일 제배. 기축속종 35, 1709 8월 일 사임.
부사 윤세수尹世綬	문반	기축속종 35, 1709 8월 일 제배. 경인속종 36, 1710 4월 일 대사간으로 이배.
부사 이해조李海朝	문반	경인속종 36, 1710 5월 일 제배. 그 해 12월 일 전라감사로 이배.
부사 이 탄李 坦	문반	신묘속종 37, 1711 정월 일 제배. 임진속종 38, 1712 3월 일 경상감사로 이배.
부사 이익저李益著	남반	임진속종 38, 1712 3월 일 제배. 그 해 8월 일 사임.
부사 이 재李 緯	문반	임진속종 38, 1712 9월 일 제배. 계사속종 39, 1713 2월 일 병체.
부사 이우항李宇恒	무반	계사속종 39, 1713 3월 일 제배. 같은 달 일 통제사로 이배.
부사 김보택金普澤	문반	계사속종 39, 1713 4월 일 제배. 그 해 10월 일 병체.
부사 이홍술李弘述	무반	계사속종 39, 1713 11월 일 제배. 갑오속종 40, 1714 11월 일 폼파脫罷.

부사 김 유 金 樞	문과	을미속종 41, 1715 정월 일 제배. 그 해 8월 일 황해감사로 이배.
부사 송정명 宋正明	문과	을미속종 41, 1715 8월 일 제배. 병신속종 42, 1716 5월 일 대사성으로 이배.
부사 이교악 李喬岳	문과	병신속종 42, 1716 7월 일 제배. 정유속종 43, 1717 정월 일 사임.
부사 이유민 李裕民	문과	정유속종 43, 1717 정월 일 제배. 무술속종 44, 1718 3월 일 사임.
부사 김진옥 金鎭玉	남반	무술속종 44, 1718 5월 일 제배. 경자속종 46, 1720 9월 일 과체.
부사 이 삼 李 森	무반	경자속종 46, 1720 9월 일 제배. 신축경종 1, 1721 2월 일 포도대장으로 이배.
부사 조관빈 趙觀彬	문반	신축경종 1, 1721 2월 일 제배. 그 해 6월 일 대사간으로 이배.
부사 김취로 金取魯	문반	신축경종 1, 1721 윤6월 일 제배. 임인경종 2, 1722 정월 일 사임.
부사 김동필 金東弼	문반	임인경종 2, 1722 2월 일 제배. 그 해 9월 일 대사간으로 이배.
부사 김계환 金啓煥	문반	임인경종 2, 1722 9월 일 제배. 갑진경종 4, 1724 6월 일 사임.
부사 김시환 金始煥	문반	갑진경종 4, 1724 8월 일 제배. 을사영조 1, 1725 3월 일 논파論罷
부사 김 려 金 礪	문반	을사영조 1, 1725 4월 일 제배. 병오영조 2, 1726 9월 일 총청감사로 이배.
부사 조정만 趙正萬	남반	병오영조 2, 1726 9월 일 제배. 정미영조 3, 1727 6월 일 총청감사로 이배.
부사 윤 용 尹 容	남반	정미영조 3, 1727 9월 일 제배. 무신영조 4, 1728 2월 일 형조참의로 이배.
부사 송진명 宋眞明	문반	무신영조 4, 1728 2월 일 제배. 그 해 6월 일 대사성에 이배되었으나 특 교特敎로 인해 임임 仍任하다가 7월 일 함경감사로 승배陞拜
부사 조 빈 趙 愼	무반	무신영조 4, 1728 8월 일 제배. 경술영조 6, 1730 5월 일 사임.

부사 신광하 <small>申光夏</small>	무반	경술영조 6, 1730 5월 일 제배. 신해영조 7, 1731 정월 일 체직하여 돌아감.
부사 이형좌 <small>李衡佐</small>	남반	신해영조 7, 1731 정월 일 제배. 그 해 6월 일 병파.
부사 윤 섭 <small>尹涉</small>	문반	신해영조 7, 1731 7월 일 제배. 계축영조 9, 1733 3월 일 졸서 <small>卒逝</small> .
부사 구성임 <small>具聖任</small>	무반	계축영조 9, 1733 3월 일 제배. 갑인영조 9, 1733 6월 일 총융사로 이배.
부사 유 엄 <small>柳儼</small>	문반	갑인영조 9, 1733 6월 일 제배. 을묘영조 11, 1735 4월 일 총청감사로 이배.
부사 김상성 <small>金尙星</small>	문반	을묘영조 11, 1735 4월 일 제배. 병진영조 12, 1736 정월 일 사임.
부사 이일제 <small>李日躋</small>	문반	병진영조 12, 1736 2월 일 제배. 정사영조 13, 1737 2월 일 대동미 사건으로 체직.
부사 정우량 <small>鄭羽良</small>	문반	정사영조 13, 1737 2월 일 제배. 무오영조 14, 1738 정월 일 사임.
부사 김태연 <small>金泰衍</small>	남반	무오영조 14, 1738 정월 일 제배. 기미영조 15, 1739 5월 일 병파.
부사 이정보 <small>李鼎輔</small>	문반	기미영조 15, 1739 9월 일 제배. 신유영조 17, 1741 8월 일 사임.
부사 황 재 <small>黃梓</small>	문반	신유영조 17, 1741 8월 일 제배. 계해영조 19, 1743 8월 일 사임.
부사 홍창한 <small>洪昌韓</small>	문반	계해영조 19, 1743 9월 일 제배. 을축영조 21, 1745 11월 일 전라감사로 이배.
부사 이제원 <small>李濟遠</small>	문반	을축영조 21, 1745 11월 일 제배. 봄 습조를 정지할 것을 청한 일과 군기 집탈사 <small>軍器執領事</small> 로 임인 ²⁴⁾ 3월 일 파직.
부사 정휘량 <small>鄭暉良</small>	문반	병인영조 22, 1746 윤3월 일 제배. 정묘영조 23, 1747 6월 일 부제학으로 이배.
부사 장태소 <small>張泰紹</small>	무반	정묘영조 23, 1747 7월 일 제배. 그 해 8월 일 통제사로 이배.

24) 병인(丙寅)년의 오기(誤記)이다.

부사 송수형 宋秀衡	문반	정묘영조 23, 1747 8월 일 제배. 무진영조 24, 1749 4월 일 어사(御使) 계파.
부사 성범석 成範錫	문반	무진영조 24, 1749 4월 일 제배. 기사영조 25, 1749 7월 일 사임.
부사 윤 흡 尹 滄	문반	기사영조 25, 1749 8월 일 제배. 경오영조 26, 1750 11월 일 체직.
부사 장태소 張泰紹	무반	경오영조 26, 1750 11월 일 제배. 종래거듭 음. 신미영조 27, 1751 2월 일 논계를 입어 삭직되었으나 명을 돌려서 특명으로 서용하여 포도대장에 제수.
부사 구수훈 具樹勳	무반	신미영조 27, 1751 3월 일 제배. 신미영조 27, 1751 2월 일 대간의 탄핵을 받아 나파(拿罷).
부사 이의풍 李義豐	무반	신미영조 27, 1751 12월 일 제배. 갑술영조 30, 1754 윤 4월 일 포도대장으로 이배.
부사 김상복 金相福	문반	갑술영조 30, 1754 윤 4월 일 제배. 병자영조 32, 1756 정월 일 이조참의로 이배.
부사 황인검 黃仁儉	문반	병자영조 32, 1756 정월 일 제배. 병자영조 32, 1756 5월 일 내간(內艱) 상喪을 당해 체직.
부사 김선행 金善行	문반	병자영조 32, 1756 5월 일 제배. 정축영조 33, 1757 3월 일 대사헌으로 이배.
부사 김효대 金孝大	남반	정축영조 33, 1757 3월 일 제배. 을묘영조 35, 1759년 6월 특교로 돈녕부 도정에 내천되었으나 같은 달 대신의 진달로 계속 임임하고 7월 일 죄인(罪人)의 일로 순영(巡營)에 의해 장파(狀罷).
부사 윤동승 尹東昇	문반	기묘영조 35, 1759 9월 일 제배. 신사영조 37, 1761 12월 일 사임.
부사 이중우 李重祐	문반	신사영조 37, 1761 12월 일 제배. 임오영조 38, 1762 4월 일 친병 사퇴.
부사 정상순 鄭尙淳	문반	임오영조 38, 1762 4월 일 제배. 계미영조 39, 1763 7월 일 통신상사(通信上使)로 이배.
부사 이 미 李 澗	문반	계미영조 39, 1763 7월 일 제배. 갑신영조 40, 1764 9월 일 파직.
부사 이명식 李命植	문반	병술영조 42, 1766 2월 일 제배. 정해영조 43, 1767 5월 일 마병(馬兵)을 적간(敵奸)할 때 탈(蹟)이 있어 먼저 파

			직한 후 나처 <small>拿處</small> 함.
부사 조제태 <small>趙濟泰</small>	무반	정해영조 43, 1767 5월 일 제배.	그 해 8월 일 살육 사건에 대해 순영의 장계로 파직.
부사 이은춘 <small>李殷春</small>	무반	정해영조 43, 1767 8월 일 제배.	그 해 12월 일 구근 <small>久勤</small> 보고 착오의 일로 대신이 연주 <small>筵奏</small> 하여 파직.
부사 이윤성 <small>李潤星</small>	무반	무자영조 44, 1768 정월 일 제배. 그 해 11월 일 북근 <small>北關</small> 때 개시 <small>開市</small> 의 일로 기묘년에 들어갔다가 이후 도·수신 <small>道帥臣</small> 이 파직되었다. 현지에 서 체직됨.	
부사 원중회 <small>元重會</small>	무반	무자영조 44, 1768 12월 일 제배. 이듬해 5월 포도대장으로 이배 되었으나 같은 달 대신이 연주 <small>筵奏</small> 하여 계속 임임됨.	
		신묘영조 47, 1771 2월 일 통제사로 이배.	
부사 김상묵 <small>金尙默</small>	문반	신묘영조 47, 1771 2월 일 제배.	임진영조 48, 1772 7월 일 체직.
부사 홍 검 <small>洪 檢</small>	문반	임진영조 48, 1772 7월 일 제배.	같은 달에 체직.
부사 이방수 <small>李邦綬</small>	무반	임진영조 48, 1772 7월 일 제배.	그 해 11월 일 금군별장 <small>禁軍別將</small> 으로 이배.
부사 구현겸 <small>具顯謙</small>	무반	임진영조 48, 1772 11월 일 제배.	그 해 12월 일 대신의 진달로 체직.
부사 이득신 <small>李得臣</small>	문반	계사영조 49, 1773 정월 일 제배.	그 해 4월 일 선세 <small>船稅</small> 를 탈루하여 기재한 일로 간판 <small>刊版</small> ²⁵⁾ 됨.
부사 이성수 <small>李性遂</small>	문반	계사영조 49, 1773 4월 일 제배.	그 해 7월 일 내간 <small>內艱</small> 상喪으로 체직.
부사 조 정 <small>趙 晷</small>	문반	계사영조 49, 1773 7월 일 제배. 같은 달 종제 <small>從弟</small> 대사간이 재외 <small>在外</small> 원찬 <small>遠宦</small> 되자 임금의 엄중한 특교로 체직.	
부사 서호수 <small>徐浩修</small>	문반	계사영조 49, 1773 7월 일 제배.	갑오영조 50, 1774 5월 일 대신이 경연에서 아뢰어 허체됨.
부사 김한로 <small>金漢老</small>	문반	갑오영조 50, 1774 6월 일 제배.	을미영조 51, 1775 3월 일 대신이 경연에서 아뢰어 허체됨.
부사 심이지 <small>沈頤之</small>	문반	을미영조 51, 1775 4월 일 제배.	

25) 간명사판(刊名仕版)의 준말. 벼슬아치의 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함.

			병신영조 52, 1776 6월 일 대신의 진달로 체직.
부사 신대승 申大升	문반	병신영조 52, 1776 6월 일 제배.	
		정유정조 1, 1777 3월 일 외간 外艱 상喪으로 체직.	
부사 김광묵 金光默	문반	정유정조 1, 1777 3월 일 제배.	
		기해정조 3, 1779 9월 일 과체 瓜遞.	
부사 김 희 金 熹	문반	기해정조 3, 1779 9월 일 제배.	
		경자정조 4, 1780 8월 일 이배.	
부사 김문순 金文淳	문반	경자정조 4, 1780 8월 일 제배.	
		신축정조 5, 1781 5월 일 동의금 同義禁으로 승배.	
부사 조정진 趙鼎鎭	문반	신축정조 5, 1781 5월 일 제배.	
		그해 10월 일 나파 拿罷.	
부사 민종현 閔鍾顯	문반	신축정조 5, 1781 10월 일 제배.	
		계묘정조 7, 1783 6월 일 대사헌으로 이배.	
부사 홍 검 洪 檢	문반	계묘정조 7, 1783 6월 일 제배, 종래 重來 거듭옴.	
		갑진정조 8, 1784 12월 일 대신이 경연에서 아뢰어 허체됨.	
부사 이복영 李復永	문반	갑진정조 8, 1784 12월 제배.	
		병오정조 10, 1786 정월 일 동부승지로 체직.	
부사 정동준 鄭東浚	문반	병오정조 10, 1786 정월 일 제배.	
		정미정조 11, 1787 6월 일 대사간으로 이배.	
부사 이행원 李行元	문반	정미정조 11, 1787 6월 일 제배.	
		그해 9월 일 우승지로 이배.	
부사 이조원 李祖源	문반	정미정조 11, 1787 9월 일 제배.	
		무신정조 12, 1788 9월 일 대신이 경연에서 아뢰어 허체됨.	
부사 김노영 金魯永	문반	무신정조 12, 1788 9월 일 제배.	
		기유정조 13, 1789 7월 일 대사간으로 이배.	
부사 조심태 趙心泰	무반	기유정조 13, 1789 7월 일 제배.	
		경술정조 14, 1790 12월 일 훈련대장으로 이배.	
부사 김사목 金思穆	문반	경술정조 14, 1790 12월 일 제배.	
		임자정조 16, 1792 정월 일 이조판서로 이배.	
부사 이경무 李敬世	무반	임자정조 16, 1792 정월 일 제배.	
		계축정조 17, 1793 정월 일 형조판서로 이배.	

유수선생留守先生

- 채재공**蔡濟恭 계축정조 17, 1793 정월 처음 유수로 승격된 후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서 특제特除.
동년 5월 우의정으로 승배陞拜.
- 이명식**李命植 계축정조 17, 1793 5월 특제特除.
갑인정조 18, 1794 2월 소를 올려 체직.
- 조심태**趙心泰 갑인정조 18, 1794 2월 훈련대장으로써 특제特除, 축성 때 감동당상監董堂上을 겸함.
정사정조 21, 1797 7월 형조판서로 이배.
- 서유린**徐有隣 정사정조 21, 1797 7월 특제.
경신정조 24, 1800 11월 산릉도감山陵都監 당상堂上 때 일로 사직.
- 이만수**李晩秀 경신정조 24, 1800 11월 제배.
신유순조 1, 1801 5월 대제학으로 이배.
- 서정수**徐鼎脩 신유순조 1, 1801 5월 제배.
그 해 9월 외간外艱 상喪으로 사퇴.
- 한용구**韓用龜 신유순조 1, 1801 9월 제배.
임술순조 2, 1802 2월 전라감사로 이배.
- 정대용**鄭大容 임술순조 2, 1802 3월 제배.
그 해 12월 이조판서로 이배.
- 조윤대**曹允大 임술순조 2, 1802 12월 제배.
갑자순조 4, 1804 6월 병조판서로 이배.
- 이경일**李敬一 갑자순조 4, 1804 6월 제배.
그 해 7월 우의정으로 승배陞拜.
- 김문순**金文淳 갑자순조 4, 1804 7월 특제特除.
을축순조 5, 1805 12월 호조판서로 이배.
- 조진관**趙鎭寬 을축순조 5, 1805 12월 제배.
정묘순조 7, 1807 2월 소를 올려 체직.
- 홍명호**洪明浩 정묘순조 7, 1807 2월 제배.
그 해 12월 소를 올려 체직.
- 이집두**李集斗 정묘순조 7, 1807 12월 제배.
무진순조 8, 1808 12월 암행어사의 서계로 인해 파직.
- 김이익**金履翼 무진순조 8, 1808 12월 제배.

- 경오순조 10, 1810 12월 과체瓜遞.
- 박윤수 朴崙壽 경오순조 10, 1810 12월 제배.
임신순조 12, 1812 2월 전라 감사로 이배.
- 김이도 金履度 임신순조 12, 1812 2월 제배.
계유순조 13, 1813 3월 졸서卒逝.
- 이익운 李益運 계유순조 13, 1813 3월 제배.
을해순조 15, 1815 6월 과체.
- 서영보 徐榮輔 을해순조 15, 1815 6월 제배.
병자순조 16, 1816 11월 소를 올려 체직.
- 임한호 林漢浩 병자순조 16, 1816 11월 제배.
무인순조 18, 1818 7월 이조판서로 이배.
- 한치응 韓致應 무인순조 18, 1818 7월 제배.
경진순조 20, 1820 6월 과체.
- 이만수 李晩秀 경진순조 20, 1820 6월 제배, 재임再任: 두 번째 임명됨.
그 해 6월 졸서卒逝.
- 김시근 金善根 경진순조 20, 1820 7월 제배.
임오순조 22, 1822 6월 과체.
- 이헌기 李憲琦 임오순조 22, 1822 6월 제배.
그 해 11월 소체.
- 이희갑 李羲甲 임오순조 22, 1822 11월 제배.
갑신순조 24, 1824 10월 과체.
- 김이양 金履陽 갑신순조 24, 1824 10월 제배.
을유순조 25, 1825 6월 전임 호조판서 때의 일로 파직.
- 홍희신 洪義臣 을유순조 25, 1825 6월 제배.
그 해 11월 소를 올려 체직.
- 김이교 金履喬 을유순조 25, 1825 11월 제배.
병술순조 26, 1826 4월 대제학으로 이배.
- 김상휴 金相休 병술순조 26, 1826 4월 제배.
정해순조 27, 1827 6월 우빈객으로 이배.
- 김유근 金迪根 정해순조 27, 1827 6월 보직 외 특제.
무자순조 28, 1828 3월 판의금부사로 이배.
- 박주수 朴周壽 무자순조 28, 1828 3월 제배.

- 경인순조 30, 1830 3월 과체.
- 홍희준 洪羲俊 경인순조 30, 1830 3월 제배.
신묘순조 31, 1831 2월 이조판서로 이배.
- 박기수 朴綺壽 신묘순조 31, 1831 2월 제배.
임진순조 32, 1832 정월 소체.
- 서준보 徐俊輔 임진순조 32, 1832 정월 제배.
계사순조 33, 1833 4월 이조판서로 이배.
- 정원용 鄭元容 계사순조 33, 1833 4월 제배.
그 해 4월 11일 평안감사로 이배.
- 이광문 李光文 계사순조 33, 1833 11월 제배.
을미현종 1, 1835 9월 과체.
- 서능보 徐能輔 을미현종 1, 1835 9월 제배.
병신현종 2, 1836 정월 소를 올려 체직.
- 서유구 徐有渠 병신현종 2, 1836 정월 제배.
정유현종 3, 1837 12월 과체.
- 이기연 李紀淵 정유현종 3, 1837 12월 제배.
무술현종 4, 1838 11월 이조판서로 이배.
- 심능악 沈能岳 무술현종 4, 1838 11월 제배.
경자현종 6, 1840 10월 과체.
- 이익희 李翊會 경자현종 6, 1840 10월 제배.
임인현종 8, 1842 8월 과체.
- 권돈인 權敦仁 임인현종 8, 1842 8월 제배.
그 해 11월 우의정으로 이배.
- 박영원 朴永元 임인현종 8, 1842 11월 제배.
계묘현종 9, 1843 7월 호조판서로 이배.
- 서희순 徐憲淳 계묘현종 9, 1843 7월 제배.
그 해 12월 내간(內艱) 상(喪)으로 사퇴.
- 이광정 李光正 갑진현종 10, 1844 정월 제배.
을사현종 11, 1845 11월 소를 두번 올려 체직.
- 이약우 李若愚 을사현종 11, 1845 11월 과체.
정미현종 13, 1847 9월 과체.
- 김좌근 金左根 정미현종 13, 1847 9월 제배.

- 기유현종 15, 1849 7월 과제.
- 김난순 金蘭淳 기유현종 15, 1849 7월 제배.
신해철종 2, 1851 4월 소제.
- 조병준 趙秉駿 신해철종 2, 1851 4월 제배.
그 해 12월 병조판서로 이배.
- 서영순 徐英淳 신해철종 2, 1851 12월 제배.
계축철종 4, 1853 11월 과제.
- 이학수 李鶴秀 계축철종 4, 1853 11월 제배.
을묘철종 6, 1855 정월 소를 올려 체직.
- 김도희 金道喜 을묘철종 6, 1855 5월 첨서 添書 특집.
병진철종 7, 1856 5월 복상에서 좌의정 제배.
- 홍재룡 洪在龍 병진철종 7, 1856 5월 특제.
무오철종 9, 1858 정월 소를 올려 체직.
- 김병학 金炳學 무오철종 9, 1858 정월 제배.
같은 해 3월 대제학으로 이배.
- 서유훈 徐有薰 무오철종 9, 1858 3월 제배.
같은 해 12월 도총관으로 이배.
- 임백경 任百經 무오철종 9, 1858 12월 제배.
기미철종 10, 1859 11월 소를 올려 체직.
- 남병철 南秉哲 기미철종 10, 1859 11월 제배.
경신철종 11, 1860 2월 소를 올려 체직.
- 김병교 金炳喬 경신철종 11, 1860 2월 제배.
신유철종 12, 1861 10월 예조판서로 이배.
- 김영근 金泳根 신유철종 12, 1861 10월 제배.
계해철종 14, 1863 4월 강원감사로 특별제수.
- 남병길 南秉吉 계해철종 14, 1863 4월 강원감사에서 특환 特換.
을축고종 2, 1865 2월 한성판윤으로 이배.
- 이유원 李裕元 을축고종 2, 1865 2월 특제.
같은 해 5월 소를 올려 체직.
- 조득림 趙得林 을축고종 2, 1865 5월 제배.
같은 해 12월 이조판서로 이배.
- 조헌영 趙獻永 을축고종 2, 1865 12월 특배.

- 병인고종 3, 1866 10월 소를 올려 체직.
- 이경하李景夏 병인고종 3, 1866 10월 훈련대장으로서 특제.
기사고종 6, 1869 2월 소를 올려 체직.
- 이재원李載元 기사고종 6, 1869 2월 7일 지종정경知宗正卿으로서 특제.
신미고종 8, 1871 정월 3일 이조판서로 이배.
- 신석희申錫禧 신미고종 8, 1871 정월 검교제학檢校提學으로서 제수.
임신고종 9, 1872 11월 도총판으로 이배.
- 민승호閔升鑄 임신고종 9, 1872 11월 대호군大護軍으로서 제수.
계유고종 10, 1873 9월 병조판서로 이배.
- 민치상閔致祥 계유고종 10, 1873 9월 12일 병조판서로서 제배.
갑술고종 11, 1874 11월 7일 호조판서로 이배.
- 송근수宋近洙 갑술고종 11, 1874 11월 7일 죄참찬으로서 특제.
병자고종 13, 1876 8월 도총판으로 이배.
- 박규수朴珪壽 병자고종 13, 1876 8월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서 특제.
그 해 12월 소를 올려 체직.
- 김병지金炳地 병자고종 13, 1876 12월 공조판서로서 특제.
무인고종 15, 1878 12월 함경감사로 특환.
- 김세균金世均 무인고종 15, 1878 12월 함경감사에서 특환.
기묘고종 16, 1879 8월 17일 졸서卒逝.
- 정기세鄭基世 기묘고종 16, 1879 8월 제수, 1882년 2월 보국輔國으로 승진되었으나 계속 임임仍任됨.
임오고종 19, 1882 8월 소를 올려 체직.
- 민영위閔泳緯 임오고종 19, 1882 9월 제배.
그 해 10월 평안감사로 특환.
- 홍우창洪祐昌 임오고종 19, 1882 10월 경기감사로서 제수.
갑신고종 21, 1884 10월 과체.
- 김기석金基錫 갑신고종 21, 1884 10월 특제.
을유고종 22, 1885 정월 우영사右營使로 이배.
- 이헌식李憲植 을유고종 22, 1885 정월 도승지로서 특자特資 제수.
정해고종 24, 1887 3월 전라감사로 이배.
- 윤자덕尹慈惠 정해고종 24, 1887 3월 규장각제학으로서 제수.
기축고종 26, 1889 3월 공조판서로 이배.
- 김홍집金弘集 기축고종 26, 1889 3월 판중추부사로서 특제.

- 경인고종 27, 1890 10월 소를 올려 체직.
- 윤영신 尹營信 경인고종 27, 1890 10월 김춘균 鈴春君으로서 제배.
신묘고종 28, 1891 9월 강원감사로 이배.
- 민영상 閔泳商 신묘고종 28, 1891 9월 호조판서로서 특제.
계사고종 30, 1893 3월 소를 올려 체직.
- 민영규 閔泳奎 계사고종 30, 1893 3월 경기감사로서 제배.
갑오고종 31, 1894 5월 병조판서로 이배.
- 조병직 趙秉稷 갑오고종 31, 1894 5월 외무독판 外務督辦으로서 특제.
을미고종 32, 1895 윤5월 소를 올려 체직.

관찰사선생 觀察使先生

- 오익영 五益泳 병신건양 1, 1896 7월 제배
무술광무 2, 1898 3월 소를 올려 체직.
- 김영덕 金永德 무술광무 2, 1898 3월 탁지부협판 度支部協辦으로서 제배.
기해광무 3, 1899 6월 충청남도관찰사로 이배.
- 조종필 趙鍾弼
- 이재극 李載克
- 윤덕영 尹德榮
- 윤태홍 尹泰興 신축광무 5, 1901 정월 25일 장례원소경 掌禮院少卿으로서 제배.

판관선생 判官先生

- 김노성 金魯成 계축정조 17, 1793 정월 제배. 처음 판관을 둔 후 제배.
갑인정조 18, 1794 2월 체직.
- 정동협 鄭東協 갑인정조 18, 1794 2월 제배.
을묘정조 19, 1795 윤2월 진주목사로 승배 陞拜.
- 홍원섭 洪元燮 을묘정조 19, 1795 윤2월 제배.
정사정조 21, 1796 4월 아산 牙山의 조선 漕船이 치패 致敗한 일로 파직.
- 김사희 金思義 정사정조 21, 1796 4월 제배.

- 경신정조 24, 1800 12월 평양서윤平壤庶尹으로 승배.
- 임병원 林秉遠 경신정조 24, 1800 12월 제배
임술순조 2, 1803 6월 암행어사 서계로 파직.
- 홍양묵 洪養默 임술순조 2, 1803 6월 제배.
갑자순조 4, 1804 6월 온양군수로 제배.
- 홍인모 洪仁謨 갑자순조 4, 1804 7월 제배.
을축순조 5, 1805 12월 연안부사로 제배.
- 박종구 朴宗球 을축순조 5, 1805 12월 제배.
병인순조 6, 1806 2월 의령군수와 상환相換.
- 이 희李 熾 병인순조 6, 1806 2월 의령군수로서 상환됨.
무진순조 8, 1808 2월 신천군수로 제배.
- 오경원 吳慶元 무진순조 8, 1808 2월 제배.
경오순조 10, 1810 12월 한성서윤에 제배.
- 김재삼 金在三 경오순조 10, 1810 12월 제배.
신미순조 11, 1811 7월 외간外艱 상喪으로 사임.
- 정치우 鄭致愚 신미순조 11, 1811 7월 제배.
계유순조 13, 1813 7월 밀양부사로 제배.
- 심능악 沈能岳 계유순조 13, 1813 7월 제배, 갑술 4월 문과에 등제.
갑술순조 14, 1814 6월 사간원정언으로 제배.
- 정 의鄭 漪 갑술순조 14, 1814 6월 제배.
병자순조 16, 1816 6월 청주목사로 제배.
- 김이우 金履佑 병자순조 16, 1816 윤6월 제배.
같은 해 12월 덕천군수와 상환.
- 박종희 朴宗喜 병자순조 16, 1817 12월 덕천군수로서 상환.
무인순조 17, 1818 6월 사체.
- 이희찬 李義贊 무인순조 17, 1818 6월 제배.
경진순조 20, 1820 6월 재령군수와 상환됨.
- 김원근 金元根 경진순조 20, 1820 6월 재령군수로서 상환.
신사순조 21, 1821 12월 황주목사에 제배.
- 심응규 沈應奎 신사순조 21, 1821 12월 제배.
임오순조 22, 1822 6월 재령군수와 상환.
- 김 횡金 鑠 임오순조 22, 1822 6월 재령군수로서 상환.

- 갑신_{순조 24, 1824} 10월 온양군수에 제배.
- 이정신_{李鼎臣} 갑신_{순조 24, 1824} 10월 제배.
병술_{순조 26, 1826} 5월 재령군수에 제배.
- 김민순_{金民淳} 병술_{순조 26, 1826} 5월 제배.
기축_{순조 29, 1829} 4월 과체_{瓜遞}.
- 윤경열_{尹慶烈} 기축_{순조 29, 1829} 4월 제배.
신묘_{순조 31, 1831} 6월 사도시첨정_{司導寺僉正}에 제배.
- 이현오_{李玄五} 신묘_{순조 31, 1831} 6월 제배.
임진_{순조 32, 1832} 9월 내간_{內艱} 상_喪으로 사직.
- 김영석_{金永錫} 임진_{순조 32, 1832} 9월 제배.
계사_{순조 33, 1833} 정월 서흥부사_{瑞興府使}로 상환.
- 박호수_{朴鎬壽} 계사_{순조 33, 1833} 정월 제배.
같은 해 8월 상피하여 체직.
- 박조수_{朴楚壽} 계사_{순조 33, 1833} 8월 제배.
갑오_{순조 34, 1844} 9월 청도군수로 상환.
- 이민영_{李敏榮} 갑오_{순조 34, 1844} 9월 제배.
병신_{현종 2, 1836} 12월 제용판관_{濟用判官}에 제배.
- 김한순_{金漢淳} 병신_{현종 2, 1836} 12월 제배.
기해_{현종 5, 1839} 6월 장악원주부에 제배.
- 조태순_{趙台淳} 기해_{현종 5, 1839} 6월 제배.
같은 해 10월 순안현령으로 상환.
- 윤치승_{尹致承} 기해_{현종 5, 1839} 10월 제배.
신축_{현종 7, 1841} 2월 졸서_{卒逝}.
- 김응근_{金應根} 신축_{현종 7, 1841} 10월 제배.
임인_{현종 8, 1842} 12월 병파_{病罷}.
- 박호수_{朴鎬壽} 임인_{현종 8, 1842} 12월 제배.
을사_{현종 11, 1845} 5월 과체.
- 정기철_{鄭基徹} 을사_{현종 11, 1845} 5월 제배.
병오_{현종 12, 1846} 12월 과천현감으로 상환.
- 김병기_{金炳冀} 병오_{현종 12, 1846} 12월 이배.
정미_{현종 13, 1847} 3월 등과_{登科}하여 체직.
- 서광규_{徐光奎} 정미_{현종 13, 1847} 3월 이배.

- 무신현종 14, 1848 12월 무장현감茂長縣監으로 이배.
- 정시용鄭始容 무신현종 14, 1848 6월 충주목사로서 이배.
기유현종 15, 1849 6월 모친상으로 사직.
- 홍종서洪鍾序 기유현종 15, 1849 6월 제배.
경술철종 1, 1850 4월 사직하여 체직.
- 조연명趙然明 경술철종 1, 1850 5월 예천군수에서 이배.
신해철종 2, 1851 4월 나주목사로 이배.
- 조규순趙奎淳 신해철종 2, 1851 4월 무안현감에서 이배.
계축철종 4, 1853 2월 재령군수와 상환.
- 김병지金炳地 계축철종 4, 1853 2월 재령군수로서 상환.
갑인철종 5, 1854 3월 등과로 체직.
- 김병집金炳集 갑인철종 5, 1854 3월 신계현령新溪縣令에서 이배.
병진철종 7, 1856 5월 등과로 체직.
- 이안설李寅高 병진철종 7, 1856 5월 강서현령에서 이배.
정사철종 8, 1857 11월 고양군수로 이배.
- 조병섭趙秉燮 정사철종 8, 1857 11월 진안현감에서 이배.
기미철종 10, 1859 12월 안성군수로 이배.
- 김보근金普根 기미철종 10, 1859 12월 사복시판관司僕寺判官에서 이배.
경신철종 11, 1860 12월 겸유수와 상피하여 체직.
- 안응수安膺壽 경신철종 11, 1860 12월 부평부사에서 이배.
신유철종 12, 1861 3월 사직하여 체직.
- 이순익李純翼 신유철종 12, 1861 3월 금구현령金溝縣令에서 이배.
임술철종 13, 1862 10월 재령군수로 상환.
- 남병선南秉善 임술철종 13, 1862 10월 재령군수에서 상환.
같은 해 12월 해주판관으로 상환.
- 이정모李諍謨 임술철종 13, 1862 12월 해주판관으로서 상환.
갑자고종 1, 1864 2월 서흥부사와 상환.
- 정기명鄭基命 갑자고종 1, 1864 2월 서흥부사로서 상환.
을축고종 2, 1865 3월 안성군수로 상환.
- 유승근柳承根 을축고종 2, 1865 3월 안성군수에서 상환.
정묘고종 4, 1867 12월 광주판관廣州判官으로 상환.
- 정기명鄭基命 정묘고종 4, 1867 12월 광주판관에서 이배. 재임再任됨.

- 신미고종 8, 1871 7월 인의(引儀)로 이배.
- 정광시(鄭匡始) 신미고종 8, 1871 7월 곡성현감에서 이배.
갑술고종 11, 1874 5월 등과하여 체직.
- 이수은(李秀殷) 갑술고종 11, 1874 5월 양구현감에서 이배.
같은 해 11월 양구현감 재직시의 일로 압행어사의 서계로 파직.
- 김온순(金溫淳) 갑술고종 11, 1874 11월 밀양부사로서 이배.
을해고종 12, 1875 9월 임실현감으로 이배.
- 민두호(閔斗鎬) 을해고종 12, 1875 9월 임실현감에서 이배.
병자고종 13, 1876 8월 재령군수로 상환.
- 윤고(尹耆) 병자고종 13, 1876 8월 재령군수에서 이배.
무인고종 15, 1878 5월 신천군수로 상환.
- 이상응(李商應) 무인고종 15, 1878 5월 신천군수에서 이배
계미고종 15, 1878 5월 광주판관으로 상환
- 민영국(閔泳國) 계미고종 15, 1878 5월 광주판관에서 이배.
병술년 10월에 등제. 정해고종 24, 1887 3월 사체.
- 오석영(吳錫泳) 정해고종 24, 1887 3월 목천현감에서 이배.
기축고종 26, 1889 11월 금산군수로 이배.
- 김규승(金奎升) 기축고종 26, 1889 11월 재령군수에서 이배.
경인고종 27, 1890 10월 청주판관으로 이배.
- 민영숙(閔泳肅) 경인고종 27, 1890 10월 순천부사에서 이배.
임진고종 29, 1892 4월 안주목사로 이배.
- 심능필(沈能弼) 임진고종 29, 1892 4월 예천군수에서 이배.
갑오고종 31, 1894 9월 파직.
- 이재근(李載觀) 갑오고종 31, 1894 9월 삭녕군수에서 이배.
을미고종 32, 1895 5월 체직.

군수선생(郡守先生)

- 정교(鄭 僑) 을미고종 32, 1895 5월 궁내부주사로서 제배.
을미고종 32, 1895 8월 장연군수로 이배.
- 이재근(李載觀) 을미고종 32, 1895 8월 주임(奏任).²⁹⁾

- 같은 해 10월 사체.
- 서형순(徐瑄淳) 을미(고종 32, 1895) 10월 주임(奏任)
병신(건양, 1896) 9월 사체.
- 이길하(李吉夏) 병신(건양, 1896) 9월 한림(翰林)으로서 주임.
정유(광무 1, 1897) 3월 전주군수로 이배.
- 김정규(金靖圭) 정유(광무 1, 1897) 3월 주임.
무술(광무 2, 1898) 12월 태인군수로 이배.
- 이범선(李範善) 무술(광무 2, 1898) 12월 대구군수로서 이배.
기해(광무 3, 1899) 2월 부임.

화성지속편(華城誌續編)

장안문(長安門) 장안문 현판(懸板) 1좌(坐) ○ 임금이 글씨 쓴 현판 1좌 ○ 상량문(上樑文) 현판 1좌 ○ 임금이 지은 시(위에서 소개했다).

○ 상량문(上樑文)

앞드려 생각하건대

주(周)나라는 채전(采田)²⁷⁾을 세워 나라의 울타리를 삼았고,

한(漢)나라는 원읍(園邑)²⁸⁾을 두어 물뿌리고 쓸게 하였다.

대개 선조를 받들고 효도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선침(仙寢·현릉원)을 여러 겹으로 호위하여 삼가 밝게 제사지내고,

즐기를 강하게 하고 가지를 약하게 하려면

서울을 융성하게 하여 밖의 모욕을 막아야 한다네.

이에 조상의 원침(園寢)이 있는 군(郡)에 이 같은 흥예문을 높이 세웠다네.

이 화성은 큰 도회지(都會地)요 수호해야 할 땅이니 실로 우리나라의 우부풍(右扶風)이라.

바다를 등지고 한강에 임해서 서울 백리의 경계에 걸터앉았고

영남을 당기고 호남을 눌러서 큰 길이 사방으로 통하는 곳에 자리잡았네.

26) 대한제국 시대에 관리를 총리대신이 임금에게 상주하여 3품에서 6품까지 임명하던 일.

27) 채전(采田) : 기전(畿甸)의 채지(采地)를 말한다. 채읍(采邑), 식읍(食邑), 봉읍(封邑)이라고도 하며 경대부에게 봉록(俸祿) 대신 조세를 받아쓰게 하는 제도이다. 유수부로 승격한 화성을 주나라의 채지에 비유한 것이다.

28) 원읍(園邑) : 능침의 주위를 지키는 고을을 말한다.

아름답구나! 나라에 산하의 보배가 있으니, 과연 하늘이 만든 성인을 숨길 만하도다.
 신령스러운 용은 턱 아래의 구슬을 희롱하듯 하고, 종산鍾山의 모습과 기세는 장엄하고 화려하며
 금빛 연꽃이 꽃술 속에서 꽃받침을 토해내듯 용릉春陵의 아름다운 기운이 뻗뻗하게 들어찼네.
 청오경靑烏經으로 우리 존송尊崇한 언덕을 점치고, 검은 거북으로 이 새로운 읍을 세웠네.
 서쪽에 전수灘水, 동쪽에 간수澗水가 있는 낙양은 지리를 보고 나라의 터를 정하였고,
 옛 패현沛縣을 새로운 풍읍豐邑으로 바꾼 한나라는 백성의 뜻을 순하게 하고 왕업을 존송하기 위함
 이었네.

산천이 변하지 않으니 오래도록 임금의 원행圓幸을 보겠으며,
 닭과 개가 각각 자기 집을 알고 있으니 엄연히 한나라의 분유사粉榆社 옮긴 뜻을 이루었구나.
 이에 구중궁궐에서는 달마다 아버이 뵈는 예를 하시고 좋은 날을 가려 해마다 살피는 의식을 정하
 셧네.

몸소 옥찬玉璫을 잡고 술을 따르니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 다하지 못하였고
 돌담이 가까이 있으니 항상 아버지 모습 담장에 비치네.
 산성으로 보낸 백성 항상 읍조리는 것은 경술정조 14, 1790년에 수레 멈추고 임금이 하신 말씀이요
 월악의 고승은 북쪽 언덕이 절을 세울 좋은 땅이라 전하였네.
 남녘가 강보에 아이를 싸서 달려오니 어찌 무릉 호걸의 집을 번거롭게 할 것이며,
 집과 우물이 빗처럼 가지런하니 반쯤은 낙양 재상들의 동산같구나!
 진실로 성을 쌓고 연못을 파지 않는다면 어떻게 백성들을 포용하며 기를 수 있겠는가?
 해시계를 세워 해그림자를 재며 임금은 수레를 멈추고 언덕에 올라가 내려다보고
 산을 안고 시내를 둘러싸고 있으니 옥도끼를 날려 경계를 정하였네.
 재상이 좃고 백성이 좃기를 진실로 협동하니 이미 어진 도위都尉의 정성스런 마음 알겠고, 사람의
 피와 귀신의 피가 더불어 능하게 되니 지난 날 처사가 계획한 것과 은연중 맞는구나.
 이에 태사太史에게 명하여 좋은 날을 받고, 사공司空에게 명령하여 짓는 일을 의논하네.
 숙지산의 구름 낀 곳에서 나무를 베니 기이하구나! 땅은 만개의 통나무를 바치네.
 규룡虯龍같은 기둥을 안면도에서 베어오니 잠깐 사이에 바람이 천주개나 보내오네.
 바람의 신이 자귀를 나르니 어영차 소리가 땅을 진동하고
 늘어진 화덕에 탄炭숯을 부채질하니 풀무질 불꽃이 하늘을 태우네.
 먼저 북쪽과 남쪽의 방위를 정하고 드디어 하늘과 땅의 문을 열었다네.
 북두칠성을 따라 위치를 바르게 하니 선기옥형璇璣玉衡²⁹⁾이 아래로 드리우고

29) 북두칠성 중 세 번째 별에서 네 번째 별까지를 선기(璇璣)라 하고 다섯 번째 별에서 일곱 번째 별까지를 옥형(玉衡)이라 하는데 천문측량기구를 말하기도 한다.

명당(明堂)을 살피 지도를 만드니 현무(玄武)는 왼쪽으로 열렸구나.
 위에는 이층누각을 세우니 높이는 허공에 뜬구름을 벗어났고
 아래는 십자 거리를 통하게 하니 넓어라 그 길은 두 대의 수레 지나겠구나.
 원리와 모양은 낙서(洛書)의 한가지를 이행했고 모든 범위는 도성(都城)의 삼분을 줄였다네
 둥근 모양은 상현달(上弦月) 생김새의 활과 같아 엄숙하게 사방의 세력을 누를 만한 위엄이 있고
 가로로 길게 늘어진 버들잎을 닮았으니 그대로 만마리의 말을 매어 놓은 마당인 듯하네.
 마을에는 많은 점포를 열었는데 먹줄을 튕겨 놓은 듯 곧기만 하고
 논밭에는 세 갈래 길을 만드니 평평하기 숫돌과 같구나.
 백성은 임금의 낸 돈으로 모집하였으나 3일 동안 일하는 걸 안타까워하고
 해자의 물은 시냇물을 끌어오니 저절로 7리를 둘러싸는 형세를 이루었네.
 어느덧 병졸을 모으고 군량을 높이 쌓으니 이로 인해 아문을 승격하고 체모를 높이었다.
 개성과 강화의 제도를 본받아 관직을 우수 겸 장용외사의 이름으로 부르니 품질이 장상(將相)과 같게
 되었네.

제(齊)나라 임치(臨淄)에 수레바퀴가 서로 맞닿던 때처럼 사람마다 쌀밥과 생선국을 먹고
 한나라 호현(郿縣) 두릉(杜陵)의 뽕나무와 삼나무가 서로 얽혀나듯 많은 병사들이 탄자(彈子)를 깔고 말을
 달리네.

이미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여 더욱 많게 되니 때문에 인재를 기르는데는 방법이 있다네.
 동헌에 임어하니 관복을 입은 무리들이 나오매 재주를 갖춘 녹명(鹿鳴)에 나오는 준수한 선비들이며
 과녁을 설치하고 활쏘기를 시험하자 씩씩하게 토끼그물치는 나라의 간성(干城)이로다.
 동쪽에 이학사(李學士: 李暉)의 옛 집을 바라보니 모두 나라에 충성하는 뜻을 굳세게하고
 북쪽에 김 절도사(金俊龍)의 옛 성벽을 바라보니 적개심이 다투어 일어나네.
 어찌 하동의 팔다리처럼 중요한 고을일 뿐이겠는가! 도리어 진양처럼 보장하는 기틀이로다.
 높은 산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뽕뽕이 들어찼으니 천년제사의 향기로움을 보호하고
 호남과 경기의 수로와 육로가 교차하니 한편으로는 목구멍을 누르는 중요한 땅이로다.
 구름 장막을 푸른 산봉우리에 쳐놓았으니 굽어보면 땅을 치는 연기 꽃을 보는 것 같네
 생각하니 망루에서 봉황이 춤추고 생황을 불어 길이 천자에게 조회 가는 행차를 전송하는 듯하네.
 송나라 구평중(寇平仲: 이름은 準은 술 마시고 바둑만 두었지만 변경엔 놀랄 일이 없었고
 당나라 두보는 안록산의 난 때 누각에 의지하여 멀리 북두칠성만 바라보았네.
 이제 사방팔방으로 통하는 송가(頌歌)를 지어 자그마한 상량의 노래에 도움이 되고자 하네.

어여차 대들보를 동쪽으로 들어 올려라.
 팔달산이 높으니 사방이 똑같이 보이고

옥녀가 거문고 켜며 어느 곳에 내려왔나
 상서로운 구름 높이 솟으니 햇무리 붉게 피네.
 어여차 대들보를 서쪽으로 들어 올려라.
 바람 실은 돛은 끝없고 바다 구름은 낮은데
 유천柳川 일대는 봄을 그려놓은 것 같고
 뽕나무 무성한 그늘 속에서 빠꾸기가 우는구나.
 어여차 대들보를 남쪽으로 들어 올려라.
 하늘이 선침현룡원을 만드니 맑은 기운 가득 차고
 만년의 구슬 품은 언덕에 밝은 빛이 비추는데
 늙은 용은 한가히 놀며 깊은 못에 누워있네.
 어여차 대들보를 북쪽으로 들어 올려라.
 하늘까지 이어진 큰 길이 먹줄처럼 곧고
 붉은 햇살 멀리 태양 곁에서 오니
 깨끗한 명주실도 향안香案의 먹물을 적시네.
 어여차 대들보를 위쪽으로 들어 올려라.
 화산과 관악산이 삼삼하게 서로 향하니
 임금의 많은 군대가 고기비늘처럼 뻑뻑하고
 빛나는 뿔 새긴 성 위에서 늙은 중신 맞이하네.
 어여차 대들보를 아래쪽으로 들어 올려라.
 햇빛이 비치니 기와가 고기비늘처럼 반짝이고
 김매는 노래들 참 먹으라는 소리 태평한 세상 즐기니
 누렇게 익은 곡식이 들에 가득 찬 것 즐겁게 보네.

앞드려 생각하건대 상량한 뒤에는
 지붕이 무너지지 않고 자물쇠는 더욱 튼튼해서 거북바위 봉황산이 멀리 상서로운 정락성井絡星³⁰⁾을
 응하고,
 꽃봉우리 버들시내는 늘 금전과 곡식의 상서로운 기운 띠게 하라.

대제학大提學 홍양호洪良浩는 교서를 받들어 짓는다.

30)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별이름.

화홍문(華虹門) 화홍문 현판 1좌 ○ 상량문 현판 1좌 ○ 중수기(重修記) 현판 1좌.

○ 상량문

엎드려 생각하건대

은하수가 저리도 밝게 빛나며 한 하늘을 꾸며 밝게 돌아가고

무지개가 흘러 이곳에 들어와 특별한 땅 표시하며 높게 일어나니

옛 상서로움에 크게 응해서 새로운 현판을 내 걸었구나.

삼가 들으니 성왕(成王)이 2경(京)을 만들 때에 아버지 무왕(武王)의 유지(遺志)를 따랐고

좌사(左思)가 삼도부(三都賦)를 지을 때에 빛나는 시대의 큰 규모를 자세히 기술하였네.

천진(天津)이 예나 지금이나 변화함을 자랑하니 24절기의 밝은 달은 읊은 글이 전해졌고

땅의 운은 어둡고 밝고 느리고 빠른 때가 있으니 세월은 1,500년의 변창하던 때를 기다리네.

아름답구나! 우리 화성이여! 옛날엔 한나라 서울의 울타리 같다하였고 지금은 진양의 성꺾처럼 만 들어졌구나.

현릉원엔 소나무 가래나무 무성하니 임금께서 달마다 성묘하심을 보겠고

영남과 호남으로 가는 길이 낮고도 평평하니 배와 수레 날마다 들락거린다.

옥처럼 좋은 돌 공석(空石)에서 나오니 땅 이름이 먼저 상서로움에 부합되고

팔달산에서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뽑아내니 하늘의 마음 볼 수 있구나.

문왕이 영대(靈臺)를 처음 지을 때와 같이 날마다 수만 명의 자식처럼 오는 백성들이 있고

장락궁에서 잔치를 받들 때처럼 해마다 8,000개의 껍질 벗긴 과일이 있네.

마침내 화서(華胥)의 물가에 무지개다리 같은 수문이 세워졌네.

봉황이 춤추고 용이 나는 듯이 초수(菑水)를 천목산(天目山)에서 끌어오고

교룡이 둥글게 서려 앉고 호랑이가 걸터앉은 듯이 진회(秦淮)는 석두(石頭)로 통한다네.

높고 높게 북극성 가까이 살게되니 문 앞엔 천 개의 아름다운 봉우리 늘어섰고

도도하게 흐르는 물은 남쪽 나라의 기강이 되어 시냇가엔 한줄기 무지개 빛이 떠 있구나.

장안문과 어깨를 겨루고 팔달문과 마주 대하니 완연히 송나라의 궁궐처럼 웅장하고

화정(華亭)을 끼고 유천을 앞에 두었으니 의연히 주나라의 고응(皋應)³¹처럼 우뚝하구나.

이 때에 해 수레가 다 다르니 옥녀(玉女)와 명성(明星)이 태양길을 청소하고

달 수레가 돌아가니 푸른 무지개 보라색 신기루는 검은 물결에 출렁인다.

이 문은 만년의 기초를 열었으니 검은 거북이 기둥 밑에 엎드려 있고

다리는 반달 모양으로 세워져 있으니 푸른 용을 물 속에서 보는 것 같구나.

31) 중국 천자는 대궐에 고문(阜門) 고문(庫門) 치문(雉門) 응문(應門) 노문(路門) 등 5개 문을 세웠다.

벼논에 물대니 누런 곡식 넘실대며 큰 들에 가득차서
 꽃 핀 제방 잠길 듯이 푸른 물결 쿵쿵흐르고 소나기와 연못물이 함께 흘러 들어오네.
 이문은 북극성의 길을 본받아 곧게 이어졌으며 하늘의 집과 거리가 멀지 않다네.
 빛나는 산의 구름과 무지개가 서로 만나 신비한 무지개를 끌어다 시냇물을 마시게 하고
 꽃핀 산의 해와 달이 높이 걸려 있어서 인가의 연기와 뒤섞여 땅을 두드리네.
 만 골짜기의 흐르는 물방울을 받아서 그대로 큰 언덕을 이루었고
 천리를 흐르는 빠른 물결은 끝내 큰 바다로 돌아가네.
 이를 일러 산 맑고 물 고운 신선(仙)의 고장이요 땅은 신비하고 하늘은 견고하여 만물이 드러나는 때
 이
 내려다보면 안팎의 군영이 비휴(魏縣)³²처럼 나뉘어 있으니 북예(北豫)와 남예(南豫)같은 뿐 아니라
 멀리 바라보면 위아래 마을의 담과 개도 각각 그 집을 아니 신평(新豐)과 구풍(舊豐) 같기도 하다.
 앞 냇가에 가서 시를 읊으며 돌아오며 꽃을 찾고 버들을 따르는 기상을 얻어서
 이 누각에 올라서 내려다보고 쳐다보니 하늘빛과 구름의 그림자 배회하는구나.
 이에 어여차 소리에 맞추어 감히 상량하는 노래를 바치네.

어여차 대들보를 동쪽으로 들어 올려라.
 천추만세에 아름다운 남쪽 궁궐이라
 용이 없드린 다리 아래 시원한 물 맑고
 원기(元氣)가 길이 흘러 무지개가 견히지 않네.
 어여차 대들보를 서쪽으로 들어 올려라.
 높은 언덕 바라보니 아름다운 기운 가지런하고
 한 그루 오동나무에 꽃이 저녁에 피니
 아홉 떨기에 상서로운 봉황이 내려와 깃드네.
 어여차 대들보를 남쪽으로 들어 올려라.
 폐지어 나는 갈매기와 해오라기 맑은 연못에 가득하고
 헤엄치는 물고기도 임금의 은혜 무거운지 아는지
 다투어 봄 물결에 좋은 미끼 삼키누나.
 어여차 대들보를 북쪽으로 들어 올려라.
 하늘같은 큰 길이 서울에 이어져
 별처럼 늘어놓은 400개의 고을에

32) 비휴(魏縣) : 맹수의 이름으로 용맹한 군대를 비유하는 말이다.

온갖 물건 무성하게 모두 다 모여있네.
 어여차 대들보를 위쪽으로 들어 올려라.
 구슬 주머니 금 거울을 크고 밝게 베풀니
 화홍문 백척 대들보에 유신(維新)을 명하니
 큰 덕은 냇물처럼 흘러 큰 선물 이어받네.
 어여차 대들보를 아래쪽으로 들어 올려라.
 모든 냇물 출렁이며 남쪽들로 돌아가고
 빠른 물결 밤낮으로 화홍문에 흘러드니
 만개의 샘에서 피어나는 연기꽃이 하얀 두드림을 씻는구나.

엎드려 바라건대 상량한 뒤에는

밝은 수레와 흰말은 요(堯) 임금의 화(華) 땅을 보던 의식 본받고
 기린 같고 매뚜기 같은 자식들은 소(少)昊의 무지개 둘러싸인 경사를 이으소서.
 구름같은 사립문을 열어 백가지 복을 받고 오이덩쿨처럼 뻗어나가 신령스런 샘물을 뜨니
 만가지의 계책을 더한 흐름 물결처럼 흘러가서 이 좋은 때를 만났다네.
 큰 별은 광채를 더하고 비파소리 바람을 타니 임금은 칙명을 내려 백공들 노고 드날리고
 이어 부르는 노래 성에 가득차서 팔도에 전파되어 내게 화답하네.
 화홍문은 영원히 보존되어 흐르는 물처럼 심이 없기를 기원하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윤숙(尹塾)은 교서를 받들어 이 글을 짓다.

○ 중수기(重修記)

엎드려 생각하건대 화성유수영은 정조대왕 때에 창건한 신풍의 땅이고, 화홍문은 홍류화저(虹流華渚)의 뜻으로 순조께서 탄강하신 경사스런 의미를 붙인 것이다. 성대하도다! 문은 현무(玄武)의 궤도(軌道)에 있고 표묘(繚渺) 단청은 여러 전각보다 화려하다. 작은 시내가 무리를 이루어 흐르고 흘러 취합하여 강을 이루고 낮과 밤으로 흘러가는데, 그 하루로는 웅덩이를 채워 멈추기도 하니 한 고을의 인후(咽喉)이다. 을유(乙酉) 22, 1885년 봄 어명을 받들어 발탁되어 이 유수부를 안찰하게 되었다. 북쪽은 광교산(廣교山) 첨장(鎭)에서 내려다보고, 남쪽은 독성의 연진(連鎭)에 웅크려 바라보니 과연 삼남(三南)의 요충(要衝)이요 주구(珠邱)가 오운(梧雲)이로다! 드디어 천년토록 밀통하리다. 석교 매항은 삼영이 되니 담탕(淡蕩)하리라. 초루(譙樓)가 서로 교차하고 첨사(堞臺)가 응대하여 일어난다. 호수 건너 향미정은 거울 면에 그림 그리듯하여 화첩 속에 넣어 감춰두었다. 산봉우리를 눌러 장대를 만들고 번진(藩鎭)에서 공호하니 둘러침의 표준이라. 높고 높은 북극성에 있는 것 같고, 도도(滔滔)함은 남국의 벼리가 되는구나. 열은 구름이 끼고 가벼운 바람이

부는 한 낮의 하늘은 꽃이 피고 버들가지가 살랑 이는 구나. 정자는 영험하고 높은 꿩이 훨훨 날며, 각자성(關子城)은 용이 그 땅에서 나선모양으로 승천하는듯하니 문안의 만천(萬千)의 많은 집들에 빛과 그늘이 함께 하는구나. 이 해(고종 22, 1885) 여름 장맛비가 골짜기와 여울을 흘러넘치게 내려 충돌하니 기둥이 떠돌아다니고 울타리가 무너져 내려 활처럼 휘어졌다. 그리하여 하나의 전각이 심히 위태로워 보이니 살피는 것을 꺼릴 수 없도다. 비용을 마련하고 역사(役事)를 시작하니 특별히 진념(軫念)하시어 내려주신 은혜를 입어 백성들을 번거롭지 않게 하고 공사를 마쳤다. 여의교(如意橋)의 역사에 비교한다면 우월할 뿐만이 아니다. 끝마친 날 노래 부르니 네거리가 편안하고, 화성을 노래하니 서로 밝게 빛나고 서로 즐겁고 기뻐하였도다! 서로 함께 전과 같이 저홍(渚虹)이 무강(無疆)함을 보는 한가로움을 볼 수 있겠고, 가고 오는 사이에 계속 비추어 현혹되어 받아 안으니 작은 하늘에 흘러 다니는 이무기의 상서로움이 러니 곧 이 문이 있어 지금 준수하였으니 화성 백성들만의 경사가 아니라 곧 한 나라의 경사로다. 내가 유수의 직책으로 있으면서 수치(修治)하였는데 새롭게 헛되이 바꾼 것은 아니다. 눈으로 직접 본 성화(聖化)의 만분에 하나라도 본받고자 하였다.

상지 23년 병술(고종 23, 1886)년 7월 일 자헌대부 수원부유수 이헌식(李憲植)은 교서를 받들어 삼가 이 글을 짓는다.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 편액(扁額) 현판 1좌 ○ 상량문 현판 1좌.

○ 상량문

엮드려 생각하건대

용이 서리고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은 듯이 높은 담은 자물쇠의 형세를 장하게 하고 새가 날고 꿩이 날아오를 듯이 층층이 쌓은 성루는 선기옥형(璇璣玉衡)의 차례에 응하네.

한 지방의 아름다움을 드날리니 만세의 태평성대를 즐겨워하는구나.

이 화성을 돌아보니 우리나라에 적현(赤縣)을 설치하였구나.

한나라의 좌풍익(左馮翊)처럼 왼쪽을 보좌하여 가까이 서울에 이어져 있고

명나라의 봉양(鳳陽)처럼 많은 병사 두어 공손히 선침(仙寢)을 지키는구나.

하늘은 만들고 땅은 설치하여 성인의 세상 기다려 신령과 화합하고

산은 땃혀지고 시내는 흘러내려 지극한 덕 돌아보니 이 터와 어울리네.

이에 굳센 성과 꿩은 연못 같은 견고함 지어 새로 판자대고 쌓는 공사하는구나.

높은 성가퀴는 구름과 이어져 한강 남쪽의 기운과 모양을 더하였고

웅장한 관문이 땅에 꽃히니 호남 오른쪽의 요충지를 제어하는구나.

별궁은 태미성의 담장을 안은 듯 구중의 금빛 대궐 이루었고

보배로운 경계는 낭풍원(廊風苑)을 본떠서 12층의 백옥루(白玉樓)를 이루었구나.
 성공하는 것은 백성의 마음에 달려 있으니 공사에도 백성들의 힘 번거롭게 하지 않았구나.
 보아라 저 성가퀴의 한쪽 면은 용연(龍淵)의 윗머리에 있으니
 만 떨어기의 연꽃 같은 여러 봉우리는 춤추듯 나는 형세 바치고
 천 줄기의 수양버들 같은 긴 시내는 그물 같은 그림의 빛을 펼치네.
 홀로 뛰어나 붉은 언덕 위에 세웠으니 모든 부의 아름다운 형세를 독점하였고
 둥근 거울을 푸른 연못에 굽어 비치니 특별히 다른 구역의 풍경을 열었구나.
 드디어 목수에게 명령하여 아름다운 건물을 세웠다네.
 길다란 기둥이 물가에 걸쳤으니 채색 무지개가 이어져 꿈틀거리고
 높은 난간은 별을 쓰디듬을 듯하니 흰 비단 띠에 얹혀 구불구불하구나.
 붉은 노을이 봄 나무를 덮어 비추니 만 사람의 집을 둘러싸고
 푸른 물결이 실 같은 연기에 둘러싸이니 그 가지가 10리의 길에 떨치는구나.
 층층이 쌓인 기둥과 겹겹이 감싼 난간은 이름난 도회지의 변화함을 더욱 무성하게 하고
 열은 구름 가벼운 바람은 아름다운 절기를 마음껏 즐기는구나.
 눈을 돌려 대궐 쪽을 바라보니 흐르는 내와 솟은 고개가 생동하는 빛을 자랑하고
 정자에 아름다운 이름을 달았으니 붉은 꽃 푸른 나무까지도 영광을 머금은 듯하구나.
 조각한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니 봄의 화창한 빛이 나라를 세우던 그 날에 머무르는 듯
 임금의 수레 때맞추어 오시니 임금의 기운이 상원(上苑: 대궐 안의 동산)의 봄과 통하는구나.
 성곽과 강산은 곧 임금의 아버지 사모하는 땅이요
 누대와 풀과 나무는 늙은이들 임금이 성묘하는 뜻을 바라보는 듯하네.
 긴 대들보를 추켜들면서 공손하게 좋은 노래 부르노라.

어여차 대들보를 동쪽으로 들어 올려라.
 일자로 뻗은 춘산(春山)은 그림같고
 행궁에 임금의 자리를 열었나 의심하더니
 부상(扶桑)의 상서로운 빛이 새벽에 먼저 물드네.
 어여차 대들보를 서쪽으로 들어 올려라.
 늘어선 무지개 다리밖 금빛 방죽 호위하고
 사람마다 유수의 도회지가 즐겁다고 말하니
 달 아래 생황노래 소리 만호에 어울리네
 어여차 대들보를 남쪽으로 들어 올려라.
 높은 산 까마득히 저녁 구름 머금고

우림군^{羽林軍} 천기^{千騎}가 새해 아침 조회하고
 푸른 잣나무에 이슬이 달게 내리는구나.
 어여차 대들보를 북쪽으로 들어 올려라.
 푸른 나무 가운데에 넓은 길이 곧고
 그 위에 높게 주필대^{柱理臺}가 있으니
 봄바람 한 떨기에 깃발이 빛 나누나.
 어여차 대들보를 위쪽으로 들어 올려라.
 보배로운 누각 옥같은 집 멀리서 바라보고
 별가운데 버들이요 달가운데 꽃이니
 하늘이나 인간이나 모두 한 모양일세.
 어여차 대들보를 아래쪽으로 들어 올려라.
 평평한 눈에 물이 희니 양마^{秧馬}³³ 농기구의 이름으로 모를 심을 때 이에 걸터앉아 심는다.
 가더 있고
 때를 알아 비 와서 풍년을 점치니
 가을되어 누런 곡식 들판에 가득차네.

엎드려 바라건대 상량한 뒤에는
 봄빛은 늙지 않고 땅의 신령 몰래 도와 현릉원은 만년토록 울창한 아름다운 기운 떠다니고
 금성천리에 길이 반석같이 편안한 큰 터를 정하소서.
 어린 버들과 작고 고운 복숭아는 모두 신령스런 봄의 나무가 되고
 어린아이와 머리 흰 늙은이는 함께 강구연월의 백성이 되어 즐기도록
 아름다움이 끝없이 일어나고 태평성대의 기상이 있도록 하소서.

좌승지 이서구^{李書九}는 교서를 받들어 이 글을 짓는다.

동장대^{東將臺} 연무대^{鍊武臺} 현판 1좌 ○ 상량문 현판 1좌.

○ 상량문

엎드려 생각하건대
 별처럼 늘어선 삼백^{三百}의 고을에서 이 화성의 새로운 관부가 최고요

33) 농기구의 이름으로 모를 심을 때 이에 걸터앉아 심는다.

구름처럼 주둔하고 있는 육천^{六千}의 병마에 우뚝하니 장수의 높은 단이 서 있으니
 해 떠오르는 모퉁이에 하늘이 설치한 것 같구나.
 무릇 장수는 만 병사의 으뜸이요 대는 사방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높은 곳이라
 주나라는 십련수^{十連帥}를 세워 간성으로 나라를 방위하게 하였고
 한나라는 상장군의 도장을 주었으니 금단^{金壇}이 곧 그 처음이 되었네.
 진실로 중책을 맡겨 권력을 제어하면 성벽과 깃발에 광채가 나듯 모두 변하고
 어느덧 호령을 하고 명령을 내리니 천지풍운의 정칙과 변칙이 나오는 곳이라네.
 앞에 물을 두고 오른쪽에 산을 두는 것은 옛날의 법칙이요
 뽕나무 뿌리 캐다가 비오는 때 대비하라고 시경^{詩經}에 이르지 않았던가?
 공손히 생각하니 우리 임금은 성스럽고 신령한 문황과 무왕의 자태요
 요임금 순임금 증자와 민자건 같은 효자시라 산처럼 언덕처럼 오래오래 사시기를
 태산처럼 반석처럼 튼튼한 세력은 억만년 끝없는 아름다움이 되고
 서리 이슬 내리면 어버이 생각 간절하고 갱장^{羹場}에도 어버이 모습 비치듯 사모하여
 20년을 하루같이 지내셨구나.
 그러다 진룡^{眞龍}이 천년의 신비를 열었고 신령스런 거북은 세 번이나 점쳐도 좋다고 하네.
 현원씨^{軒輗氏} 죽은 언덕에 활과 칼을 같이 묻으니 물은 더욱 맑고 산은 더욱 수려하며
 사당에 영정은 살아 계신 듯 엄연하니 소나무는 무성하고 대나무는 떨기로 나네.
 비록 제사를 모시는 관리가 있으나 임금의 마음은 항상 삼가고 동동거리며
 해마다 수레를 타고 살피러 오시면서도 문득 걸음이 느림을 깨닫는다네.
 이에 고향을 돌아보시고 탕목읍^{湯沐邑}으로 만드셨네.
 윗 기둥과 아래 지붕엔 꿩이 날고 새가 나는 것처럼 환하게 새로워졌고
 패수^{沛水}와 풍산^{豐山}에 닭 울고 개 짖는 소리마냥 사람이 많네.
 1년만에 취락을 2년만에 고을을 만들었으니 무릉^{茂陵}의 부호를 옮기듯 번거롭지 않았으며
 하마^{下馬}하여 백성을 다스리고 말을 타면 군대를 관장하게 하여 동도^{東都}의 우수부로 승격시켰네
 군대는 오영^{五營}의 지휘를 받지 않으니 따로 화극^{畫戟}을 세워놓은 군문이라네.
 땅은 삼남의 갈림길에 있으니 어찌 쇠항아리 무쇠 철벽같은 견고함이 없겠는가!
 궁실과 관부가 있으면 반드시 성곽이 있고 성곽이 있으면 반드시 누대와 해자가 있으니
 드디어 흰 성가퀴는 유천^{柳川}가 양쪽에 벌려 섰고 붉은 성루는 팔달산 위로 높이 솟았네.
 단안은 임금께서 내리셨는데 규모와 제도는 대략 진양^{晉陽}을 모방했고
 비용은 임금의 돈에서 나왔기 때문에 공사를 우부^{虞部} 호조에 맡기지 않았네.
 용이 서리고 호랑이가 걸터앉은 것처럼 엄연하게 무쇠 성을 둘러싸고 꿩은 연못 둘러싸니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어 장수의 깃발을 세울 만하구나.

지키는 장수의 우익인 삼보三輔가 맞으니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돕는 형세가 이루어지고
 친군위의 용맹한 군사 천 명은 춘추시대 사냥을 통해 훈련을 하네.
 매향梅香동의 옛 마을을 바라보니 본디부터 한나라 분사粉社처럼 좋은 곳이라 하네.
 왼쪽에는 석성石城이 오른쪽엔 광릉廣陵이 있으니 안석에 편안히 기댈 수 있고
 멀리는 가잠伽岑이 가까이는 모악母岳이 있으니 아들과 손자들이 늘어선 것 같구나.
 천년 세월이 돌아오니 땅의 신령함은 옛 갑자의 경사에 부합하고
 팔방에 여덟 문이 열리니 하늘의 별자리는 석목析木의 자리로 나뉘는구나.
 황제皇帝와 율료자蔚繚子: 진시황을 도왔던 병법가의 책에 어쩌서 반드시 북쪽 산을 점령하는 자가 이긴다
 했나.

푸른 용이 복과 덕을 주는 형상이라 동쪽에서 오는 것이 귀한 까닭이라네.
 위대하구나! 못 마음이 성을 이룸이여 우뚝하니 천척千尺의 흙을 쌓아 올렸구나.
 바람이 해를 휘몰 듯이 빼죽빼죽 하늘까지 솟은 용마루요
 귀신이 옮겨 왔나싶게 다른 산의 돌덩이 높게도 쌓여 있네.
 북문의 자물쇠 더욱 무거우니 구진句陳과 태을太乙의 별이 자미성에 읍하고
 서장대의 깃발과 북이 서로 마주하니 태산과 화산이 적현赤縣³⁴⁾을 갈라놓은 듯하네.
 강물은 맑고 바다는 편안한데 돌아보니 무엇 때문에 군사를 쓰겠는가.
 땅은 이롭고 사람들은 화합하니 또한 장수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듯이 높고 아름다운 것은 대개가 쌓고 다듬은 공 때문이네.
 8개의 창문은 영롱하여 공중에 솟은 누각에서 웃짓을 헤쳐 바람을 받고
 삼군은 고요하고 엄숙하니 물勿자의 깃발을 주목하네.
 외성에 무마舞馬의 마당을 여니 과군표過君表와 축수곡逐水曲의 예법禮法이요
 군복 입고 활쏘는 짝을 고르니 그 절차는 추우번騶虞旌과 이수장鯉首章이라.
 북 치면 나라가고 징 치면 물러나니 모두 자벽子壁에 응하고
 가벼운 갖옷 입고 느슨한 띠 둘렀으니 좋구나 이가 바로 중군中軍이라네.
 다시금 날아갈 듯한 누각 일층에 올라가서 시험 삼아 높은 대를 향해 사방을 바라보니
 용릉春陵 아름다운 기운 땅에 닿아 성묘 오는 임금님의 행차 달마다 오고
 장안문 큰길은 하늘같이 넓으니 봉래산 구름이 가까이 있구나.
 바다로 나가고 산에 오르는 길목엔 고문阜門과 응문應門이 세워졌고
 남자와 여자 모두 기뻐하고 좋아하는 노래가 남쪽 마을 북쪽 마을에서 들리네.
 용연에서 아득하게 서까래를 일으키니 천 떨기 연꽃처럼 화사롭고

34) 왕도의 관할 하에 있는 고을.

무지개 뜬 물가에서 꿈틀거리는 대들보 실어오니 한줄기 맑은 은하수 같구나.
 세 번 싸워 이긴 위대한 공적은 총장공 권율이 싸우던 높은 봉우리요
 백 세대를 감도는 맑은 바람은 문창공 최치원이 글을 쓰던 옛 터라네.
 하늘이 내린 관부의 견고함 두루 살펴보니 진실로 성인 효자 나올 만하구나.
 궁실의 아름다움과 백성과 재물 많음은 대개 오래 새로운 읍에서 천명을 누리게 함이요
 이미 성지(城池)가 완비되고 병마가 조련되니 또한 반드시 서울의 융성함과 비길 만하구나.
 만그루 복숭아나무 오얏나무 지름길을 이룬데다 이미 대를 세우고 연못을 파며
 천 이랑의 곡식이 언덕처럼 쌓였으니 군사들을 농사짓게 할 수 있겠구나.
 지금부터 나란히 정리된 물 흐르는 성은 구정(九鼎)³⁵과 대려(大呂)³⁶보다 무겁구나.
 어찌 다만 빛나는 금도끼로 천리에 쳐들어온 적을 물리칠 뿐이겠는가.
 그러므로 한쪽 면을 도모하는 책임을 맡아 상량의 노래 돕고자 하노라.

어여차 대들보를 동쪽으로 들어 올려라.
 교룡의 꼬리와 뿔이 오색 구름에 있고
 봄의 군영에는 호각소리 전쟁 기운 없으니
 방삭성(方朔星)이 기수궁(箕水宮)에 임했구나.
 어여차 대들보를 서쪽으로 들어 올려라.
 무기고의 맑은 서리 팔방에 엄숙하고
 작은 바람 일어 서쪽에서 휘파람 소리
 금단을 둘러싼 점점이 삼성(參星) 깃발 가지런하네.
 어여차 대들보를 남쪽으로 들어 올려라.
 하늘이 주작을 세 번째에 고르게 배열하고
 해마다 꽃술 빚어 오래 삶을 즐기니 장수별이 와서 비취 상서로운 빛 잠기네.
 어여차 대들보를 북쪽으로 들어 올려라.
 만고의 검은 거북 하늘의 바른색이고
 45개의 구슬 우림군(羽林軍)을 벌여 놓은 듯
 군문에서 홀로 원수(元帥)의 직책 맡았네.
 어여차 대들보를 위쪽으로 들어 올려라.

35) 우입금이 홍수를 다스리고 9주(州)의 쇠를 모아 만들었다는 솥으로 하나라 은나라 이래 중국에 전하여 오는 천자를 상징하는 보배이다.

36) 대려조의 곡조에 맞추어 치던 주나라 조정의 큰 종.

아홉궁궐 여덟 기둥 바람과 구름 뒤흔들고
 자미성은 임금의 자리라 세 자리 중에서
 앞별의 광채가 가장 왕성하구나.
 어여차 대들보를 아래쪽으로 들어 올려라.
 삼천의 큰 세 개에 은하수가 들에 괴어있고
 남쪽, 북쪽, 동쪽, 서쪽에서 모두 우리 임금 큰집에 들어오네.

앞드려 바라건대 상량한 뒤에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땅이 되어 남산처럼 오래가라.
 도끼를 주어 장수를 단에 오르게 하니 장수는 범할 수 없는 기상이 있고
 돌을 던지고 뛰어오르는 군사들은 모두 즐거이 쓰일 수 있는 재목이 되기를
 부종의 수레와 말은 흐르는 물같이 붉은 깃발과 푸른 일산을 달았고
 병사 앞의 풀과 나무도 빛을 바꾸니 범 같은 지락이요 용 같은 병법이라
 꺾 깃털 소꼬리 깃발이 하늘에 휘날리니 세류영(細柳營)의 군사처럼 기강이 있고
 조두(趙都)가 밤에 고요하니 감천산(甘泉山)의 봉화가 편안함을 알리네.
 주나라 문왕이 영대(靈臺)를 지을 때에 백성들의 힘으로 하지 않았듯이
 요임금이 화(華) 땅을 보러 갔을 때 봉인(封人)이 성인을 축복하듯 되어라.

규장각제학 이만수(李晩秀)는 교서를 받들어 이 글을 짓다.

창룡문(蒼龍門) 편액 현판 1좌 ○ 상량문 현판 1좌.

○ 상량문

앞드려 생각하건대
 원릉(園陵)에는 진실로 신령이 있으니 옷과 갓을 원묘(原廟)에 받들고
 왕공은 나라를 지키므로 중요한 관문에 옷깃과 띠를 둘러싸는구나.
 물노니 성의 동쪽 문은 특히 한남(漢南) 수원의 별칭의 경승지라.
 생각건대 이 화성부는 우리나라의 주구(珠邱)로 봉한 곳이라.
 누런 닭이 때를 알리니 땅은 신령한 지역의 기운을 열었고
 풍수가는 상서로움을 고하니 하늘이 성인의 복장(祿藏)터를 주셨네.
 점을 치니 용이 서린 것처럼 길하다 하고 점괘가 또 거북점에 들어맞는구나.
 물은 맑음을 더하는 듯하고 산은 수려함을 더하는 듯하네.
 한 지방의 바람기가 비로소 열리니 2년에 읍을 이루고 3년에 도회지를 이루어서

사방의 백성과 물산이 점점 많아지네.

임금께서 선향(仙鄉)의 둘러싸 호위함을 생각하여 부지런히 원읍(園邑)을 경영하셨네.

옥같이 소중한게 도모하시고 금같이 소중한 법규를 펴셨네.

안으로는 장용영을 설치하고 밖으로는 외정리사를 겸하게 하니

그윽하게 멀리 바라보는 큰 규모는 아래로는 백성의 힘을 쓰지 않고

위로는 큰 농사를 번거롭게 하지 않았으니 아름답도다! 홀로 움직인 임금의 결단이며

구름의 뿌리를 크고 신령스러운 도끼로 쪼개니 조물주가 도와주는 듯하고

별들이 영실(靈室)³⁷⁾의 자리를 감싸고도니 하루도 안되어 완성을 기약할 수 있겠구나.

어느덧 물을 이끌어 연못을 만들고 화산을 둘러 성곽을 쌓으니

이른바 다섯 판자로 담장을 만들고 100개의 치료 성을 쌓았네.

첫째는 숫자를 나누는 일이고 둘째는 재료를 준비하는 일이고

셋째는 해자와 참호를 파는 일이고 넷째는 기초를 쌓는 일이라

임금의 지혜가 계책의 대략을 나타내니 음지와 양지를 살피고

흐르는 샘물을 살펴서 습지와 언덕을 헤아리고

큰 시내를 끼고서 여러 계책을 지휘하셨네.

반드시 망루의 웅건함이 있어야만 비로소 관문의 웅장함을 볼 수 있だね.

무거운 것을 끌고 멀리서 운반해 오기 위해 임금의 수레를 호위하는 제도가 마련되고

처음에 바른 위치를 펴기 위해서 북쪽에 성 세우고 남쪽에 망루 세우는 일이 펼쳐지네.

처음 낙양을 경영하는 제도는 바로 송(宋) 태조의 개업을 우러렀고

태산을 순수하는 위(威)는 순(舜) 임금이 사홍(泗水)³⁸⁾을 물리친 것을 예비하는 것이라

비로소 순서대로 나무를 깎아 마침내 부상(扶桑)³⁹⁾의 터에 대비하였네.

팔달산을 잡을 듯이 서쪽을 바라보니 위로 푸르른 언덕이 가깝고

한쪽 면을 열어 동쪽을 제압하니 앞에는 용성(龍城)에 임하였구나.

장차 금성(金城)의 형세로 튼튼히 하려하니 이에 홍예(虹蜺)의 자세를 취하였네.

예장(豫章) 편남(椹楠)같은 좋은 재목 아울러 이르니 바람은 구포에 돛단배를 보내오네.

동자기둥 서까래에 새로운 무늬 새기니 구름은 교연각(蛟淵閣)에 닿아 있네.

철옹성같은 관문이 높이 솟으니 한나라 장안의 삼보(三輔)⁴⁰⁾제도와 비교되고

37) 28수 중의 북쪽 현무 7수의 하나로 집짓는 것과 관계가 있다.

38) 순임금때 네 사람의 악인으로 공공(共工), 환도(驩兜), 삼묘(三苗), 곤(鯀)을 말한다.

39) 중국 신화에 나오는 나무이름.

40) 한나라 때 당안 동쪽을 경조윤(京兆尹), 장릉 북쪽을 좌풍익(左馮翊), 위성 서쪽을 우부풍(右扶風)이라 하여 삼보(三輔)라 하였는데, 서울 근교에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금방金榜이 처음 열리니 섭제攝提와 동방칠수東方七宿의 호칭에 응하네.
 지키면 견고하다는 이름이 여기 있으며
 넓고 넓어 올라올 수 없으니 참으로 땅의 험함을 믿을 만하구나.
 푸르고 푸르름이 바로 그 정색이니 하늘의 도움이 아니면 그와 같지 못할 것이라
 새가지 채색과 여섯가지 등급이 빛나니 때는 초봄을 맞이하였고
 아홉 무늬 다섯 색깔의 그림은 지난 밤 길몽에 들어맞았네.
 먼저 동문에 햇빛비치니 신령스런 바다거북의 상서로움 감싸고
 아침이면 채색 기둥에 구름이 날아 그림자는 무지개 뜬 물가 맑은 물결에 잠기네
 못 사람의 마음이 성을 이루어 임금이 한번 오시면 법도가 되네.
 중천에 아름다운 집을 세우니 아름답구나! 산하여
 큰 봉우리같은 나그네 기둥을 세우니 슬프구나! 서리와 이슬이여
 임금께서 사모하는 고향 반드시 공경하여 읍사邑社를 분유粉榆라 이름지었네.
 한나라는 오릉五陵을 호개豪蓋로 옮기니 가까이에 곡식이 잘 되기 때문이고
 주나라는 삼문三門의 길을 넓혔으니 길이 조상의 능침을 보고자했기 때문이라
 을묘정조 19, 1795년에 낙사에 이르러 길이 즐거워하는 술잔을 올렸네.
 군사가 그 집을 보호하는 일은 시경 시간斯干에서 연주하네.
 빛같은 삼팔의 왼쪽 푸르름을 취하고 덕은 구오九五의 하늘을 나는 용과 짝하였네
 맑은 밤 밝은 달은 남쪽 누각에 오르는 길을 비추고
 청아한 노랫소리 투호投壺놀이는 북문이 외침 막아주는 걸 의지하네.
 이에 장차 만년의 송축으로 삼아 공손히 상량의 글에 도움이 되고자하네.

어여차 대들보를 동쪽으로 들어 올려라.
 우러러보니 앞별은 동궁을 둘러싸니
 봉수당의 깊은 붉은 바다와 같고
 천년의 경사로운 잔치에 임금의 은혜 기억하네.
 어여차 대들보를 서쪽으로 들어 올려라.
 비늘 같은 용마루 한 굽이에 붉게 쓴 글 빛나니
 멀리 둘러 있는 영화역에
 고운 빛 만발한 꽃 그늘에 푸른 말발굽 흠어지네.
 어여차 대들보를 남쪽으로 들어 올려라.
 발두둑에 부드러운 뽕나무 날리니 양잠이 가깝고
 구월 빈나라⁴⁰ 교외에서 토지신의 북소리 들리니

붉고 새로운 수_繡 꽃바구니에 비치네.
 어여차 대들보를 북쪽으로 들어 올려라.
 느리고 느린 가마길이 푸른 밧줄마냥 곧은데
 화산에 잠깐 비 내리고 임금의 수레 멈추시니
 밤새 이어부르는 노래 임금의 붓을 들게 하네.
 어여차 대들보를 위쪽으로 들어 올려라.
 하늘 문 새벽빛에 닭소리 사람소리 화답하고
 새로운 성 제도는 임금의 껍에서 나오니
 꽃잎과 버들잎 모양에서 찾을 수 있네.
 어여차 대들보를 아래쪽으로 들어 올려라.
 비렴_{飛廉}⁴²이 달아나다 곤오_{昆吾}에 빠져죽듯
 덧붙여 아홉쪽의 지도를 그려놓으니
 그림 같은 포루와 연기 쌓인 돈대가 그림자처럼 비치네.

엎드려 생각하건대 상량한 뒤에는
 주나라 말은 화양_{華陽}으로 돌려보내고 희화_{羲和}⁴³는 양곡_{陽谷}에서 해를 모니
 하늘에 문이 열리고 땅에서 문이 닫혀 왕래가 끝없음을 통한다고 하네
 농부는 들에 있고 선비는 조정에 있어 나그네들 모두 그 길로 다니게 하라
 규장각검교 직각 윤행임_{尹行愆}은 교서를 받들어 짓다.

팔달문_{八達門} 편역 현판 1좌 ○ 상량문 현판 1좌

○ 상량문

엎드려 생각하건대
 새로운 읍지에 중요한 국방의 요새를 설치하니 높은 담장이 우뚝하니 서 있구나.
 큰 규모를 층층 누각에 헤아리니 서로 마주보는 화려한 집이 세워졌네.
 어찌 한갓 사방에 서울의 아름다움만 보겠는가! 참으로 임금이 선침을 받드는 정성이라네.
 오로지 이 화성 한 구역은 옛부터 경기지방의 웅장한 진_鎭이었다네.

41) 주나라의 조상이 살았던 땅. 하나라 때 농사일을 맡은 기_棄의 후손인 공류_{公劉}가 빈_邠 땅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주나라의 기틀을 잡았다.

42) 은나라 주_紂왕 때의 간신 이름이다.

43) 『서경_{書經}』 「요전_{堯典}」 역상_{曆象}을 맡은 벼슬 이름이다.

서울과 100리도 안되는 가까운 곳이라 하늘이 이러한 형편을 만들어 놓았네.
 관방의 요새지로 3도의 교차지점에 있고 땅은 둘러싸고 막는 위치에 속해 있네.
 6,000이나 되는 병마를 거느리니 오히려 외도감外都監이란 호칭이 전하고
 90개의 마을에 백성과 재물이 매우 풍부하니 우부풍右扶風의 중요함에 뒤지지 않는구나.
 아! 원침園寢: 현릉원을 옮겨 모시게 되어 갑절이나 고향을 공경하는 마음 느끼게 되었네.
 공손히 만년토록 활과 갈 들러 뒤따르니 다시는 도호부의 옛 관아가 아니라네.
 해마다 임금께서 수레타고 오시니 드디어 팔다리 같은 중요한 고을로 새로운 규모라네.
 여기 흐르는 물과 높은 언덕은 무성히 한나라 고조가 풍읍을 옮기는 효도에 견주고
 이 땅을 가르고 정리하니 아아! 주나라 무왕이 낙읍건설을 도모함과 같구나.
 집들이 아주 편안하니 어느덧 임금께서 행차를 멈추시고
 강보에 싸인 백성들이 수레를 따라오니 어느덧 큰 도회를 이루었구나.
 돈과 곡식과 군사가 없는 곳이 없고 선비와 농사꾼, 장사치가 반드시 여기에 있네.
 거리를 따라 점포가 벌려서 있으니 북적이던 제나라 시장에 사람들의 어깨 비비듯하고
 부賦를 바치고 경서를 이야기하니 노나라의 거문고 소리가 귀에 가득하구나.
 나서 성장한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 거듭해서 노적을 쌓고 창고에 쌓아두네.
 일의 면모가 더욱 높아지니 어찌 성을 쌓고 연못을 파지 않겠는가?
 남쪽 이웃과 북쪽 거리에는 마땅히 높이 대접하는 방법을 다해야 하고
 큰 도회와 이름난 성에는 스스로 막아 호위하는 장소가 있네.
 이에 주역의 모든 사물을 기르는 모양을 본받고 드디어 고인의 비오기 전에 집 고치는 계책을 따른
 다네.

임금의 수레가 머물러서 이 언덕을 살펴보고 토규土圭를 가지고 땅의 경계를 정하며
 호부虎符를 주어 일을 감독하게 하니 삼태기와 삽을 들고 일하러 간다네.
 구름을 떠날칠 만한 나무는 무진장 많은데 땅이 어찌 보배를 아끼겠으며
 역사 북이 일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니 사람들 스스로 바람처럼 달려드네.
 일군들 부지런함을 본받으니 혹시나 귀신의 힘을 빌렸음인가!
 목수들 재주는 교묘함을 다하니 갑자기 무지개의 모양이 생겨나는구나.
 북문의 누각이 잠깐동안 완성되더니 남쪽 성의 기둥이 이미 높이 솟아오르네.
 문설주와 문지방이 법도에 꼭 맞으니 남북의 방위가 틀리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는 기약이 가까우니 을묘·병진년에 걱정하던 임금의 마음이 조금 놓이네.
 안면도에서 재목을 가져오니 배와 수레가 날마다 편안히 실어오는 것이 보이고
 길이 높은 산에도 나 있으니 황홀하여라! 임금께서 성묘하러 오시는 것 같구나.
 남자와 여자들 때로 몰려 기뻐하며 이야기하고 나그네들 모여들어 새로운 광경 구경하네.

무쇠 같은 성과 꿩은 연못 같은 이곳은 오래오래 끝이 없는 왕업을 보호하고
 푸른 기와와 붉은 서까래는 길이길이 뽑히지 않는 기틀을 정하였네.
 멀리 쌀밥 먹고 생선국 먹는 마을 끝까지 바라보니
 따로 이것은 아름다운 경치라! 산이 두르고 내가 흐르는 곳에 유서 깊은 집들이 있어.
 여기서 새로이 사는 것을 즐거워하네.
 비록 보호하고 다스림은 개성·강화에 비견되지만 홀로 위중(威重)한 것이 팔도의 으뜸이라
 참으로 해자와 참호의 제도를 갖추지 않은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휴식하게 한 것인 즉,
 어찌 원침(園寢)을 높이는 의절이라도 성심에 좋아하시겠는가?
 공사비용은 전부 임금께서 사사로이 지출했으니 진실로 임금의 밝은 덕을 베풀었고
 부역은 농번기를 빼앗지 않았으니 모두 선대의 백성들을 감싸주는 아름다운 덕이라 하네.
 감의 상량의 노래를 본받아 일꾼들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한다.

어여차 대들보를 동쪽으로 들어 올려라.
 용연에 밝은 해가 먼저 붉게 떠오르니
 무성하게 상서로운 한 구역에 조화하고
 해마다 비바람 순조로워 풍년이 드네.
 어여차 대들보를 서쪽으로 들어 올려라.
 팔달산 높이와 가지런한데
 높은 발 발가는 소 왔다갔다하니
 중정(中亭)과 화곡(畫謁)이 평평하게 낮구나.
 어여차 대들보를 남쪽으로 들어 올려라.
 유천(柳川) 봄물은 쪽빛처럼 푸르는데
 무덤과 사당이 아주 가까이 있으니
 아름다운 기운이 아침저녁 비치네.
 어여차 대들보를 북쪽으로 들어 올려라.
 붉은 구름 끈계 서울을 가리키니
 노인들은 임금의 행차를 기쁘게 맞이하고
 봉인(封人)은 임금의 덕 축복하길 청하네.
 어여차 대들보를 위쪽으로 들어 올려라.
 높이 솟아 경기지방의 장막이 되어
 여러 사람 마음이 오랫동안 성 쌓기를 생각하여
 거리의 노랫소리가 나무꾼의 노래 소리에 화답하네.

어여차 대들보를 아래쪽으로 들어 올려라.
 풍년들어 누런 곡식 들판에 가득한데
 문으로 가르침도 삼사⁴⁴를 써서 거문고 소리 드높고
 군대의 위용은 백 개의 부대에 활과 말이라네.

엎드려 생각하건대 상량한 뒤에는
 땅의 신령이 몰래 붙들어주고 하늘의 아름다움 많이 이르게 하소서.
 산과 시내의 안과 밖은 큰나라 당겨서 빛이 있게 하고
 기둥과 서까래는 둥그렇게 높이 솟아 오래오래 내려가서 견고하게 되소서.
 판중추부사신 이명식^{李命植}은 교서를 받들어 이 글을 짓다.

서장대^{西將臺} 화성장대^{華城將臺} 현판 1좌^{어필} ○ 상량문현판 1좌 ○ 어제^{御製} 현판 1좌^[어제시, 위를 볼 것]

○ 상량문

엎드려 생각하건대
 경기 땅 천리에 머무른 까닭은 백성들이 화합하여 새로운 큰 읍에 모였기 때문이고
 삼군^{三軍}에서 장수를 빼앗지 못하기에 멀리 높은 장대를 세웠다네.
 지금 이곳에서 누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겠나 무거운 책임을 부탁할 사람은 장수라네.
 오직 화성의 지세는 진실로 우리나라의 관방^{關防}이 되는지라
 산과 내는 신령스러움 본받아 임안^{臨安}의 용과 봉황이 춤추는 듯하고
 노인들이 흐느낌 가리울 때는 구령^{龜嶺}의 학이 춤추는 생황소리 듣는 듯하네.
 나라의 큰 울타리인지라 북쪽의 성문화 곧게 이어지고
 크게 멀리 중문^{重門}을 만들어서 삼남의 배와 수레 오기 기다리네.
 까마득히 산 높고 물 맑으니 김장군^{金俊龍}의 군선 혼백 있는 듯하고
 오래로구나! 하늘은 견고하고 땅은 신비하니 유처사^{柳處逸}의 한쪽 눈이 귀신과 같구나.
 아아! 우리 임금님의 밝음이 먼 책략을 넓히시니
 구름이 피어나고 안개가 모여 땅을 두드리며 마을에서 솟아오르고
 바람은 해를 몰아 돌아 감으니 하늘로부터 임금님의 명령이 내리네.
 3리의 성과 7리의 관은 하늘에 구름 끼지 않은 때에 귀신같은 기지로 만들었고

44) 송나라 신종(神宗)때 관리를 등용하던 방법. 처음 입학하는 사람을 외사(外舍)라 하여 700명, 외사에서 내사(內舍)로 승격하는 사람이 200명, 내사에서 상사(上舍)로 승격되는 사람이 100명으로 각 단계마다 경서를 독파시켜 매달 그 성적을 살펴서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한 사람이 막아서면 만 명도 열지 못하니 시냇물이 흘러오듯 나라의 복 이어지네.
 이에 임금의 돈을 내려 천군이 날뛰고 산에서 돌 깎으니 만 덩이가 다투어 오네.
 용연龍淵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일하는 장정들 비오는 듯한 땀 거두어주고
 구포鳩浦의 잔잔한 물결에 바다의 신은 구름가지 달을 재목을 바치네.
 천 개의 성가퀴 높고 높으니 서울의 위세와 더불어
 나란히 세워 놓은 만 개의 흠방망이 튀어 오르니 여러 사람마음 끌어 함께 이루네.
 편안할 때 위태로움 잊지 않는 게 귀한 것이니 어떡해야 지키는 요령 얻을 수 있나.
 어린아이 불러 편안하냐 물어보니 혹은 한나라 태조와 같고
 여기 대장 누가 좋으나 물어보시고 한나라 광거병霍去病⁴⁵⁾을 여기 있게 하시네.
 저기 팔달산 바라보니 그 위는 천 명의 웅결이 앉을 만큼 길고
 양치楊峙의 먼 들이 아득하니 말 가고 소 오는게 역력히 보이누나.
 사둔莎屯의 그윽한 나무그늘 울창하니 어려조의 魚麗鳥翼⁴⁶⁾의 진을 은은히 안배한 듯하네.
 석성石城에 봉화가 오르지 않으니 매일 밤 편안함을 알리고
 남한산성의 웅장한 군진軍陳은 천년이나 앞뒤에서 서로 돕는 형세를 만들었네.
 사거리는 강康이고 오거리는 장莊인데 모두 손가락으로 가르키는 지점에 들어오고
 전군前軍은 모茅, 후군後軍은 전殿인데 다 눈바닥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구나.
 옛부터 산을 먼저 점거해야 공이 있으니 어찌 장수를 택해서 적과 싸우지 않겠는가.
 꽃 핀 산은 높고 높아 황홀하니 연화대蓮花臺를 깎아 만든 것 같고
 유천柳川은 맑고 맑아 세류영細柳營⁴⁷⁾의 제도를 둔 것 같구나.
 연기와 람기嵐氣가 이는 높은 곳에 마침내 깃발 날리고 북소리 울리는 높은 대를 쌓으니
 푸른 깃발 붉은 깃발 해와 별을 진탕하여 서로 비추고
 구름 이는 용과 바람 내는 호랑이 빛을 움직여 서로 빙빙도네.
 바깥을 제어하고 가운데 거처하여 도끼를 잡고 앞뒤를 돌아보며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며 금단金壇에 기대어 여러 가지 주선하네.
 생문生門과 사문死門은 강태공의 육도六韜: 병법서처럼 기이한 변화 헤아릴 수 없고
 여섯번 정벌하고 일곱번 정벌하니 한나라 기린각麒麟閣⁴⁸⁾ 단청에 그려짐을 기약하는구나.
 백우선白羽扇을 휘두르니 깃발 세우고 호각 부는 소리 시끄럽지 않으며

45) 한나라 때의 장수로 표요교위(嫖姚校尉)로서 흉노와 여섯 번 싸워 모두 이겨서 그 이름을 떨쳤다.

46) 물고기 비늘처럼 늘어서고 새 날개처럼 벌여 선 것처럼 감싸고 있다는 의미.

47) 한나라 장수 주야보(周亞父)의 군대로 다른 장수들의 군대보다 규율이 엄하여 순시하던 문제(文帝)가 감동하였다고 한다.

48) 전한(前漢)의 무제(武帝)가 기린(麒麟)을 얻었을 때 건축한 누각(樓閣)으로 선제(宣帝)가 공신 11인의 초상을 그리어 각 상에 건 이후 공신각을 이르는 말이 되었다.

푸른 노끈처럼 길이 쪽 곧으니 피리소리 듣고 깃발 바라보며 서로 즐겁게 얘기하네.
 바람 앞의 풀과 나무 이름을 알 수 있고 산 속의 명아주와 콩 잎은 따지 않는다네.
 큰 일을 맡아 한 면을 담당하니 조정의 의지하는 바가 어떠한가 하며
 용맹한 군사를 얻어 사방을 지키니 왕국의 편안함과 위태로움 여기에 매여 있네.
 어찌 다만 요임금처럼 선조를 받들어 물 뿌리고 쓸기만 하겠나.
 생각해보면 주나라 낙읍처럼 보전하고 다스리는 곳이라네.
 어느덧 기둥과 기둥이 우뚝 솟으니 거기에 더욱 명성과 평판이 엄연하다.
 붉은 사다리가 높게 걸려 있으니 수고롭게 칼을 짚지 않고 오르고
 화려한 집이 높게 세워졌으니 군사를 지휘하는 자리가 편안하구나.
 산과 계곡이 험하니 겉과 속의 전체를 다 알 수 있고
 해자와 성가퀴가 깊고 높으니 옆의 굽이진 곳 가는 털까지 살필 수 있네.
 재목 될 만한 관원은 용기를 부려 군사들 앞에서 기예를 드러내고
 군사들은 한마음 합쳐서 정신을 서장대 위에다 집중시키네.
 현릉원이 옆에 있으니 오래 보겠네! 아름다운 기운이 때도 없이 일어남을
 행궁의 저녁과 아침에는 매번 상서로운 구름이 일어나는 곳을 가르킨다.
 공손히 군대의 학문을 써서 상량의 노래를 돕고자 하노라.

어여차 대들보를 동쪽으로 들어 올려라.
 봄의 진영 아침해에 북소리 웅장하고
 건장한 남아 문안드리며 신수를 과시하니
 의기는 높아 허리에는 오석궁(五石弓)을 찻구나.
 어여차 대들보를 서쪽으로 들어 올려라.
 하늘에 떠 있는 푸른 바다 그 끝을 모르겠고
 고래는 감히 봄 물결 볼지 못하는데
 긴 밤 누선에는 목성(木星)이 낮게 내리네.
 어여차 대들보를 남쪽으로 들어 올려라.
 독성(毒城)의 나무숲에 저녁 구름 내려앉고
 일찍이 왕세자의 수레 조용히 지나간 곳에
 백성들 지금까지 흐르는 눈물 삼키네.
 어여차 대들보를 북쪽으로 들어 올려라
 갠 날에 무슨 무지개나 다리 그림자 곧고
 성 머리에 징소리 풀피리 소리 그치지 않으니

이것이 군문의 승전곡임을 알겠구나.
 어여차 대들보를 위쪽으로 들어 올려라.
 전쟁 기운 사라지고 밝은 햇빛 비치고
 구름 속에 선인의 춤추는 소매 한가하니
 거문고 안은 옥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보네.
 어여차 대들보를 아래쪽으로 들어 올려라.
 가벼운 갑옷 따뜻한 띠에 한가함이 많고
 호령 엄한 길가엔 나다니는 사람 적으니
 밝은 달 허공에 걸리니 격탁소리 그치네.

앞드려 바라건대 상량한 뒤에는
 광채는 성벽과 성루로 변하고 기세는 금성탕지처럼 더하소서.
 동도와 서도의 군센 땅은 푸른 송산崇山이요 맑은 위수渭水이고
 남군과 북군이 하늘에 응합은 현무玄武와 구진鉤陳의 두 별에서 따왔더니.
 무기창고가 연이어 있으니 모두 한나라의 강궁과 군센 쇠뇌가 나오고
 어진 정치가 사방에 퍼지니 진나라의 군센 갑옷과 날카로운 병기 후려칠 만하구나.
 음기는 닫히고 양기는 열리니 장수의 다섯 번 펴고 세 번 호령하는 소리를 듣고
 시내는 맑고 바다는 잔잔하니 밝은 임금 만세천추토록 사시기를 받드노라.
 우의정 채제공蔡濟恭은 교서를 받들어 짓다.

화서문華西門 편액 현판 1좌 ○ 상량문 현판 1좌.

○ 상량문

앞드려 생각하건대
 백 개의 담장을 설치하여 선침仙寢을 보호함은 북극성을 많은 별들이 둘러싼 것과 같네.
 네 문을 세워 명당을 상징하고 만물을 모아서 밝히고 남쪽에 사는 뜻을 열었구나.
 아름답도다! 서쪽 성의 관문이며 우뚝 솟아 나라의 남쪽 울타리가 되었네.
 성을 쌓고 연못을 판 먼 책략과 큰 도모는 이미 한 두 신하가 자세히 기술하였고
 짓고 막는 지극한 정성과 큰 효도는 마땅히 내영과 외영의 상세한 진술을 따르라.
 처음 임금께서 영우원에 절할 때부터 이미 배봉산拜峯山에서 옮겨 모실 뜻을 정하였네.
 둘러친 담 안에 아름다운 기운 울창하니 한나라 패릉沛陵의 편안함에 못지 않고
 길 잃은 옛 시내가 이리저리 흐르니 주나라 난수灑水: 만주의 강이름가 부딪히고 물어뜯는 것처럼 두렵

구나.

지도를 살펴보고 몰래 사자를 파견하여 수백리 기호(畿湖) 지방을 두루 밟았고
하늘을 마주하고 공손히 신령스러운 기다리어 이 땅을 얻고자 수 십년 세월을 보냈구나.
마침 이 때에 아영(牙營)을 창건하였으니 보통사람들은 처음과 끝을 헤아리지 못한다네.
그 제도는 당나라의 부(府)와 송나라의 상(相)으로 심복과 팔다리 같은 신하에게 부탁하여
삼가 태조의 광묘(光廟)를 조술하여 장용영이라 이름하고 방법을 연마하네.
둔전을 열어서 병사를 농사에 붙이고 아문을 높여 장수를 두고 외사(外使)를 부르다네
저 조화로운 진지를 보니 다투어 하나같이 군사의 위용을 이야기하네.
새로 주나라의 호경(鎬京)처럼 지으니 누가 알겠는가? 임금께서 헤아려 먼저 정하심을
아름답구나! 하늘이 거둬 내리준 천년의 복지(福地)가 기유(紀維) 정조 13, 1789년 7월 중순에 가려졌구나.
진룡(眞龍)이 구슬을 품고 있는 형상은 그대로 도사가 전수한 비결이요
큰 거북이 길조를 보이니 성인을 장사지낼 언덕에 들어맞는구나.
귀신이 숨기고 아껴서 때를 기다렸나보다 좋은 날 길한 때라 어찌 유감이 있으랴.
진실로 성안에 마을을 두어 큰 도회지를 한나라 삼보(三輔)처럼 높이지 않는다면
어찌 소매로 당기고 띠로 당기듯 높은 산을 천추만세에 호위할 수 있겠는가!
이에 공경스럽게 고향의 마을에 나아가 그대로 무성한 분유(粉榆)의 토지신을 모시네.
토구(土圭) 토지측량기구로 초실(楚室)⁴⁹⁾을 헤아리고 주원(周原)에서 역사 북 소리 듣는구나.
읍 다스리는 곳을 옮겨 팔달산을 등지게 하니 고기비늘이나 빗처럼 나란한 마을이요
덜고 더하여 삼군(三軍)의 명령을 다스리니 호부(虎符)와 금절(金節) 휘황하게 빛나누나.
길은 창오(蒼梧)에 닿아 오르내리기 쉽고 영흥(永興)은 세류(細柳)에 여니 명실이 헛되지 않구나.
정기어린 채색이 갑절이나 더하니 가운데서 나음을 징험할 수 있겠고
밖으로는 문무를 아울러 씬이 드러나니 해이하거나 오래 수고하거나 무엇이 해롭겠구나.
땅은 서울과 같라져 있으나 호령하는 주인이 따로 있다 말하지 말며
직책은 체통과 모양새 귀중하므로 특별히 위치(位次)를 홀로 높여 주셨네.
양식을 쌓고 갑병(甲兵)을 수선한 것은 참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요
술을 주고 청소하고 관장하게 하니 정리가 도리어 중요하지 아니한가.
이제야 알겠구나! 내영의 규모를 세운데서 참으로 외사(外使)의 기초가 생겼다는 것을
연산(連山) 귀장(歸藏) 주역(周易)을 취하여 선천의 체(體)와 후천의 용(用)이 바탕이 되었고
오음(五音)에 비교하면 금속(金玉) 소리에 조리가 문란하지 않구나.

49) 『시경』 「용풍」 '정지방중(定之方中)'의 내용으로 위나라 의공(懿公) 때 적인의 침입으로 임금과 백성이 떠돌아 다녔는데 제나라 환공이 초구(楚丘)에 성을 쌓아 주고 문공(文公)을 세워 준 일을 노래했다.

처음에는 까마득하여 합치기 어렵다가 안배하고 늘어놓아 묵묵히 여러 해가 지났고
 이제는 마디마디가 서로 부합되어 크고 작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돌아보면 신하들은 소라껍데기로 바다를 재는 것 같아 거의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다가
 비록 아녀자나 어린아이이라도 구름 걷힌 하늘을 보듯 모두 신령스럽고 성스럽다 말하는구나.
 대개 이 거사는 이미 천리에 맞고 모든 일들은 반드시 물정에 따랐구나.
 두 영^靈의 범위를 개척하니 벽루에 깃발과 북이 빛나게 벌여있고
 한 성을 둘러싸 지키는 일을 맡았으니 교외에 산처럼 성을 쌓았구나.
 백 개의 치^雉를 넘지 않았으니 평양의 부사^{父師}제도를 모방했고
 삼일^{三日} 일하면 일을 시키지 않으니 주나라 문왕이 영대^{靈臺}⁵⁰를 세울 때처럼 하였네.
 울림^{鬱林} 돌 이름의 돌과 조래산^{祖徠山}의 소나무처럼 땅은 보물을 아끼지 않고
 영풍^{郢風}의 자귀와 공수^{公輸}의 먹줄처럼 사람마다 모두 재주를 발휘하였구나.
 겨우 계속 갑인 을묘 3년 동안 복두칠성 자루가 세 번 돌았을 뿐인데
 이미 동쪽 남쪽 북쪽을 보니 아름다운 누각이 우뚝 솟았구나.
 손님이 들어올 문을 사방에 여니 예의를 귀하게 여김이요
 한 모퉁이를 들면 세가지 뜻을 반증하니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되겠구나.
 이에 서쪽을 채워서 미리 예비하는 공을 강구하겠네.
 별은 밤과 낮을 똑같이 나누니 은나라는 중추절^{仲秋節}로 삼았고
 복희씨^{伏羲氏}가 사계절 질서를 잡은 까닭에 소호씨^{小皞氏}⁵¹가 금을 성덕으로 삼았으니
 또한 만물이 각기 결실의 방위를 가르키는구나.
 서쪽의 창합^{窗合}문이 가을바람을 맞아 하늘을 나는 새매를 불러오고
 산과 연못에 생기가 통하니 구름에 멍에 한 무지개를 이루었네.
 낙남^{洛南}의 대청이 활처럼 빛나니 떠도는 옥은 전별금을 바치고
 요임금의 술잔을 장락현에서 받들어 올리니 요지^{瑶池}⁵²의 복숭아가 안주를 돕는구나.
 높은 누대가 아래를 굽어보니 산은 도끼를 든 장수 같고
 상쾌한 기운이 때에 맞게 들어오니 들에는 지팡이 짚고 선 현명한 이 많구나.
 새로운 고을을 만들고 터를 다지니 그 체세^{體勢}가 동주의 낙읍^{洛邑}과 어슷비슷하고
 미인을 보는 데서 그 뜻을 땀으니 서화^{西華}라는 칭호가 딱 들어맞는구나.

50) 문왕이 대(臺)를 세울 때 백성들이 사방에서 자식처럼 모여들어 일을 해서 하루도 안되어 완성되자 '신령스런 대(靈臺)'라고 하였다.

51) 중국 고대 오제(五帝)의 한 사람인 소호금천씨(小皞金天氏). 금덕(金德)으로 임금이 되었는데 금은 가을로 서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화서문에 비유한 것이다.

52) 서왕모가 있는 곳의 연못.

위세는 험한 산모퉁이에 의지할 뿐 아니라 스스로 명아주 잎에 벌이 지키는 위세를 이루네.
 구름 도한 신령스럽게 물에 있으니 우禹임금이 뚫은 문과 마주하였구나.
 벌이 같고리처럼 빙 둘러서 벌려 있으니 사당이 길이 굳건할 것이고
 바야흐로 낙랑樂浪의 티끌이 맑아질 때이니 자물쇠 굳게 닫은 문 놀랄 일 없겠구나.
 골목은 큰 거리와 이어져 임금을 맞이하여 태평성대를 축하하고
 밭은 좋은 땅에 펼쳐 있으니 누런 곡식 거두며 노래소리 일어나누나.
 주나라 임금이 하늘에 제사지내는 걸 본따니 실제로 그 복을 다 받았고
 법은 송나라 태조 때처럼 활짝 열리니 정치가 바로 우리들 마음 같아서
 어느덧 겉과 속을 합쳐서 바라보니 그윽하게 조물주의 자취 없음과 같구나.
 마을의 빗장이 흔들리지 않음은 병단兵團이 오사五司이기 때문이며
 창고의 걸쇠가 그대로 있는 것은 성곽이 7리가 이어졌기 때문이네
 만약 씨줄과 날줄이 되는 조리를 세우고 서울에다 표준을 세우지 않았다면
 어찌 능히 흙으로 만든 거푸집과 쇠로 부어 만든 도가니처럼 외부와 모양이 합치되겠는가?
 사방팔방 눈 씻고 바라보니 모두가 임금의 계책이 법도에서 나왔음을 우러르고
 백 사람이 마음에서 우려나와 일을 하니 모두가 효도하는 마음을 미루어 이루어진 거이라네.
 용대장龍大將 호대장虎大將은 초나라 광릉廣陵에서 서로 따랐고
 옛 서문이나 지금 서문은 한나라 풍읍의 제도를 고치지 않았구나.
 합하면 단영單營이고 떨어지면 양국兩局이니 어찌 새의 날개와 수레바퀴 같을 뿐이겠나.
 아름다운 망루보다 화려하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보다 높으니
 눈이 닿는 곳 모두 새가 날고 화살이 나는 듯하네.
 이를 일러 신령의 도움을 얻었다 하니 크기도 하구나! 뽐히지 않는 큰 터전을 볼 수 있구나.
 이에 대들보를 올리기에 공손히 좋은 노래를 부르노라.

어여차 대들보를 동쪽으로 들어 올려라.
 불어오는 동쪽 땅의 크게 조화로운 바람이
 높은 누각에서 멀리 부상의 해와 마주하니
 꽃과 나무 조물주의 힘으로 봄을 먼저 알리네.
 어여차 대들보를 서쪽으로 들어 올려라.
 산은 기산岐山의 오동나무와 접하여 봉황이 깃드는데
 들으니 깊은 바다의 파도 거울과 같으니
 배를 타고 탈었으니 일만 뜻이 가지런하네.
 어여차 대들보를 남쪽으로 들어 올려라.

많은 산봉우리 공손히 읊하니 조정에 참여한 듯하고
 해마다 제사지내니 마음의 향기 올라가고
 현릉원의 나무가 상서로우니 단 이슬이 내리네.
 어여차 대들보를 북쪽으로 들어 올려라.
 이날 임금의 수레 서울에서 오시니
 백 부대의 용맹스런 내외영의 군사들이
 띠풀처럼 전각처럼 가지런히 서 있네.
 어여차 대들보를 위쪽으로 들어 올려라.
 어마마마의 수레 하늘에서 내려와 나라를 길러
 3월의 꽃바람에 즐거운 잔치 베푸니
 남은 은혜 노인까지 미쳐 구장鳩杖을 내려주시네.
 어여차 대들보를 아래쪽으로 들어 올려라.
 높이 솟은 담벼락이 큰 들을 둘러싸고
 많은 집 문들이 차례로 열리니
 선비 농사꾼 군사들 공인들 장사치들이라네.

엮드려 바라건대 상량한 뒤에
 나라의 위세는 태산같고 백성의 마음은 성을 이루어라.
 높은 산의 소나무와 삼나무는 길이 만세의 비와 이슬을 피고
 군문軍門에 세워 놓은 것밭은 내외內外 영營의 바람과 구름에 서로 빛나리라.
 홍문관제학 서유린徐有隣은 교서를 받들어 짓다.

신평루新豊樓 신평루 현판 1좌 ○ 진남루鎭南樓 현판 1좌 ○ 어제 현판 1좌(어제시, 위를 볼 것) ○ 상량문 현판 1좌.

○ 상량문

엮드려 생각하건대 화성부가 현릉원과 가까우니 임금의 아버이 사모하는 마음 겨를 없고, 시골의 푸른 느릅나무 마을에 높은 누각이 날개를 편듯 치솟았구나.

하늘이 궁궐과 수레를 돌렸고, 땅은 토지신 사당과 자리를 펼 곳을 열었네. 대체로 이 화성부를 새로 짓는 의도는 실로 성인이 조상을 생각하는 효성이 있기 때문이라네. 만년 동안 상서로움이 쌓인 조짐을 점쳐서 산과 시내에 달마다 행차하여 오고, 임금께서 공양을 드리는 마음을 두시니 성과 읍에 해마다 와보는 장소를 세웠네.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아득히 멀었으니, 돌아보면 임금의 사모하는 마음을 장차 어찌 조금이나 마 펴 못할 것인가. 화성부가 현릉원과 아주 가까우니 임금의 정이 극진하지 않은 것이 없구나. 담벼락에서 부모님 얼굴 보며 생각하니 이에 궁궐을 짓는 아름다움이다. 임금님의 행차가 잦으니 땅은 요임금이 화평을 보던 것과 부합되고, 뜰과 집이 자꾸 늘어나니 뜻은 주나라 왕실의 궁궐에서 취하셨네.

아름답구나! 세 번째 궁궐을 하늘 높이 지으니 뻣뻣하게 한 부의 체제를 갖추었네.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추는 아름다운 기운을 품고 팔달산 높은 봉우리에 와서 모여 새가 날개치듯 굉장한 규모로 집을 지으니 멀리 두 경계의 중요한 지점을 향하였네. 붉은 물감 칠하여 빛나니 우뢰와 하늘에서 상징을 취하고, 큰 북을 높이 매다니 저녁과 새벽에 백성들을 경계하기 위함일세. 집 지은 것 여섯 기둥 본집에 여덟 채의 바깥집이 우뚝하니 아홉 시장 열 거리에 솟아 있네.

지난 기유정조 13, 1789년에 이름난 누각이 낙성되어 을묘정조 19, 1795년 봄에 어머니 모시고 행차했었다네. 현릉원에 부모 생각 퍼시니 깃발들이 머물러 배회하고, 궁궐에 효도하는 마음 매어 두었으니 양고기와 술로 즐겁게 잔치하는구나.

생각하건대 이 누각이 어찌 하한나라의 칭찬을 기대할까마는 아름답구나, 이 땅은 참으로 한나라의 풍요와 같네. 중앙문(中陽門)을 반쯤 열고서 때때로 입과 새벽에 문안드리고 장락당에서 술잔을 공손히 드리니 고향의 사당에서 봄을 맞는 것 같구나. 어마마마 은혜를 널리 베푸니 백성들이 음식을 내려주는 덕에 배부르고, 봄에 조서를 물 흐르듯 발표하니 노인들이 세금 면제 받는 어짐을 칭송하는구나.

비록 지난날에는 이 땅이 남쪽을 눌러서(嶺南) 호위한다 하였지만, 대략 호수를 베고 늪은 형세를 본뒀구나. 돌아보니 우리 임금님 동방의 표준이 되는 효성은 한 고조가 패패(패) 땅 생각하는 마음보다 간절하구나. 드디어 누각의 이름을 고치라 명령하여 현판의 이름을 신평(新豊)이라 하였네.

한 영문의 날랜 군사들은 엄연히 국경 수비의 표리를 이루었고, 천 집의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는 완전히 거리를 동쪽과 서쪽으로 갈랐네. 현릉원의 소나무·잣나무가 눈결에 들어오니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 같고, 이름 있는 고을의 누대가 마주 보고 솟았으니 깊고 고요한 마음 편안하기도 하구나. 한 성(城)의 바람과 연기를 통솔하였고 삼도(三島)에 해와 달이 비추는구나.

천 개의 성가퀴를 두 해에 만드니 조물주가 아마도 도와준 것이겠지. 백개의 담 세울 때 한 백성도 괴롭히지 않았으니 싸안고 호위하는 소중한 것이라네.

시인의 공경하는 말로 읊는다면, 이 땅이 바로 가래나무·뽕나무 두 나무는 고향을 상징함 나는 좋은 땅이요, 앞선 지혜로운 사람의 감상하는 뜻을 따르다면 정자로는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이 있구나.

공경한 마음으로 상량을 돕는 말을 하노라.

어여차 대들보를 동쪽으로 들어 올려라.
창룡문을 여니 해가 불게 솟았는데
누각 앞의 이 길은 온천으로 가는 길이니

동물과 식물들도 임금님의 은혜 받고 있네.
 어여차 대들보를 남쪽으로 들어 올려라.
 네모난 모서리는 분명하게 북두칠성 머금었고
 잘 익은 술만 동이에 큰 잔치를 벌였으니
 온 성이 어마마마 은혜 노래 불러 축하하네.
 어여차 대들보를 서쪽으로 들어 올려라.
 높은 누각은 들쭉날쭉한데 흰 성가퀴는 가지런하니
 마을 안에 궁궐터가 어느 곳에 있다던가.
 두 줄의 느릅나무·버드나무에 오색 구름 깔려 있네.
 어여차 대들보를 북쪽으로 들어 올려라.
 아버님 찾는 별판 한 길에 생각이 끝 없는데
 마을 아이들 『소학小學』의 노래장老萊章을 잘도 익히니
 이것을 노래로 엮어 만년 억만년 누리소서.
 어여차 대들보를 위쪽으로 들어 올려라.
 옥 그릇에 술 넘치고 비파로 노래하니
 터도 좋고 물도 깊어 좋은 조짐 어려 있어
 큰 동쪽 우리나라 신령스런 복 받겠네.
 어여차 대들보를 아래로 들어 올려라..
 붉은 난간 아득하게 먼 들판 안았는데
 돌아보니 만안교 밑으로 흐르는 시내가
 도도하게 날마다 팔팔 흘러내리는구나.
 앞드려 바라건대 상량한 뒤에
 기둥들은 빛을 발하고
 온 동네는 더욱 넓어져라.
 바람과 구름은 현릉원에 있는 나무들 길이 보호하여
 그 복을 더욱 돈독히 하고
 산과 물은 누각의 해자를 둘러 안아서
 길이 이 땅을 편안하게 하소서.

우의정 윤시동尹蓄東은 명을 받들어 삼가 짓다.

좌익문左翼門 현판 1좌.

중앙문 中陽門 현판 1좌.

중악문 重鑰門 현판 1좌.

우화관 于華館 현판 1좌.

낙남헌 洛南軒 편액 현판 1좌 ○ 상량문 현판 1좌 ○ 어제 현판 1좌(어제시, 위를 볼 것) ○ 유論수원신읍 유무 儒武 등 현판 1좌.

○ 유論수원신읍 유무 儒武 등

금번 시취의 거조는 권장하여 성취하려는 뜻에서 나왔고 겸하여 신접 新接한 고을의 다과 多寡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이제 보니 유생의 시권은 38장에 불과하고 무재 또한 10분을 넘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 향후 생업을 만든 후에는 반드시 별반 別殿하여 전심하여 너희 들을 크게 넓혀 쓸 것이니 이것으로 모두 다 잘 알라! 지금부터 마땅히 때때로 시제 試製할 것이다. 신접인 新接人이 힘써 일하고 가사 家舍를 돌보는 사이 읍저 邑底에 있으면서 어려움이 오래도록 남아 있다. 이후로는 출입함에 반드시 읍취 邑倅로 하여금 위격 違格이 있는 것마다 비봉 秘封하여 모두 한결같이 하라. 내사 內賜하는 것에 따라 장원의 건작은 방목 榜目을 작성하고, 이 전교 傳敎로써 지방관에게 령을 내려 향교에 수장하게하고 인하여 제생에게 나아가서 보게 하라. 무사 武士에 이르러서는 평소에 ‘궁마지향 弓馬之鄉’이라 칭하였으나, 입격한 숫자 또한 심히 많지 않았다. 그러나 어찌 신접한 마당에 여가가 없는데 무예 武藝를 익힐 수 있었겠는가? 지방관은 각별히 권과 勸課한 후에 다음 시취부터 시작하라.

원소 園所 동구에 살며 활을 잘 쏘는 사람은 일체 직부 直赴를 허락하라. 이것은 곧 모름지기 별반의 특교가 내린 연후에 직부를 허락하는 것으로 유자 儒者와 무사 武士를 논함이 없다. 매달 올리는데 해당 삭내 朔內로 신접인 新接人의 거주지와 성명, 나이, 부조 父祖의 직함과 명자 名字: 이름, 반벌 班閱, 중서 中庶, 공사 公私私賤 등의 내력과 근파 根派를 주註를 달아 기록하여 성책 成冊을 마련해 두고 매번 다음 달 초 봉심에 편하게 한다. 지나간 때의 것은 부송 付送하여 입계 入啓하도록 하라. 신접인을 어루만지는 정사를 전적으로 지방관에게 위임하였으니 너희 들은 안심하고 문무의 업을 익혀서 성취하는 효과가 있도록 하라!

경술정조 14, 1790년 3월 12일

후 後

유생시취 규구 規矩

책策 부賦 표表 사율 詞律 경의 經義 잠명 箴銘 송訟 가운데 찌를 뽑아 하나를 지어 시취한다.

무사시취 규구 規矩

유엽전 柳葉箭 편전 片箭 기추 騎芻 편주 鞭芻 소포 小布 철전 鐵箭 후전관혁 候箭貫革 가운데 씨를 뽑아 하나의 기예를 시취한다.

을유 윤2월 일 낙남헌

어사 御射 유엽전 6순 巡 22시 26분을 쏘았다.

제1순 4중이다. 변邊 변邊 변邊 변邊

제2순 3중 4푼이다. 변邊 관貫 변邊

제3순 4중 5푼이다. 변邊 관貫 변邊 변邊

제4순 4중 5푼이다. 변邊 변邊 변邊 관貫

제5순 3중 4푼이다. 관貫 변邊 변邊

제6순 4중이다. 변邊 변邊 변邊 변邊

장혁 掌革 1순 3시 矢 4푼이다. 변邊 관貫 변邊

소포 小布 5순 24시 矢이다.

제1순 5중이다.

제2순 5중이다.

제3순 5중이다.

제4순 5중이다.

제5순 4중이다.

야사 夜射

유엽전 2순 6시 7푼

제1순 3중 4푼이다. 변邊 변邊 관貫

제2순 3중이다. 변邊 변邊 변邊

활쏘기는 육예 六藝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외로운 화살의 날카로움은 위의 威儀로서 천하의 성인 聖人 이 때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다. 주나라의 동관 冬官⁵³⁾은 궁인 弓人의 직책이 있었는데, 대개는 그 덕행을 살핀다. 안으로는 뜻이 바르고 밖으로는 신체가 곧은가를 살펴서 굳어진 후에 비로서 그 중_中을 말하는 것이니 곧 활쏘기는 인도 仁道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적중함은 너의 힘이 아니라 이것은 성인 聖人과 범인 凡人의 구분이다.

오로지 우리 성상께서는 어좌에 오르신지 20년인 을묘 淸조 19, 1795년, 즉 우리 현릉원에 누워계신 사도세자와 자궁 紘鏡宮께서 탄생하신지 회갑 回甲이 되는 해이다. 그 중춘 仲春: 2월 윤달에 임금께서 자궁을

53) 동관(冬官): 토목(土木) 공작(工作) 등의 일을 맡은 주나라 육관(六官) 가운데 하나.

모시고 원소를 찾아 향례享禮를 올리시고 화성부에 돌아와 임어하시어 연례燕禮를 행하셨다. 임금께서는 자궁께 축수祝壽하시고 기로耆老人 벼슬아치와 서로庶老人 자를 소집하여 연회宴會를 베풀었다 인하여 제신諸臣과 더불어 친히 낙남헌에서 활쏘기를 하셨는데 5발이 연달아 적중하였다. 문득 음악이 울리고 위사衛士가 모두 천세千歲를 연호하였다. 『예기』에 이르기를, “천자가 활쏘기를 시험하는데, 대궐은 그 용체容體를 예禮에 견주고, 그 절도는 악樂에 견주니 적중이 많은 것은 능히 제례와 함께 한다”하였고, 『시경』에 이르기를, “대소관을 막론하고 직사職司에 처한 자는 임금의 처소에 모여서, 연례燕禮를 마치고 활을 쏘아 즐긴 끝에 기림이 있도다(小大莫處 御于君所 以燕以射 則燕則樂)” 하였으니, 대저 수레를 배종하여 원침을 제향한 것은 추모追慕의 뜻이 있는 것과 같다. 잔을 돌려 칭송하고, 보령寶齡을 축원함은 기뻐하는 정성을 받드는 것이다. 나는 황발黃髮을 만들고 잔치예식을 교련함은 석류錫類의 덕이다. 이미 제향을 하고 잔치를 베풀었으며, 잔치한 후 다시 활쏘기를 하니 주관周官의 활쏘기 예의와 더불어 그 뜻이 한결같다. 어호라! 성대하도다! 이것은 진실로 성인聖人の 활쏘기라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신읍新邑에서의 성城은 굳세어서 임금께서 몸소 거처하시므로 화살 하나가 발사되어 남김없이 하늘을 날은 즉 성인의 은미隱微한 마음을 가히 우러러 알아 볼 수 있다. 안이 바르고 밖이 곧아 미치지 못하는 허물이 없으니 천지天地의 가운데에 합쳐진 때부터 어지 사람의 힘이 가히 미칠 수 있었겠는가? 자궁이 이르기를, “그 악樂을 듣고서 그 덕德을 알라” 하였으니 신은 청하음건대 이 활쏘기를 보고서 성인의 덕 만가지 가운데 하나를 알았습니다.

규장각직각유행임은 교서를 받들어 삼가 짓고, 행사직行司直 심이지沈之는 교서를 받들어 삼가 썼다.

○ 상량문

엿드려 생각하건대 지축을 한나라 패패 땅으로 돌려서 이에 옛날의 수원부를 옮겼네. 하늘의 다섯 별이 낙고을의 위를 어루만져 특별히 새로운 집을 지었구나. 주나라 고을의 이름을 붙였고, 한나라 궁궐에서 뜻을 따르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화성을 처음 지은 땅은 사실은 현릉원을 둘러싸 호위하는 마을이라. 확 트여 산 높고 물 맑은 들을 둘러었으니, 세상에서 천자가 다니는 길의 삼보三輔라 일컫네. 장한 모양은 용이 서리고 봉황이 춤추는 듯한 형세니, 하늘에서 순임금 돌아가신 창오蒼梧의 주구珠邱를 만들었구나.

푸른 나무가 한나라 패 땅 거리의 누대를 끼고 있으니 그대로 배와 수레 다니는 큰 도회로구나. 흰 구름이 높은 뒷부리의 날카로움 호휘하니 마치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을 붙인 것이 되었구나. 그래서 행궁의 곁을 다듬어서 높은 집을 지었구나. 구식龜食과 간전澗甸의 먹으로 정남방에서 북쪽으로 향한 터에 아름다운 운수를 열었네.

제비의 축하(남의 집의 낙성을 축하한다는 뜻)와 영평장인(중국 초나라 수도 영 평의 훌륭한 목수)의 도끼로 일곱 대 들보에 세 계단의 집을 큰 규모로 지었구나. 여러 봉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이 푸르름은 그림으로 돌려

싼 듯하고, 큰 들을 바둑판처럼 그어 일군 밭두둑은 판판하기가 책상을 깔아 놓은 듯하구나. 낚시질하는 못이 푸른 옥으로 젖은 것은 정원의 반을 차지한 연꽃 향기요, 활 쏘는 대^臺에 쌓아 놓은 황금은 백 겹음 밖의 버드나무 색이라네.

빛나는 임금의 계획은 한나라 고조의 옛일을 본뵈고, 호화로운 현판에는 낙남^{洛南}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걸었구나. 푸른 용마루 봉수당에 닿았으니 『시경』 송^頌: 종묘의 제사 때 부르는 노래의 찬양이 날로 달로 올라가네. 비단 자리 깔고 양로 잔치연을 열었으니 바람과 구름이 노래 소리 맞춰 춤추는구나. 여러 장수의 검을 든 발자국이 천천히 엄숙하게 다가오니 발을 친 뜰의 아홉 층계를 이룬 옛날의 예법이라네.

신평^{新豐}의 마을들이 장엄하게 둘러싸니, 산과 내가 만세토록 기나긴 큰 터로구나. 매번 임금님의 행차에서 묵으며 머무는 곳이니 현릉원이 가까이 있는 까닭이라. 임금님의 기운은 소나무·잣나무를 잡아 오르고 옷 입고 갓 쓰고 달마다 오시는 것 보니 황홀하다네.

임금님은 이슬과 서리 생각지 아니하고 공경히 해마다 제사를 올리는구나. 예의에 맞는 휘장을 문신들의 모임에 베푸니 기린이나 봉황이 모두 활터 속에 들어가네. 복치는 마당에서 군사 훈련 수련하니 곰 같고 범 같은 장수들이 또한 깃발 아래 있구나.

더구나 남쪽 궁의 술잔치 자리에는 항상 공신록을 주면서 황하의 물같은 큰 은혜를 기록하네. 동쪽 도회의 상서로움을 내려주는 자리에선 석고문^{石鼓門}: 동주(東周) 초기 진(秦)라가 각석한 문자로 글자를 새긴 돌에 북을 달았다는 데서 유래를 더욱 크게 하여 거공^{車攻}: 『시경』 「소아」에 나오는 시의 업적을 새기는구나. 거의가 조물주의 도움에서 된 것이니 어찌 다만 드는 돈의 번거롭지 않음만 이야기하랴.

큰 집이 하루도 안 되어 이루어진 기쁨은 백성들이 자식처럼 온 까닭이라네. 웅장한 고을이 영원한 대업을 정하니, 아아 공경히 도운 신하들의 공이로구나.

좋은 땅 넓고도 조용하니 오랫동안 귀신이 감추어둔 고장이요, 호화로운 처마가 번쩍 들렸으니 갑자기 새가 날고 꿩이 나는 듯하구나.

만 개의 화살받이 분칠한 성기위가 구름처럼 밀어서 섬들과 뜰을 둘러 구불구불 뻗어 있네. 세 글자의 현판이 햇빛 받아 눈부시니 기둥과 지붕을 보호하며 높이높이 솟았구나.

이에 장차 화^華땅 봉인^{封人}: 순임금의 화(華)땅에 갔을 때 그곳 국경지기가 오래 살고, 부유하고, 아들을 많이 낳으라는 데서 유래의 축사로 감히 오래 사시라는 칭송의 노래를 바치나이다.

어여차 대들보를 동쪽으로 들어 올려라.
봄나무의 화사함은 옛날 풍습 같으니
백 리나 뻗친 망루는 그대로 지세를 따랐고
일만 집의 닭 소리 개 짊는 소리 신의 숨씨 움직인다.
어여차 대들보를 푸른 기와 가지런하고

서왕모西王母가 연못 위에 나무 보내어 심게 하니
 붉은 천개의 열매 드러나니 가지 낮게 눌렀구나.
 어여차 대들보를 남쪽으로 들어 올려라.
 가까이 보이는 정자각T字閣에 소나무·삼나무 들렀는데
 만년토록 아름다운 기운 붉은 구름과 엉기어
 늘어선 뿔봉우리 그래도 둘러싸니 푸른 옥의 비녀 같구나.
 어여차 대들보를 북쪽으로 들어 올려라.
 온 나라의 생황 노래 대궐에 달아 있어
 하늘에 가득한 별 북두칠성으로 돌아오는 듯하구나.
 어여차 대들보를 위쪽으로 들어 올려라.
 상서로운 해가 떠올라 푸른 바다 출렁이고
 하늘의 구름 열어 놓으니 천자의 별자리 높이 있어
 고래가 뱃을 잃고 용은 물결 타고 오르네.
 어여차 대들보를 아래로 들어 올려라.
 우리집 발같이 구름처럼 많아 큰 들에 펼쳐 놓으니
 만 개의 창고가 신선의 마을에 가득가득 쌓여 있고
 싸우는 닭과 달리는 말이 봄의 토지신 맞이하네.
 엮드려 원하노니 상량한 뒤에 거북은 낙수洛水에서 나와 상서로움 드리우고
 봉황은 이 집의 처음을 기록하여
 주나라의 남산시南山詩로 송축하고
 궁전은 장춘궁의 경사에 응하여
 한나라 술을 북두칠성에게 부어 주니
 저자거리는 대풍가大風歌의 아름다움 전하게 하옵소서.

규장각제학 심환지沈煥之는 교서를 받들어 삼가 짓다.

노래당老來堂 편역 현판 1좌 ○ 상량문현판 1좌 ○ 어제御製 현판1좌[어제시, 위를 볼 것].

○ 상량문

엮드려 생각하건대 아름다운 기운이 세운 건물을 호위하여 뽀뽀하니 옷 입고 관 쓰고 달마다 오시는 의식이 엄격하네. 호화로운 집이 새가 날 듯 높이 솟으니 새해에 부모님 생각이 나는구나. 오직 초궁楚宮의 해그림자 재는 제도를 헤아리니 순임금이 평생 아버지 생각하는 정성이로다.

공경히 생각하건대 우리 임금님은 우왕·탕왕·문왕의 법도로 다스리니 효행은 백 가지 행실은 근원인지라 정성어린 제사를 깊고도 깊게 하네. 비궁(毘宮) : 「시경」 「노송」에 나오는 주나라의 조상인 후직의 어머니를 모신 사방의 제도를 더욱 새롭게 하고도 임금의 마음은 안타깝고 안타까워하시네. 보배로운 책문(冊文)이 드 날리니 아름다움 다하였고, 궁궐문에서 답에 나타나는 아버지 모습 사모하는 정성 있으시네. 매월 초 하루에 직접 찾아뵙지 않는 날이 없고, 현릉원이 열흘의 거리에 있으니 고향같이 아주 가까이 있구나.

팔달산의 새로운 고을을 살펴보니 참으로 만년토록 그윽한 궁전 같구나. 둘레에 백 개의 성기귀와 천 개의 용마루 세울 터전을 설치하니 굉장한 규모가 한나라의 무덤과 고을을 펼쳐놓은 듯하였네. 모양과 경치는 나는 용과 춤추는 봉황의 형세에 의지하고, 비결(秘訣)은 도교와 불교의 정신을 아름답게 나타내네. 군비를 가다듬고 군량을 저축하니 어찌 다만 서울 남쪽 근교를 지키는 마음만 있었겠는가. 무덤에 제사하고 임금의 행차 머무르니 대개 해마다 한번 오시는 고장이로구나.

이에 행궁 뒤에 한 구역의 터를 잡아 특별히 혼자 계실 때 거처할 별채를 만들었네. 하늘과 땅이 물레 감추었던 땅을 개척하여 음지와 양지 사방의 위치에 벌려 놓았고, 귀신 같은 재주로 실어 날라다가 기둥과 지붕의 붉은 칠이 높게 빛나누나. 정치의 교화가 이미 밝게 이르르니 하는 일마다 담박함이 마음에 깃들고, 만드는 데 비싼 것을 쓰지 않으니 궁궐이 장하고 몸돌 바가 편안하구나.

봉수당에서 때때웃 입고 희롱하니 봄빛이 항상 금술잔에 넘치고, 장락전의 화려한 문도리가 서로 빛나니 복 있는 별이 영원히 임금의 자리를 감싸는구나.

하물며 이곳에서 활과 칼을 바라봄이 멀지 않으니 어렵פות이 생활 소리에 춤추는 학이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구나. 바둑판처럼 그어진 가마길이 분명하니 무덤을 찾아가는 새벽길이 빛나고, 동문의 가래나무가 은은하니 거의 묘막 짓고 사는 정성을 다하였네. 타고 가신 수레가 이 때문에 더디고 임금님의 깃발이 잠시동안 머뭇거리네.

붉은 정자의 버드나무와 푸른 못 연꽃의 좌우에는 화려한 꽃들이 마음에도 없이 환하게 피었고, 용주산 봉우리와 옥녀봉의 높고 낮은 데는 하늘의 뜻이 기다림에 있음을 감싸고 있구나. 맑은 기운이 회오리 바람 모아 안개처럼 엉기니 이 집의 터가 억만년 동안 튼튼함을 점치고, 푸르고 화려한 한 해의 끝에 하늘의 운수가 돌아오니 임금님의 건강이 팔천 년 동안 편안함을 누리겠구나.

임금님은 매번 오래 계실 것을 생각하여 화려한 현판을 특별히 걸어 노래당(老來堂)이라 하셨네. 임금님의 나이 아직 한창인 때에 오히려 때마다 이곳에 오시려 했고, 아주 늙어서 힘들고 조심할 즈음에는 여기를 잊지 못하고 간절한 마음 더욱 절실하시겠지. 황도는 북두칠성의 빛남을 드리워 곳곳에서 쳐다보도록 솟아 있고, 흰 머리에도 화(華) 봉인이 축하하는 길에 오르니 행차하는 행렬을 해마다 바라보겠네.

임금님의 수레가 머물면 많은 신들이 즐거움을 돕고, 달 뜬 난간에 나가시면 여덟 가지 채색빛이 움직이네. 산의 빛깔과 시내의 모습이 흐르고 솟는 것을 무성한 북쪽과 함께 끝없이 이어지라고 숲속의 꽃과 들판의 새들의 웃음소리·노래소리는 온화한 기운을 맞이하여 서로 기뻐하는구나.

땅의 기세는 원묘(原廟)의 소중함을 얻어서 늘그막에 임금님의 사모하는 정성을 더하고, 누각의 현판은 신평이라는 이름을 독차지하여 탕목읍(湯沐邑)에 임금님의 마음을 쏟으시네.

감히 임금님의 어진 행실을 칭송하여 이에 상량의 새로운 노래를 아뢰노라.

어여차 대들보를 동쪽으로 들어 올려라.
용 그린 깃발 아래 새벽빛이 붉었으니
태양은 본디부터 궁궐 안에 있는 것을
해가 뜨고 빛을 내어 온 나라 밝히시네.
어여차 대들보를 남쪽으로 들어 올려라.
한가닥 시냇길은 뚜렷한데 온갖 버들 늘어져서
발을 걷고 멀리 꽃핀 산 바라보니
현릉원 깊은 곳에 상서로운 구름 머금었네.
어여차 대들보를 서쪽으로 들어 올려라.
원용대(元戎臺)는 흰 구름을 향하여 가지런한데
온 사방이 모두 부드러운 교화를 둘러싸 품고 있어
물결이 깊은 바다에 얹드리니 고래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어여차 대들보를 북쪽으로 들어 올려라.
여러 시내 모여 빙빙 돌아 깊은 연못 되었는데
성인의 배움이 엮은 죽간을 바탕으로 함을 깊이 알았으니
탐색하는 공이 참여하여 이끄는 힘을 뚫어주네.
어여차 대들보를 위쪽으로 들어 올려라.
구름의 고향은 아득하고 하늘은 넓은데
마음은 깨끗하여 신명과도 통하니
사당에 제사할 율창주를 기다리지 않는구나.
어여차 대들보를 아래로 들어 올려라.
아득하게 트인 것이 바로 큰 들판인데
하루종일 지지대(遲遲臺) 위에서 바라보니
임금님의 뜻은 맑은 시내와 함께 쏟아지지 않는구나.

얹드려 원하노니 상량한 뒤에 원기(元氣)는 서까래에 이어서 상서로운 빛은 기둥을 감싸고, 무지개 다리는 은하수에 걸렸으니 물고기와 용이 임금의 행렬을 호위하여 날래게 달리고, 봉황 가마는 봄빛을 타니 구름과 해는 깃발과 시새워 출렁거리는구나. 임금님의 덕은 세월과 함께 높고 임금님의 행차는

천지와 더불어 무궁하소서.

대호군 정범조(丁範祖)는 교서를 받들어 삼가 짓다.

건장문(建章門) 현판 1좌.

득중정(得中亭) 어필 현판 1좌 ○ 어사유엽전등수(御射柳葉錢等數) 현판 2좌.

고풍(古風) 수원부사 이경무(李敬懋)

임자정조 16, 1792년 10월 22일

어사(御射) 유엽전 10순 46사(矢) 58푼(分)

제1순 4중 5푼이다. 변(邊) 변(邊) 변(邊) 관(貫)

제2순 5중 6푼이다. 변(邊) 변(邊) 변(邊) 변(邊) 관(貫)

제3순 5중 6푼이다. 변(邊) 관(貫) 변(邊) 변(邊) 변(邊)

제4순 4중 6푼이다. 관(貫) 변(邊) 관(貫) 변(邊)

제5순 5중 6푼이다. 변(邊) 관(貫) 변(邊) 변(邊) 변(邊)

제6순 4중 7푼이다. 변(邊) 관(貫) 관(貫) 관(貫)

제7순 5중 6푼이다. 관(貫) 변(邊) 변(邊) 변(邊) 변(邊)

제8순 4중 5푼이다. 변(邊) 관(貫) 변(邊) 변(邊)

제9순 5중이다. 변(邊) 변(邊) 변(邊) 변(邊) 변(邊)

제10순 5중 6푼이다. 관(貫) 변(邊) 변(邊) 변(邊) 변(邊)

“금일 본부의 무사를 시취하고 활쏘기를 하였는데 과녁에 적중한 것이 많았다. 이 고풍(古風)을 써서 방목(榜目)에 붙여 보내니 경(卿)은 그것을 받아 판각하여 득중정에 게시하고 무예를 권장하는 뜻을 보이려” 하셨다. 전죽(箭竹) 10개를 내하(內下)하셨다.

고풍(古風) 수원부사 이경무(李敬懋)

임자정조 16, 1792년 10월 30일

어사(御射) 유엽전 10순 469사(矢) 72푼(分)

제1순 5중 8푼이다. 변(邊) 관(貫) 변(邊) 관(貫) 관(貫)

제2순 5중 7푼이다. 변(邊) 변(邊) 관(貫) 변(邊) 관(貫)

제3순 5중 7푼이다. 변(邊) 변(邊) 관(貫) 변(邊) 관(貫)

제4순 5중 7푼이다. 변(邊) 변(邊) 변(邊) 관(貫) 관(貫)

제5순 5중 6푼이다. 변(邊) 변(邊) 변(邊) 관(貫) 변(邊)

제6순 5중 8푼이다. 관(貫) 관(貫) 변(邊) 변(邊) 관(貫)

제7순 5중 8푼이다. 변邊 觀貫 變邊 觀貫 觀貫

제8순 5중 7푼이다. 변邊 變邊 觀貫 觀貫 變邊

제9순 5중 7푼이다. 변邊 觀貫 變邊 觀貫 變邊

제10순 4중 7푼이다. 변邊 觀貫 觀貫 觀貫

같은 날

소소小小 편혁片革을 단순單巡하여 5중 7푼이다. 관貫 變邊 變邊 觀貫 變邊

유엽전을 또 1순하여 5중 6푼이다. 변邊 觀貫 變邊 變邊 變邊

전죽箭竹 50개를 내하하셨다.

강무당 講武堂 강무당 현판 1좌 ○ ‘일부웅진 一夫雄鎮’ 전자 篆字 현판 1좌, ‘만고장성 萬古長城’ 전자 篆字 현판 1좌 ○ 상량문 현판 1좌.

○ 상량문

엿드려 생각하건대 이에 만년토록 영원히 하늘이 지키시니 새 고을에 철벽의 성이라는 아름다움을 튼튼히 하고, 하루라도 지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므로 광장에서 군사 훈련을 하는구나. 추녀 기둥에는 싱싱한 빛이 돌고, 범 같은 군사들은 기운이 솟는구나.

대체로 들으니 한나라 좌풍익 左馮翊의 북군 北軍이 지키는 것은 팔 다리보다 중요하고 송나라를 일으킨 서교 西郊의 당사 堂土는 뛰고 달리는 것을 시험하는구나. 앉고 일어서고, 나아가고, 물러남의 절도를 익히는 것은 높은 궁궐의 화려한 경관을 위해서만은 아니네.

돌아보니 화성은 현릉원이 있어 임금이 찾는 고장으로 임금님의 수레가 해마다 행차하는 땅이라. 산은 팔달산에서 시작하여 나는 용과 춤추는 봉황이 모여 이 땅에 천년의 신비를 간직하여 신령스런 까마귀와 거북이가 조화를 이루었네.

길한 기운이 아름다우니 울창한 산은 더욱 높고 물은 더욱 맑구나. 내 가는 길이 더디고 더디니 이슬이 이미 내려 촉촉하고 서리가 이미 내렸다네. 이와 같이 한나라 풍뎡 땅 같은 옛 고을에 화성의 경관을 실었구나.

아름답구나, 북쪽으로 산봉우리 보이고 동쪽으로 강이 보이니, 거의 을묘정조 19, 1795년과 병진정조 20, 1796년에 열심히 생각하여 갑자기 천 채의 집 우물과 만 채의 읍이 생겼구나. 기유정조 13, 1789년과 경술정조 14, 1790년 이래에 배나 수레가 모이고 재화가 소통되니, 곧 이곳이 호남·영남·송도·강화로 가는 모든 길과 합쳐서 봄비네. 궁실을 먼저 짓고 창고를 나중에 지으니 가게와 시장과 백성들의 살림집까지 일제히 지어서 한꺼번에 솟아오르네.

대체로 백성을 옹기고 고을을 옹기는 바탕은 모든 경비를 별도로 계획한 바에 따랐고, 무릇 집 한 채 누각 한 채 짓는 것도 효도하는 마음에서 우려나지 않은 것 없네. 이에 봉양위 鳳陽衛를 설치한 것은

오래 현릉원을 보호하기 위한 까닭이고 또 용무군(龍武軍)에 수레가 머문 것은 서울 주변을 튼튼하게 하려는 생각 때문이네.

드디어 옛 군영을 방어하기 위하여 장용외영(壯勇外營)을 설치하였네. 절차와 제도는 안과 밖이 서로 맞아야 하니 새로 13조(哨: 1조는 1백 명 가량의 군사)의 친위군을 뽑았고, 다섯 병졸씩 편제를 만드는 것은 본디부터 최강이라 하니, 바로 이 5천 병사가 따로 지키는 곳이다.

성벽과 보루의 질서정연함은 상산(常山)의 머리와 꼬리를 서로 잇고, 언덕과 들판이 날아오르는 듯함은 북방의 몸과 손이 되니 가장 건장하구나. 지난번 철옹성 같은 높은 봉우리가 은연히 요충지의 위엄을 더하였네. 위대하구나, 백성을 돕는 마음으로 십 리나 되는 성 쌓기를 일찍 마치네. 빛나는구나, 죽어선 별들이 1천 성가퀴의 망루를 둘러싸네.

이렇게 지키고 방어하는 곳이 이미 완성되니 벌써 훈련하는 장소가 생겼구나. 단이 있고 광장이 있는 높은 집을 차지하여 총 쏘고, 대포 쏘고, 달리고, 말 타는 그 모양이 크기도 하여라. 집의 구조를 높게 지으니 장령(將領)과 부곡(部曲)이 질서정연하구나. 낙남헌에 임금께서 오시어 친밀히 하시니 봉황의 기를 세울 문이요, 한강 북쪽의 장대(將臺)는 옆으로 평평하게 통하니 토끼 그물(『시경』 「주남, 편에 나오는 말로 현명한 사람이 아주 많음을 암시」)을 치도록 마련한 들이로다. 간소하게 하는 바탕을 귀하게 여기니 어찌 태평 시대라 하여 소홀히 하겠는가.

봄·여름·가을·겨울 사냥은 주(周)나라의 사마(司馬)가 익혀야 할 일이고, 가운데는 봉화요 왼쪽에는 자리 깔고, 앞은 굳세게 뒤는 날래게 하는 것은 초(楚)나라 광거(廣車)의 군사 부리는 법이라네.

정예롭고 용맹한 3천여 명의 군사를 뽑아서 치고 찌르는 18반 무예를 시험하네. 눈으로는 깃발의 움직임과 보고 귀로는 징소리와 북소리를 들으니 호령은 오신(五申)으로 엄격하다네.

오른손에는 채찍과 활 들고, 왼손에는 화살 주머니와 활집을 들고 행렬을 군중에서 정돈하는구나. 날랜 말 타고 별처럼 달리니 모두가 세 곳으로 적을 치는 좋은 장수들이다. 과녁을 구름처럼 많이도 세우니 이 사람들은 모두 다섯 무계의 활을 당길 만한 사수들이네.

때는 해마다 풍년이 들어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바다는 고요하고 강은 맑구나. 자개 갑옷을 붉은 실로 엮었으니 빛나는구나, 군사들의 재주부림이여. 무지개 같은 대들보에 오색 칠한 기둥은 우뚝하니 보기에도 아름답구나.

한가한 날에 이 곳에 오르니 진(晉)나라의 장수들이 편히 쉬 때가 생각나고, 바야흐로 봄이 와 놀러 나가니 한나라의 수레가 고삐를 당겨 천천히 가는 맛이 있구나. 오직 이곳을 쌓고 이곳을 뚫은 공은 어찌 다만 어려운 때나 대비하기 위한 것이겠는가.

돌아보건대 둥글고 빛나는 아름다움은 또한 비단으로 산과 내를 수놓은 듯, 그러므로 장차 늘 국방에 힘쓰는 나머지 이에 상량의 노래를 도와 이루어보세.

어여차 대들보를 동쪽으로 들어 올려라.

고운 성가퀴 햇살을 받아 눈부시니
 하늘에 뜬 푸른 바다에는 전쟁의 기운 없고
 매일 밤 평안하게 봉화불을 밝히네.
 어여차 대들보를 서쪽으로 들어 올려라.
 군가를 부르고 나니 저녁 구름 낮게 깔리고
 지금이 태평성대 병농일치 생각하니
 갑옷 벗고 집에 와서 쟁기 잡고 밭 가누나.
 어여차 대들보를 남쪽으로 들어 올려라.
 빼어난 푸른 산 연꽃 봉우리 상서로운 빛 머금는데
 해마다 정월에는 성묘하는 길이고
 만 그루 실버들이 길게도 늘어졌구나.
 어여차 대들보를 북쪽으로 들어 올려라.
 하루 길 장안은 지척에 있는데
 백성들은 모두 임금님의 부모 섬기는 정성 알고
 못 별들은 우수수 북두칠성 둘러싸네.
 어여차 대들보를 위쪽으로 들어 올려라.
 아름다운 기운 서린 산봉우리 멀리 바라보이는데
 만년토록 다하도록 태평성대 즐겁고
 많고 많은 좋은 복은 신령께서 내려주네.
 어여차 대들보를 아래로 들어 올려라.
 화홍문^{華虹門} 밖으로 여러 시내 흘러가니
 장군은 하필이면 둔전^{屯田}을 아뢰었는가.
 이로부터 좋은 밭두둑 천 이량이 들에 가득하구나.
 엎드려 원하니 상량한 뒤에
 군사들의 사기는 더욱 세어지듯이
 강무당의 지붕은 더욱 높아지거라.
 다섯 대 다맞힐 대포를 쏘고
 세 번을 잘 맞힐 대포를 쏘아
 멀리는 한나라의 지방 관리들이 익히는 걸 능가하고
 십만의 병졸과 6만의 돌격대는
 다만 제^齊나라 임치^{臨淄} 땅의 부강만 못하랴.
 땅이 좋고 사람이 화합하니

억만년이나 하늘이 만든 견고함을 정하고
장수는 작전을 잘 짜고 군사들은 용감하니
백 리를 하루에 개척하는 공을 아뢰네.

홍문관제학 이병정李秉鼎은 교서를 받들어 짓다.

득한문得閑門 현판 1좌.

미로득한정未老得閑亭 편액 현판 1좌 ○ 어제 현판 1좌 ○ 제신갱진시諸臣廣進詩 현판 2좌.

○ 어제御製

天有此山有此亭 하늘이 이 산을 만들어 두고 또 이 정자가 있으니
先王警蹕幾時停 선왕께서는 조심스레 길을 멈추고 어느 때에나 머물러 있었겠는가?
至今傳誦不忘化 지금 옛 이야기를 읊으니 옛 왕화를 잊을 수가 없는데
草木依然舊日靑 초목은 의연하게도 옛날처럼 푸르구나

○ 제신갱진시諸臣廣進詩

葱籠佳氣繞宮亭 푸성귀 삼태기에 아름다운 기운이 궁궐 정자를 두르고
華祝謠騰玉輦停 화평의 축원하는 노래는 임금님 수레에 올라 머물렀네.
宸感尙多回舊乙 대궐에서의 감흥이 오히려 많아 옛 새들도 돌아오는데
二陵松柏望中靑 두 능원의 송백은 마음속에 푸르기를 바라노라

판중추부사 박희수朴喜壽

新豐西畔有名亭 신흥루 서쪽 두둑에 이름난 정자하나가 있으니
孝日慈雲自古停 자궁에게 효도 잔칫날 구름이 옛 부터 머물렀도다
楊柳爭妍少年似 왕버들과 능수버들이 서로 곱기를 다투는 것은 소년들도 비슷한데
萬廻長看此春靑 만번을 돌아보고 오래도록 살펴보니 이것이 푸르른 봄이로다

영의정 김좌근金佐根

川爲瀾瀾嶽亭亭 작은 시내가 모여 큰 물이 되어 흐르고 큰 산마다 정자를 품었는데
八達端如奠四停 팔달산은 바로 존귀함을 알아 사방이 머무르네.
恭職卯年當日慶 벼슬길에 올라 을묘년 당일의 경사를 모셨는데
引千基萬震維靑 천년 만년 터전을 끌어당기니 만물이 발동하여 오직 푸르구나.

우의정 조두순 趙斗淳

氤氳淑氣繞紅亭 기운이 성하고 맑은 기운이 붉은 정자를 감싸고.
 劍佩趨隨寶蓋停 검패의 무리가 느리게 따르니 보개 寶蓋가 머물렀다.
 父老霑恩先志述 은혜를 입은 부모들은 선왕의 뜻을 서술하고
 春風萬井瑞烟靑 봄바람에 많은 우물에서는 상서로운 연기가 푸르다.

행도승지 심의면 沈宜冕

劍佩趨隨上小亭 검패의 무리가 느리게 따라오는데 작은 정자가 산 위에 있으니
 五雲深處羽旄停 오운 깊은 곳에 임금님의 우모가 머물렀네.
 滿城父老霑恩渥 성 안에는 임금님의 은택을 입은 부로가 넘쳐나는데
 瑞雨初晴御柳靑 상서로운 비가 처음 개인 날 임금님 계신 곳의 버들이 푸르구나.

행좌승지 심경택 沈敬澤

遺蹟新豐起小亭 신품인 화성 땅에 유적으로 작은 정자를 일으키니
 五雲多處玉纓停 오운이 많은 곳에 임금님의 수레가 머물렀네.
 詞臣齊頌追先孝 글짓는 신하가 가지런히 선왕의 효성을 추모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樹木欣欣欣裏靑 수목들이 기뻐하니 왕화를 입어 속까지 푸르렀네.

행우승지 권직 權稷

佳氣鬱蔥繞一亭 울창한 수풀의 아름다운 기운이 한 정자를 감싸니
 簪紳趨侍玉纓停 벼슬아치들이 느리게 모시는데 임금님의 수레가 머물렀네.
 遺民尙說先王化 유민들은 선왕의 교화를 숭상하여 이야기하는데
 松柏依如昔日靑 송백은 예전과 같이 의연히도 푸르구나.

좌부승지 이승보 李承輔

松樹中間縹緲亭 소나무 숲 사이에 옥색으로 아득한 정자 하나
 新豐和氣玉纓停 신품의 온화한 기운에 임금님의 수레가 머물렀네.
 三杯拜獻封人祝 세 개의 술잔을 절하고 봉헌하니 봉인들은 축원하고
 八達山光萬歲靑 팔달산의 광채는 만세토록 푸르러라.

우부승지 김재청 金在淸

未老江山此小亭 늙지 않은 이 강산에 이 작은 정자에

慈籠和氣一春停 푸성귀 삼태기에 온화한 기운이 한 봄날에 머물렀네.
 登臨宛昔君臣會 정자에 올라 옛날 군신이 모이던 곳을 굽어보니
 聖慕彌新史筆靑 성인이 그리워 두루 새로운 역사의 붓대가 푸르구나.

동부승지 김병규 金炳奎

煌煌御額一高亭 빛나는 어서편액을 높이 단 정자 하나
 春日鑾輿此暫停 봄날에 임금님의 수레가 이곳에 잠시 머물렀네.
 父老新豐猶說古 신풍의 부로들은 오히려 옛 일을 이야기하는데
 是年園樹倍靑靑 올 해의 동산과 나무들은 더욱 푸르고 푸르다.

겸춘추 윤정선 尹定善

宮花溪柳影亭亭 궁궐의 꽃과 시냇가의 버들 그림자가 정정하고
 鳳吹鸞歌暇日停 봉황이 불고 난새가 노래하며 한가한 날에 머물렀네.
 近侍天顏如有喜 근시들과 임금님의 안색은 기쁨이 있는듯하니
 新豐春色萬年青 신풍의 춘색은 만년토록 푸르러라.

겸춘추 김완식 金完植

隋城花柳擅名亭 수성수원의 꽃과 버들이 마음껏 피어나니 이름난 정자에
 彤日妍妍瑞靄停 붉은 해가 곱디 고와 상서로운 아지랑이가 머무른다.
 天地百靈藏淑氣 천지간의 많은 신령들이 숙기를 감추니
 珠邱松柏萬年青 주구의 송백은 만년토록 푸르러라

겸춘추 이승유 李承游

斯亭便是上林亭 이 정자는 편하고 이 위 숲에도 정자가 있으니
 鑾蹕雍容晝乍停 임금님 수레가 멈추어 기쁜 얼굴로 낮에 잠깐 머물렀네.
 近侍諸臣寬禮數 가까이서 모시는 여러 신하들은 너그럽고 경의를 표해 말하는데
 華山齊頌萬年青 화산은 가지런히 만년의 푸르름을 노래하네.

겸춘추 강석일 姜哲一

先王遺跡在名亭 선왕의 유적이 이름난 정자에 있으니
 虹渚年廻鳳駕停 물가에 무지개가 뜨고 세월이 돌고 돌아 임금님 수레가 멈추었네.
 匝地繁華春似畫 넓은 땅 뒤섞인 꽃이 그림 같은 봄이건만

東風寒食柳條青 동풍이 부는 한식에 버들가지는 푸르구나.

주서 이희노李禧魯

未老占閑一架亭 아직 늙지 않아서 한가함을 차지하여 하시령의 정자를 이으니
先朝龍馭五雲停 선조께서는 임금님의 말을 몰아 오운이 머물렀네.
君臣宛似當年會 군신들이 당년에 모인 것같이 굽어보니
依舊東風御柳青 옛 동풍대로 임금님 머문 곳의 버들이 푸르구나.

주서 김익용金益容

상지 5고종 5, 1868년 2월 일

○ 제신갱진시諸臣廣進詩

元氣千年毒此亭 만물의 정기가 천년동안 이 정자 길러내어
先王鑾蹕幾廻停 선왕의 수레가 멈춘지 얼마 만에 다시 멈추는가!
花薰柳色渾遺滓 꽃향기와 버들 색이 합쳐져 위수에 남겨지고
聖孝長留汗竹青 성인의 효성 오래도록 남아 임금님의 호령이 청죽에 남으리라.

제학 김병기金炳冀

禁花春深未老亭 꽃핀 봄날 깊은 곳 미로한정을 금하니
鑾輿臨處瑞雲停 임금님 수레가 임한 곳에 상서로운 구름이 머물렀네.
乙年重屆增宸感 을묘년에 거듭 이르기를 대궐을 더한 느낌인데
今古華山不盡靑 예나 지금이나 화산은 푸름이 다하지 않는구나.

원임 직제학 이학수李鶴秀

花香淑氣壓名亭 꽃향기 맑은 기운 이름난 정자를 누르니
是歲鑾輿此地停 올해 임금님 수레가 이 땅에 머물렀네.
上下幾千楊柳色 위 아래로 수천그루의 버들의 춘색은
春來不改舊是靑 봄이 왔으나 변함없이 옛날 그대로의 청색이로다.

원임 직제학 김대근金大根

輦路透迤傍小亭 수레를 끌고 구불구불 가는 길옆의 작은 정자에
暫移清蹕彩雲停 잠시 옮겨 깨끗이 치우고 빛깔 고운 구름이 머물렀네.
今曰臣民追慕地 금일의 신민이 추모하는 땅이로대

滿山松樹鬱青青 산에 가득찬 소나무 숲은 울창하여 푸르고 푸르도다.

원임 직각 김정집 金鼎集

萬歲春光數笏亭 만세의 봄빛이 홀을 세며 머무르고
亭中幾度玉鑾停 정자 가운데에 몇 차례나 임금님 수레가 머물렀던가!
命頒米肉追先志 쌀과 고기를 내려주라 명한 선왕의 뜻을 추모하니
蔀屋烟生趁夕靑 부옥의 연기가 피어나 저녁의 푸르름을 뒤쫓는다.

검교직각 정건조 鄭健朝

花氣氤氳護彩亭 꽃이 피어나는 기운이 인온하여 아름다운 정자를 호위하고
觀花今日翠華停 오늘 이어난 꽃을 보니 취화가 머물렀네.
新豐賜米優遺老 신평루에서 쌀을 나눠준 일을 많은 늙은이 들이 기억하니
盛事紹先耀寫靑 선왕의 성대한 일을 이어 받아 청사에 빛나리라.

원임대교 이유원 李裕元

新豐勝覽有斯亭 신평의 뛰어난 경치에 이 정자가 있으니
向晚紅雲來柳停 해질 무렵 붉은 구름이 버드나무에 와서 머무르네.
草木皆含曾雨露 초목은 모두 이른 빗방울을 머금었는데
長留春色萬年青 춘색이 오래도록 남아 만년토록 푸르려라.

검교 대교 홍순목 洪淳穆

碧柳千絲繞一亭 천개의 실타래처럼 늘어진 푸른 버들이 정자하나를 감싸니
訪花清蹕晚來停 깨끗이 길 치우고 꽃을 찾아 해질 무렵 와서 머문다.
而今草木皆恩澤 지금의 초목들도 모두가 은택을 입었는데
佳氣華封萬歲靑 아름다운 기운, 화 땅의 봉인은 만세토록 푸르려라.

검교 대교 이병문 李秉文

繞地軒天有此亭 땅을 감싸 안고 추녀가 하늘을 가린 곳에 이 정자가 있으니
寧王孝績萬年停 어찌 선왕께서 쌓은 효성이 만년토록 머물겠는가?
東纏西澗淋漓氣 동쪽엔 전방, 서쪽엔 계곡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기운이 있어
更見隆嶺八達靑 높이 솟아오른 팔달산의 푸름을 다시 보겠네.

검교 대교 조병협 趙炳協

偷閑學少最斯亭 바쁜 가운데 틈을 내서 조금 알아보니 이 정자는 가장 뛰어나다하니
 麗日如年鳳蹕停 화창한 날 올해와 같이 임금님이 길 치우고 머물렀다네.
 檻外山光長不老 울타리 밖에 산 풍광은 오랫동안 늙지 않았는데
 一春花本咲丹青 하나의 봄 꽃 뿌리가 단청처럼 비치네.

흥선군興宣君

新豐樓外聳閑亭 신평루 밖에 미로한정이 높이 솟았으니
 滿地春聲興不停 대지에 가득한 봄소리 흥취가 머물지 않았겠는가?
 仙樂入雲雲影淡 신선의 음악소리 구름 속에 들어가 구름 그림자는 담박한데
 鳳旗隱柳柳絲青 봉황의 깃발 버들에 숨고 버들가지는 푸르도다.

익평군益平君 희曦

玉輅春遊御此亭 임금님의 수레가 봄날 이 정자에 입어하여 노니니
 鸞歌仙樂瑞雲停 난새의 노래 신선의 음악이 상서로운 구름 속에 머무네.
 滿地蒼生共勸樂 대지에 가득한 창생은 함께 음악을 권하고
 垂楊處處倍新靑 늘어진 버들은 곳곳에서 새로운 푸름을 더하네.

영평군永平君 옥昱

共歡天意侍斯亭 하늘의 뜻을 함께 기뻐하며 이 정자를 모시니
 醉飽賡歌唱不停 취기를 물리치고 이어 부르는 노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구나.
 萬物亦知含弘度 만물 또한 넓은 도량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花爭紅紫柳爭靑 꽃은 붉은색과 자줏빛을 다투고 버들은 푸름을 다투다네.

경평군慶平君 호皓

春光不老屬花亭 봄빛이 늙지 않고 꽃같은 정자를 이어주니
 淸蹕初迴白日停 깨끗이 길 치우고 처음 돌아보니 흰 태양이 머무네.
 雨露多年偏被處 비와 이슬은 오랜 세월을 이곳에 치우쳤으니
 新豐松柏倍倍靑 신평의 송백은 몇 배나 더 푸르구나.

동녕위東寧尉 김현근金賢根

山上有臺臺上亭 산 위에 대가 있고 대 위에 정자가 있구나.
 仙園移蹕御輿停 선조의 원침이 옮겨왔으니 길 치우고 임금님의 수레가 머무네.

瞻旄尚說前年事 깃대 장식을 보면 오히려 옛날의 일을 이야기하니
輦路春風柳色青 연로에는 춘풍이 불고 버들의 색은 푸르도다.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

既展宸誠暇此亭 이미 대궐의 정성을 폈으니 한가한 날 이 정자엔
笙歌日暖五雲停 따뜻한 날에 생황소리 노랫소리 오색구름 속에 머무네.
仙風微動春容喜 신선의 바람에 작은 움직임이 이니 봄의 모습은 기쁘고
禁苑花紅街柳青 금원의 꽃은 붉고 가로 버들은 푸르구나

사용司勇 김병필金炳弼

상지 5고종 5, 1868년 2월 일.

복내당福內堂 어필 편액 현판 1좌 ○ 상량문 현판 1좌.

○ 상량문

앞드려 생각하건대, 이에 좌우로 집을 지어 이 도읍에 엄정함이 있게 하여 안과 밖을 구분하여 집을 짓고, 마침내 많은 복을 받으니 빠르기는 뗏목이 응하듯이 하는구나. 문설주에 걸린 편액을 보니 돌이켜 보건대 이 화성 한 고장은 곧 기전畿甸의 중요한 땅이로다.

금성탕지金城湯池가 하늘이 만든 듯한 형세를 안고, 귀신이 감추고 아낀 지 오래도다. 현릉원에 달마다 오셔서 고향을 바라보니, 아름답구나 용이 날고 봉황이 날개치듯 하는구나. 한漢나라 삼보三輔한나라 때 장안, 곧 서울의 인접지역을 가리키는 제도를 본받았으니 어찌 다만 국경 수비만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겠는가. 두 서울의 모양과 형세를 스스로 높였으니 대개 현릉원을 껴안아 보호하기 위함이라네.

이에 궁궐 짓기를 시작하였으니 여기에 해마다 행차하실 것이라네. 그 모양이 한나라의 풍패와 같으니 다투어 임금의 수레가 이르러 멈추는 것을 우리르네. 땅 이름은 참으로 요임금이 다스리던 땅과 부합되니, 백성들의 풍속이 잘 뒀을 권장하겠구나.

갑자기 모여들어 도움을 이루니 성과 연못의 웅장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새 거듭 머물고 거듭 자니 마땅히 궁실을 이에 경영해야 하겠구나. 행궁의 내전을 점점 짓기 시작하니 이에 내당도 아울러 짓기를 도모하네. 위에서는 기둥 세우고 아래서는 지붕 짓는 뜻을 취하니 어찌 장대하고 수려한 규모를 쓰겠으며,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도록 맞게 하였으니 유달리 이곳은 깊고도 엄한 곳 이구나.

마루가 봉수당의 탁 트인 집과 이어졌으니 만년 장수 일컫는 술잔을 드리는 정성이요, 문이 장락당의 크고 화려함과 가까우니 세 종정의 기쁨 받는 땅을 갖추었네. 규모와 법도는 임금이 평소애 거처하는 전각을 대략 본떴고, 처음 시작할 때는 대략 관아와 비슷하구나.

새벽빛이 비로소 비단 밭에서 열리니 정치는 어머니 계시는 곳에서 더욱 빛날 것이고, 맑은 향기가 길이길이 무늬있는 안석에 영기니 우두커니 서서 노래자^{老來子}의 웃이 빙빙 도는 것을 보네. 시작하고 짓는 것이 임금의 마음을 우려러서 마음 쓰지 않는 것이 없도다. 이에 건물의 아름답고 장대한 제도를 갖추었으니 거처하기 편하겠구나.

아아 정성스런 뜻의 미치는 바가 진실로 행동거지가 모두 들어맞는구나. 길이 만세토록 오래감을 도모하였으니 어찌 보고 즐기는 것만을 위한 것이라.

몇 해에 걸쳐서 큰 읍을 만들었으니 아마도 조물주가 도와준 듯하구나. 일을 하되 백성들을 번거롭게 안 하니 좋아하여 다투어 달려와서 들어올리네. 농사짓는 때 어기지 않으니 혼자서 하려는 마음 없구나.

바야흐로 꽃 같은 구조를 짓기 시작하니 드디어 무성한 복록이 와서 함께 하는구나. 밖에서 얻어 가운데에 생기니 느끼고 부르는 이치를 볼 수 있고, 이쪽에서 피고 저쪽에서 거두니 더욱 향하여 쓰는 마땅함을 겪는구나. 복희씨 주역의 상서로움을 상고하는 이치와 같으니 그것은 곧 크게 길함이라네. 주나라 음악인 소아^{小雅}·대아^{大雅}의 복록을 구하듯이 스스로 구하되 간사하지 않구나.

이에 복을 밟는 길 편안함을 알 수 있으니 장차 겹과 속이 입술 다문 것처럼 되었네. 새로운 아름다움 맞이하여 비단으로 엮으니 울창하고 총총한 빛이 더하는구나.

이에 번영과 화평의 바른 말을 펴서 노인의 좋은 노래 부르는 걸 대신하노라.

어여차 대들보를 동쪽으로 들어 올려라
밭에 달린 고리가 처음 떠오르는 해처럼 바로 붉게 솟구치니
들쭉날쭉한 누각이 그림자 같고
평평하게 바라보니 안개꽃 일색일세.
어여차 대들보를 서쪽으로 들어 올려라.
팔달산이 높으니 검푸른 빛 가지런하고
주나라가 오래오래 이어감을 알았으니
곧 백성들이 함께 붙들어주고 잡아줄을 보는구나.
어여차 대들보를 남쪽으로 들어 올려라.
꽃 핀 산 높고 높아 푸른 이내 솟구치고
이슬 내려 해마다 임금 행차 경계하니
소나무·삼나무는 셀 수 없어 구름과 함께 하네.
어여차 대들보를 북쪽으로 들어 올려라.
맑고 큰 종남산으로 하나의 길이 곧으니
임금의 기운은 멀리 자경당^{慈慶堂}으로 통하여서

임금님 아침 저녁 매우 즐거워하네.
 어여차 대들보를 위쪽으로 들어 올려라.
 빛나는 수성^{壽星}이 하늘에 밝으니
 구름 속의 음악 소리 술자리에 어울려서
 마침 푸른 봄 기다려서 빛나는 지팡이를 옮기누나.
 어여차 대들보를 아래로 들어 올려라.
 천 개의 집 우물 하나에 기와로 이어지니
 새로운 은혜 받아 제 집 찾아 돌아오듯
 모두가 편안히 살고 하는 일 좋아하는구나.

없드려 바라건대, 상량한 뒤에는 천지신명 붙들어주고 길함과 상서로움 모여서 이미 부유하고 이
 미 많아서 땅의 이로운과 사람의 화합이 아름다움에 맞아 오래 살고 건강하여 달처럼 차고 해처럼 솟
 는 경사에 부합되니, 다만 임금이 한번 행차하는 데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모든 복이 모두 모이소서.

홍문관제학 민중현^{閔鍾顯}은 교서를 받들어 짓다.

유복문^{維福門} 현판 1좌.

향춘문^{向春門} 현판 1좌.

경선문^{慶善門} 현판 1좌.

연휘문^{延暉門} 현판 1좌.

유여택^{維與宅} 현판 1좌.

가어문^{嘉魚門} 현판 1좌.

공신문^{拱宸門} 현판 1좌.

경화문^{慶華門} 현판 1좌.

유여문^{維與門} 현판 1좌.

외정리아문^{外整理衙門} 현판 1좌.

항미정^{杭眉亭} 편액 현판 1좌 ○ 정기^{亭記} 현판 1좌 ○ 중건기^{重建記} 현판 1좌, 중수기^{重修記} 현판 1좌.

○ 기記

소장공^{蘇長公} 소동파이 서호^{西湖}를 항주의 미목^{眉目}이라 하였는데, 나는 축만제의 일파^{一坡} 또한 '수성^{水城}
 수원의 서호' 라고 이른다. 대저 서호는 서쪽의 호수라 한 것이지 오직 아름답고 화려하거나 아름답
 고 고운 것을 이르는 것은 아니다. 호수 아래로 수십리의 개전^{漚田}의 이익이 크게 있고, 지금 이것의 못

이 큰 것은 강과 같이 여유롭고 물을 적시는 것 또한 수십리나 멀리 간다. 이러한 이익은 중국의 서호에 뒤지지 않는다. 먼 산을 가로지르는 눈썹이 밝은 물결에 거꾸로 비치면 비록 연꽃과 계수나무의 승경勝景은 없으나 긴 제방의 버들 색은 비추는 것을 가리고 흔들리며 사람을 끌어댄다. 못 가운데서는 봉어가 극히 많이 생산되는데 '병혈의 미'가 있다. 낚시꾼들은 한 두 마리를 잡아서 돌아간다. 배는 항상 연기와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크고 아득한 공간에서 왕래하니 진실로 그림 속의 풍경이다. 또 이 못은 서쪽에 있으니 서호라 이르는 것이 가할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항주에는 호수 위에 이름난 정자가 있는데 어지 한스럽게도 이 서호에는 제방이 이루어진지 40년이 되었는데도 오히려 1척의 서까래로 엮은 시렁도 없으니 한스럽다. 어떠한가? 내가 유수로 있으면서 땅을 간직하는데 이 일에 뜻이 있는데도 돌아보니 재목을 구할 방도가 없었다. 우연히 화성華城 북쪽에 폐지된 절 집 몇 칸이 버려진 지 오래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 재목이 가히 쓸만하여 마침내 철거해서 옮겨와서 제방 위에 작은 정자를 지었다. 물에 면하고 산록에 의지하였으며 단청을 새로 입혀 여러 손님들이 더불어 도왔다. 가서 낙성하고 생선회에 술자리를 베풀었다.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어 말하기를, "이 땅은 본래 메마르고 척박하였는데, 관개의 이익이 조금 있는 것은 우리 선왕께서 내탕의 재물 3만금을 출연하여 이 제방 하나를 이룬 것이다. 화성 사람들은 만년토록 남겨질 은택을 입어 그 즐거움을 즐기고 그 이로움을 이롭게 하니, 『시경』에 이르기를, '오호라! 전왕前王을 잊지 못한다' 고 하였으니, 이 정자를 지은 까닭이다. 선왕의 큰 덕을 칭송하는 것이니 제군들은 그것을 알겠는가?" 하였다. 모두가 감탄하였다. 나는 이미 이 제방으로서 항주의 서호에 견주었으니 '항미'로서 이름을 삼고자 하니 내 정자 이름이 가하겠는가? 하니 모두가 좋다고 하였다. 마침내 붓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하였다.

신묘순조 31, 1831년 10월 유수 박기수朴基壽는 기록한다.

○ 유수 박기수의 시

寒塘下水門	차가운 못 수문 아래에
飛閣斷雲根	나는 듯한 집을 지으니 구름이 일어나는 근본이로다.
柳繫西湖舫	버드나무에는 서호의 배를 매어두고
筵開北海罇	대자리를 깔고 북해의 술두루미를 연다.
秋登收黍稌	가을이 오면 기장과 찰벼를 거두고
民樂麇魚鼈	백성은 즐겁고 물고기와 자라를 실컷 먹는다네.
不盡於戲感	오호라! 감탄하는 느낌이 그치지 않으니
鳴波帶聖恩	물결이 우는 소리 성은聖恩을 띠고 있네.

○ 중수항미정기

화서문을 나와 서쪽 마을이 차지 않았는데 6~7개의 언덕과 산이 도랑을 두루 둘러막아 평원에 커다란 호수가 만들어졌는데 3면은 산과 경계를 이루고, 남쪽은 축만제를 쌓아 갑문(閘門)으로 호수의 물을 모아두기도 하고 흘러내리기도 하는 관개를 하여 양전(良田)이 수천 경(頃)에 이른다. 농사(農事)는 물을 버리로서 의지하여 대신 경작하는 것이니 호수의 이익이 넓기도 하여 호수이기도 하고 집터이기도 하며, 농사를 짓기도 하고 물고기를 잡기도 하는구나! 오직 어망과 통발을 놓고 삽을 꽂아 놓고 쳐다 볼 뿐이로다. 일평생을 계곡과 산, 구름과 연기, 풀과 수목, 날짐승과 물고기의 즐거움을 더하면서 백성을 공평하게 잘 다스리는 것은 드물다. 화성의 재상(宰相) 유수(劉守) 자리는 빙빙 돌아다니다가 승류(勝流)를 타고 가고 오는데 좋은 향기를 남기고 싶은 뜻이 있어 가히 계승하고자 여러 관리들에게 순문(詢問)한 까닭에 이름 또한 흔적을 징험할 수 없었으나 탄재(坦齋) 박공(朴公)이 하나의 작은 정자를 지어서 여러 사람을 동반하여 노닐고서 이름을 '항미정'이라 하였다. 이제 판중추부사 굴산(屈山) 이유원 공께서 거듭 지붕을 이었고 6~7년 사이에 조석(朝夕)으로 또 기울고 무너졌다. 수리가 폐해지고 거조가 거동이 떨어져 뒤에 부임한 자들의 책임이 있어 아첨하지 못한다. 이에 두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충심의 마음으로 공사를 명하고 그 일에 힘을 썼다. 몇 칸을 밀어서 덮었다. 한쪽을 높이 세워서 정리하고, 어지러울 듯이 크다. 옛 경관을 바꾸지 않고 아름다움을 더하였다. 이미 낙성을 고하였더니 손님과 관리와 장교, 서리들과 마시고서 흠어졌다. 바람이 서서(洒洒)히 많이 부니 수면(水面)이 춤추는 듯하고 비단 주름과 단청 입힌 난간은 거꾸로 물 속에 잠겨 있다. 주름을 펴 다리고 술자리를 즐기니 하늘을 나는 듯하다. 나그네가 뽕 술잔을 들어 말하기를, "소동과 공이 서호를 수리하고 장문하여 말하기를 '서호는 항주의 미목'이라 하였으니, 이 정자의 이름은 이로써 말미암은 것인가 한다. 공께서는 항주에서 통판(通判)을 16년 하고 다시 지주(知州)로 2년을 하고서 떠났으니 본로를 윤택하게 하였는데, 공미(供米) 3분의 1을 감해주고 쌀을 내어 팔 때 쌀의 품질을 항상 일정하게 하였다. 승첩(僧牒) 전죽(錢粥) 죽을 베풀어주었고, 약제를 다방면으로 구해서 구제해 주었다. 사이가 벌어져 있으나 이에 아울러 정치가 통하고 인화(人和)하며 유람하며 감상을 읊조리니 지극한 호수와 산의 아취이다. 그러므로 그 시가 더욱 많고, 구선(九仙)과 고산(孤山)이 서호의 전당(錢塘)과 옥천(玉泉), 냉천(冷泉), 호구(虎丘)가 신령스럽게 숨고 옥청동(玉淸洞)의 하늘이 견히니 바다와 호수를 바라다보는 작풍이 유행하여 문채(文彩)가 편장(篇章)의 사이에 빛난다. 서호 한 구역을 공이 얻어서 두루 상하 800여년을 드러나게 하였고, 오히려 지금 더욱 혁혁(赫赫)해서 광기(光氣)가 더욱 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일 말재주 없는 사람이 어찌 족히 고인(古人)에게 가지런히 짝하겠는가?" 하였다. 명승유적에 다행히도 태어나서 성인(聖人)의 치세를 만나 그릇되게 분사(分司)의 위탁을 받았다. 쉬고 또 한가한 여가에 뒤섞이고 사치하고 혼탁할 때 우모(羽毛) 인개(鱗介)와 더불어 함께 수영하니 악택(濫澤)이로다! 공경하고 축만제에 나아가 북향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천만세의 수壽를 양축할 따름이로다. 객이 좋다고 말하므로 대개 이것으로써 기문을 삼는다.

임신(己申) 고종 9. 1872년 6월(流月) 유수(劉守) 신석희(申錫禧)는 기록한다.

○ 증건기

화성은 큰 도회지이다. 성지(城池)가 공고(鞏固)하고 누각의 경관이 굉장히 미려하다. 호위와 저축을 모두 갖추어서 백성과 재물을 뒤에서 도우니 번성하기가 삼보(三輔)에서 으뜸이다. 서쪽에 큰 호수가 있는데 만석거를 파서 수천 경(頃)을 관개하니 전민(田民)들은 이제이것에 의지한다. 참으로 선조(先朝)의 지나간 교화가 신기하게 남았는데 남긴 은혜의 남은 것도 두터우네! 울연히 산천과 도로 도룡(稻龍)과 능당(菱塘)의 사이가 크고 성대하구나! 호수의 서쪽 언덕에 하나의 정자가 있으니 큰 산 광채에 의거하고 호류(湖流)의 물을 떠내니 이것이 항미(杭眉)로 이름을 삼은 까닭이다. 지금 총리영은 기보(畿輔) 관찰부가 되어 부오(部伍) 관할제도에 따라 부무(簿務)의 번잡함을 갱신하였다. 옛날의 부끄러움이 아니고, 전래의 치적을 아첨하는 것도 아니다. 명년 여름에 이르러 천천히 둘러보고 말을 달려 서둔에 이르러 호수 위를 방문하였다. 옛사람이 전래해온 영축유분(暹躡遺芬)이 이 정자이다. 바람과 비가 퇴폐(頹廢)시켜 단지 유허만 남았는데, 마을 노인들에게 물어보니 모두가 이 정자의 창건과 수리한 일을 역력(歷歷)하게 기억하여 말하였다. 해와 달같이 이름 있는 석유(碩儒)와 현인(賢仁), 공자(公子)의 풍류와 문체가 빛나게 빛나도록 벽에 걸렸었는데, 지금은 인멸되어 징험할 수 없으니 무릇 사물의 흥체(興替)가 이와 같은 것이 있겠는가?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척연(惻然)하게 두려워서 이내 봉름을 내어서 공사를 명하니 거듭 새로워졌다. 장차 노인네들을 도와서 스스로 술을 빚어 베푸니 부조가 즐겁고 백성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으니 그 일이 도타웠다. 들보통과 관할 사이의 시령은 무방(無防)하게 보였는데 옛 것을 보니 앞에 사치함이 없었다. 달을 넘기지 않아 완성을 아뢰니 마침내 손님과 관료, 향리와 더불어 술마시고 낙성하였다. 한쪽 면은 호수의 광채가 재빠르게 가로지르고 거울을 여니 물과 하늘이 일색(一色)이다. 농부가 노래하니 사계가 일어나고 어부가 화창하여 서로 답하니 무리 모두가 술잔을 높이 들어 축하하여 말하기를, “지금 폐해진 것을 수리한 거조는 이 누가 준 것인가? 공께서는 기문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돌아보니 아첨하지 않고 청을 받아들여 역사를 그릇되게 하였으니 오히려 부끄럽고 어깨에 진 짐을 극복할 수 없고, 족히 옛 현인의 풍취와 시운의 높이 다다름에 모양이라도 비슷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몰래 훑쳐보니 걸려 있는 이름 끝에 영면(榮面)과 더불어 그 일을 기록하였다. 만약 호수와 산, 연기와 구름의 승경에 재상(宰相)이 다시 돌아오는 즐거움을 제공(謏公)이 글로 짓는다면 이미 다 하였으니 어찌 다시 더하겠는가? 아울러서 옛 편액은 새로 새겨 벌여서 순서대로 게시하였으니 뒤를 이어 오는 사람을 기다려 보고 느끼게 할 것이다.

해는 정유(庚午) 1, 1897년 단양(端陽) 단오에 관찰사 해주 오익영은 기록한다.

영화정(迎華亭) 편액 현판 1좌 ○ 어제 현판 1좌(어제시, 위를 볼 것).

지지대(遲遲臺) 비석 1좌, 비명병서(碑銘并序)(위를 볼 것).

여의교(如意橋)

만석거 萬石渠

최홍규 | 경기사학회장